



1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1호

(루게 591)

◇◇◇◇◇◇◇◇◇◇

차 례

◇◇◇◇◇◇◇◇◇◇



추원	4
영생의 선언	5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가치	6
아침 6시	11
서사시 《백두산》을 읊으시며	12
《신로군일》(臣勞君逸)이 거꾸로 된 이야기	14
구월산	18
백두산으로	1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21
명작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여	22
빛나는 미소여	24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그 사랑을 못잊어	25
붉은 다리아	28
어머님의 글밭	39
한 중간역의 꽃과 샘물을 두고	40

명언해설	41
《우끼시호마루》 선원의 수기	42
오늘도 《고난의 행군》을 이어나간다	51
설날의 눈송이	52
차창을 열고서 가자	52
제 할 말을 찾으라	53
불태우자, 더 붉게	53
용해장-나의 일터는	53
두기사에 대한 이야기	54
내나라	62
자기 생활의 세계, 시세계를 가진 시인들의 초상	63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	74
실력전의 준비를!	75
기관사, 나의 목소리	77
라철	78
파업에 대한 생각	80

축원

변홍영

감회깊은 생각속에
하많은 소원속에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생활 우리 혁명에
못잇을 자취를 남긴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래일과 마주서는 설날입니다

이 아침
간절한 축원을 안고
내 마음 달려가는곳이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우리 인민의 휘황한 앞날이 설계되는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잡은곳

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밝은 해빛을 누리에 뿌리시며
새날의 창을 여실 당중앙청사
그 앞에 전사는
경건히 옷자락을 여미고 섭니다
창창히 열려오는 저 하늘가에
장군님 추켜두신 붉은기의 펄럭임소리를
조용히 귀기울여 듣습니다

한평생
아버이수령님 쌓아올리신
성스러운 위업을 빛내가시며
조선을 향도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최고사령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또 한해
제국주의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백두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쳐주시며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오셨습니까
얼마나 로고에 찬 나날을 보내시고
이 아침을 맞으시는것입니까

수천만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장군님 지새우신 그 무수한 낮과 밤이
이 가슴에 뜨거이 어려웁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다시 중부로
쉽없이 이어가신 전선천리길
그 험준한 산발들이 눈앞에 다가섭니다

깊은 한밤에도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휘황한 불빛을 우러르며
내 가슴에 새겨안은 철의 신념이
이 아침 더더욱 불타오르고
장군님 걸으시는
전선시찰의 그 자욱자욱을 따르며
내 새해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심장의 피로 다진 결사의 맹세가
이 아침 더더욱 불덩이로 끓어솟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바람 사나운 이 세월에
사회주의보루로 끄떡없이 솟아있는 조선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이 행성우에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빛나리니

아, 노을비낀 새날의 창을 여시고
먼 래일의 언덕을 바라보시며
새해를 맞는 인민들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 예지에 찬 시선이 가닿는곳에서
나는 봅니다
승리한 조선의 푸른 봄을 안고
장엄히 나뭇기는 붉은기를
나도 그 기폭아래
장군님의 전사된 자부를 안고
땃땃이 설것입니다

장군님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이 헤쳐온 고난의 행군길을
다시 천리만리로 이어가야 한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장군님의 령도를 따르는 인민은
제국주의광풍을 이기고
력사에 자랑찬 승리를 아로새길것입니다!

백배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희망찬 새해를 맞는 이 아침
전사는 한마음
간절한 축원을 드리나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 꽃핀
사회주의가 완전승리한 래일에도
조선을 향도하시며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십시오!

영생의 선언

김형준

어찌
그리움으로써야 어찌
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할수 있으랴
이 땅의 세월이 되고 력사가 된
아버이수령님의 빛나는 한생
그 무엇에 비길수 있단말인가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깊어지는 영생의 의미
저 하늘의 해와 달에 비기려니
해와 달도 낮과 밤이 있고
그도 마침내 끝이 있는것 아닌가

내 그 무슨 말과 글로
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랴
이 땅 그 어디가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 노래의 선물은 불새마냥
나래를 접지 않았는데야...

오늘도 거연히
만수대언덕에 서계시는
수령님께 드리는 천만의 꽃중엔
추모의 흰꽃만은
아직도 이 땅, 우리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니—

아, 영생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을 초월하는 무궁한 사랑
그것은 세대로 이어지는 그이의 혈통
그것은 먼먼 미래까지 밝혀주는
빛나는 예지 위대한 사상!

위대한 사상과 령도
끝없는 사랑과 풍모
세월이 갈수록 그림고 위대하여

낮에도 밤에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찾고부르는
아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어찌 받아안은 사랑으로만
영생의 의미 다 헤아리랴
어찌 이 땅우에 펼쳐진 창조물로만
수령님의 위업 다 노래하랴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영원한 수령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생들에
넋을 주고 광명을 주고계시나니

어찌 그이는 영생하지 않으랴
사랑의 날과 날이 흘러 세월이 되고
사상과 위업이 이루어 조선이 되라고
인민이 지어올린 이름 **김일성**
그 이름은 탄생의 의미
그 이름은 무궁한 세월의 의미

아, 내 어찌 다른 말과 글로
영생의 그 의미를 노래하랴
김일성-그 이름은 영생이란 말
영생-그 의미는 **김일성**동지란 뜻
달리 부를수도 없다 영생이란 말
그 어디에 비길수도 없다 영생이란 뜻

영생과 **김일성**동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고
함께만 불러야 하는 이 불변의 진리는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
이 땅우엔 오직 한분의 수령뿐임을
온 세상에 내리신 영생의 선언이여라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 발표 5돐에 즈음하여-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따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주체문학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 발표 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주체문학의 빛나는 향도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92년 1월 2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과 세계문학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자주시대 문학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십시오으로써 자주적인 인류문학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주체문학의 승승장구하는 앞날을 담보하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유구한 인류문예사상사에서 그 폭과 심도, 독창성과 진리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멸의 문학대강을 받아안게 된것은 현세기 인류문학이 누린 크나큰 경사이며 무상의 영광이다.

이 력사적인 로작은 간고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여놓으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와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하신 백과전서적인 불멸의 문학총서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문학리론을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고 독창적으로 천명하고있다.

고전적로작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문예관에 관한 사상을 심오하게 해명하고있다. 이것은 고전적로작이 밝힌 사상리론에서 근본핵을 이루고있다.

예로부터 문예관은 문학예술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로서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작품창작의 원칙과 방도, 작품의 사회적가치를 밝히는 데서 출발적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문학예술의 진면모와 그 형상의 진수를 이루는 미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

많은 론의를 벌려왔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오직 문학예술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문학작품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해서만 력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문학예술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주는 주체의 문예관은 사회적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할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에 내세우는 주체의 인간학을 근본핵으로 보고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것은 자주성을 위하여 살며 싸워나가는 자주적인 인간의 생활과 투쟁에 있다는 미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미학사상과 천재적인 예지에 의하여 지난날 사회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던 선행로동계급의 문예관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중심의 주체의 문예관이 밝혀진것은 온 세계 인류앞에 자주시대의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이정표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의 문예관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문학의 생명인 주체성에 관한 문제, 유산과 전통과의 호상관계문제,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으로서의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문제 등 자주시대 문학의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원칙들을 독창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히 사실주의창작방법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력사상처음으로 정식화하시고 장엄히 선포하신것은 인류문예사에 새 장을 펼친 획기적인 사변이다.

고전적로작은 또한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공고한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주체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밝혀주고 우리 문학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의 형상창조문제를 지상의 과업으로 제기하고 여기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적인 문제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리하여 주체문학이 수령형상창조과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이를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도록 힘있는 창작실천적무기를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고전적로작에서 주체적인 형상론과 형태론을 새롭게 밝혀주시으로써 우리 작가들에게 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는 형상을 창조하여 문학의 형태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을 안겨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작가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문학건설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리론과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자주시대 문학창조와 건설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령도를 로동계급의 문학의 생명선으로 보시고 당적령도의 본질이 혁명적문학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에 있다는것을 심오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방법론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옹계 구현한 문학창작과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제시하며 작가들과 광범한 대중을 문학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원래 사회주의문학은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힘에 의하여 건설되고 사회와 인민대중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사업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적운동, 문학운동의 길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문학의 본성과 성격에 맞는것이다.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여야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더욱 악랄해지고 일부 나라들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져 사회주의문학을 한다고 하던 일부 작가들이 제국주의반동문학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져 사회주의문학을 말아먹고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더욱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문학은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인류의 자주적지향에 맞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문학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작가들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 오래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문학의 령도방법론을 새롭게 확립하시였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주체의 문학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새형의 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빛나게 밝힌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자주시대 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하여 현시기 인류의 자주위업은 일찌기 있어보지못한 심각한 곡절을 겪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학 역시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몰아내고 우리의 주체문학은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향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예술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도 주체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그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고있다. 더우기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창작의 만능의 보검인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받아안음으로써 우리 문학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더욱 풍만하고다양한 형상들로 빛나게 장식하며 신심에 넘쳐 전진하고있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발표된 때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문학창작의 견지에서 놓고보면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문학은 실로 놀라운 혁신적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문학은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는 어떤 형태, 어떤 형식에서든지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당에 대한 신념의 송가가 뜨겁게 울려나 오고있으며 위대한 당과 수령을 모시여 위대해진 우리 인민에 대한 긍지높은 폐찬이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문학은 지난 5년간 수령형상문학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창작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큰 걸음을 내디디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조선의 힘》**, **《승리》**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푸른 하늘》**, **《동해천리》**등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기념비적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를 비롯하여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 등 수령형상 서사시, 장시 문학이 류례없이 발전하고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문학으로 더 가깝게 접근한 우리 문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며 주체문학운동사에서 특기할 사변이다.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전진은 작품의 인간학화수준이 더욱 높아진데서 찾아볼수 있다. 수령형상작품들은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창조할데 대한 주체적문제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인간학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데서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두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개방과 함께 절세의 위인들이 체험하는 심리정서세계를 다양한 생활에 굴절시켜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부각하고있다. 그리고 수령형상서사시의 양상을 새롭게 혁신하였다. 구성의 폭이 넓고 주체적대가 확고히 섰으며 시적환상이 높고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형상을 대담하게 창조한것 등 기념비적인 결작으로 창작된 서사시들의 사상에술적성과는 수령형상서사시문학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우리 문학은 또한 이 기간에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높이 들자 붉은 기》와 같은 국보적이며 기념비적인 수령송가의 본본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최대의 슬픔에 접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고 영생을 기원하는 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았다. 추모작품집 《영원한 태양》,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요》를 내놓았으며 수령님을 잃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며 신기한 자연현상을 펼친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기간에 우리 문학은 혁명영국들인 《승리의 기치따라》, 《소원》과 서사시 《불타는 태양》, 아동서사시 《홍하는 나라》를 비롯하여 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은 나라 꽃봉오리 영광드려요》를 비롯한 여러권의 수령형상작품집을 내놓았으며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주체문학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준 문예방침을 받들고 우리 문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를 장편소설로 옮겨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갔으며 불요불굴의 공

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모신 장편소설 《바람세찬 항구》와 희곡 《어머님의 념원》을 성과적으로 창작하여 혁명문학의 면모를 강화하였다.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은 우리 문학이 명실공히 위대한 령도자의 문학으로 확고히 일신되어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주체문학의 불멸의 대강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문학은 모든 형태와 형식에서 작품의 사상주제적지향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당의 의도와 요구에 더욱 가깝게 접근시켰다. 오늘 우리 문학에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 당정책이 곧 작품의 종자로, 내용으로 되고있으며 장군님의 의도와 당의 요구가 곧 작품의 문제성으로 되고 령도자로 키우고 내세워준 인민이 바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전형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환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준엄한 정세하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가 투철히 구현된 성과작이다.

중편소설 《뜨락또르운전수일가》 역시 농촌에서 사회주의집단정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가 하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확증하고 있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혀준 우리 시대 전형의 성격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원형의 문학으로 그 면모를 일신해나가고 있다.

장편소설 《붉은 흙》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혁명적절개를 지켜싸운 리룡진영웅을 원형으로 하고있으며 장편설화소설 《시대의 념원》은 위인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심을 가지고 김정일화를 탄생시킨 일본의 식물학자 가모 모도데루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장편소설 《백금산》, 《북부철길》, 《선행관》, 《기관사》, 《높은 목표》

등 이 기간에 창작된 현실주체의 모든 장중편형식의 작품들이 원형에 기초하고있으며 단편소설들도 실화적성격을 띠고 창작되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의 소행을 담은 실화문학작품집 《축복》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며 화선천리를 달려온 로병들의 실화를 묶은 실화집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우리 문학이 발전하고있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이 발표된 때로부터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 문학에서 이룩된 혁신적인 발전상은 문학의 형식이 다양하게 개척되고 형상수법이 다채로와진것이다.

문학의 대표적형태인 소설문학에서 실화소설, 풍자소설, 벽소설 등 그 형식이 다양해졌을뿐 아니라 형상수법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로 탐구이용되고있다. 특히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펼쳐진 인간세계를 반영하여 실화문학이 전례없이 발전하였다.

시문학부문에서도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 장시, 서정서사시 등이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왕성하게 창작되고있으며 담시, 교훈시, 풍경시, 풍자시 등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고있다. 특히 가사문학이 계속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아동문학부문에서 형식개척은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 미미하게 창작되고있던 아동문학이 다양한 형식으로 활기있게 창작되고 그 성과가 놀랄만치 이룩되고있으며 지능소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잡지 **《아동문학》**의 폐지를 펼칠 때면 새롭게 나타나는 형식들이 독자들을 기쁘게 해준다.

수필, 단상을 비롯한 문학소품들의 창작이 활발해지고 작가동맹적인 수필창작경연도 진행되었다.

실로 우리 문학은 지금까지 인류문학이 개척하여온 문학의 모든 기성형태를 리용하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는 형태들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다채롭게 장식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불패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는 생동한 사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이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문학 창작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것을 바라고계신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현시

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 생활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붉은 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는 시와 소설, 아동문학작품과 극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문학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이다. 작가들은 더욱 분발하여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는 명작을 창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제분야는 수령형상작품이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가르쳐주고있는바와 같이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과제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심장에 간직하고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을 형상하는데 사색과 탐구를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형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혁명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음을 생활적으로 보여줄수있는 가장 위력한 수단이 바로 문학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새로운 경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생애야말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생애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로고를 바치시고 순직하신 가장 고결한 혁명적생애라는것과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인류의 앞길에 영원한 광명으로 찬란히 빛난다는것을 더욱 감동깊이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과 온 겨레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같이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과 인민

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있고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은 최대의 지상의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길이다.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살아가고있으며 온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주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령도에서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오늘의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력사의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적사명감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형상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을 더욱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높이 추대되실것을 바라는 시대의 지향과 인류의 념원을 마다하지고 오직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성의 일념만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는데 모든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공산주의도덕을 지니시고 수령의 위업과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전무후무한분이다. 우리는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의 완벽한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형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으로 더욱 위대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더욱 존엄높은 **김일성**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사상이 관통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학작품들에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받음으로써 가장 긍지높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될수 있었다는 사상이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부각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붉은기철학, 《고난의행군》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태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하여야한다. 특히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잘 형상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명작창작강행군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실력전을 벌려야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으며 작가들이 언제나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창작전투를 벌리게 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며 창작적재능을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대한 민감성은 명작창작의 근본비결이다. 령도자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이것은 최근년간 기념비적명작으로 창작된 작품들의 실례가 말해준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학습을 창작실천의 선차적요구로 내세우고 깊이 학습하며 거기에서 시대적의의를 가지는 문제, 당과 인민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작품에 구현하여야 한다.

창작적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다. 재능이 없이는 문학창작으로 혁명에 이바지할수 없다. 작가들은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혀준 주체의 문예관, 미학관을 지침으로 하여 형상적대를 바로 세울줄 아는 형상능력을 키워야 하며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여 철확성이 있는 깊이있고 무게있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명작창작의 열쇠가 높은 예술적재능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분초를 아껴가며 자기의 창작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필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주체문학의 봉우리에 올라서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에 주체적문예사상의 휘황한 빛발이 빛나고있기에 우리 문학의 전망은 찬란하다.

우리 작가들은 세기의 교체가 일정에 오르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주체문학, 주체사실주의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는 시대적임무를 지니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아침 6시

리정택

내 출근길에 나서니
어둠을 걷어올리며 피어나는 노을
가슴에 환희를 불러주누나

새힘 솟는 이른아침
이런 시각이면
문득
버릇처럼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 몇시인가

아 위대한 우리 장군님
또 한밤 지새우시고
집무실을 나서실 시간이여라

-나의 퇴근시간은 아침 6시요!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잠도 휴식도 잊으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의 말씀
이 아침도 뜨겁게 울려와라

북변의 작은 산간마을
영예군인의 결혼식
분계선마을의 세쌍둥이
인민들의 밥상에 오를 식찬까지 넘려하시며
지새우고 또 지새우신
하많은 그밤

무너진 사회주의나라들
다시 재생의 길로 불러주시며
온갖 원썩들의 책동을 산산이 부셔버리시며
한밤에 나래친 사색
지구를 수십바퀴 돌으셨으리
력사의 몇세기를 헤아려보셨으리

내 나라 사회주의건설
전세계 자주화의 실현
절박하고 무거운 혁명의 중하가
한몸에 있어
수천밤 수만밤을
한밤같이 지새우시는 장군님

아침 6시!

우리 장군님 퇴근길에 오르시리
그 퇴근길에 이어
공장과 농촌
최전연초소를 찾으시며
현지지도의 길 이어가시니
그이의 출근시간은 언제이며
퇴근시간은 언제인가

사람들이여
시대의 엄숙한 속삭임을 들으시라
장군님의 건강은
우리의 행복이고 미래

우리 장군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일하고 휴식하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이의 출근길 걸음따라
우리 걸음 옮길수 있다면...

오리라 그날은
너와 나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있어라
억센 노력과 투쟁속에 있어라

내 나라 허리를 가로지른
콩크리트장벽 허물어지고
우리 인민들이 잘사는 그날
그날이 오면
우리의 장군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고
젊음은 세기에 빛나리니

그날에도
아, 그날에도
아침 6시
그이께서 우리와 같이
새날의 출근길에 오르실것인가

알길 없으랴
인민에 대한 사랑
세월을 두고 끝없는
그이는 그러한분이시기에...



서사시 《백두산》을 읊으시며

1972년 6월 4일밤,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밝게 비추주며 삼단같은 불길이 활활 타오른지 서른다섯해가 되는 바로 그 시각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압록강가의 패궁정마루를 거닐고계시었다.

패궁정벼랑가에는 강바람이 불어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봄외투자락을 날렸다. 6월이라고는 하지만 북방은 아직 차거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계절이었다. 밤기온이 령하로 떨어져 쌀쌀한 기운이 온몸을 으스스하게 해주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 넘려되어 이제는 숙소로 돌아가시자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발아래로 굽이쳐흐르는 압록강의 흐름만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패궁정에서 혜산시의 야경을 보는 감상이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은 혜산시가를 다시 둘러보았으나 별반 말씀드릴만한 인상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는 별로 볼것이 없다고 말씀올렸다.

《볼것이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시거나서 물론 혜산시가 아직 도시면모를 다 갖추지 못하여 웅장화려한 도시미는 없지만 그러나 이곳 야경을 류다른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저 압록강을 좀 보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시를 읊으시었다.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칠백리 압록강 푸른 물에

저녁해 비졌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에 와서 압록강

을 볼 때마다 조기천이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생각하곤한다고 하시며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참 좋은 시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방금전에 읊으시던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6장부분을 다시 읊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장의 앞부분을 한참 읊으시고나서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이번에는 서시의 뒤부분을 다시 읊으시었다.

쉬-위-

바위우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 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뻘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처부시련듯 톱을 들어

《따-웅》

그러곤 휘파람속에 감추인다

바위 호을로 솟아

이끼에 바람만 스치여도

호랑이는 그 바위에 서고있는듯

...

일군들은 시를 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이께서 것처럼 긴 시를 다 외우고계시는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서시를 끝까지 읊으시고 시가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은 정말 좋은 시라고 말씀드리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가렬한 싸움의 전호가에서 우리인민군전사들이 조기천의 시 《백두산》과 《조선은 싸운다》를 많이 읊은데 대하여 신이 나서 말씀드렸다.

전화의 그 나날을 회고하며 한 일군은 전쟁때에는 자기도 시구절을 많이 외웠드렸는데 이제는 잘 읊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감이 되는 좋은 시는 인차 외우게 되고 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읽어보느라면 조기천이 마치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시인 조기천은 체험하지 못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그토록 생동하고 진실하게 격조높이 노래했으며 전설적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험도 없는 시인 조기천이 항일무장투쟁이야기를 수령님을 중심에 놓고 레사로우면서도 형상적심도가 깊게 잘 썼다고 하시며 시의 제목을 《백두산》이라고 단것만도 나라앞에 쌓은 대공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기천이 어떻게 되어 오늘의 시인들도 써내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작품, 국보적가치가 있는 명작을 쓸수 있었겠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는 재능있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비결은 창작적기량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수령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숭배심이 낳은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탄복과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령장으로서의 천품과 미덕에 대한 인간적인 매혹이 절정에 달하고 그것이 시인의 심장을 짊어잡아 창작적열정이 불타게 하였기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시에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숭배심이 맥맥히 흐르고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시인 조기천은 민족관, 수령관이 선 참다운 혁명시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시인, 참으로 얼마나 값높은 칭호인가.

자기 수령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비상한 재능,

피타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값높은 영생의 삶을 받아안은 혁명시인! 조기천은 시인이기전에 충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혁명시인 조기천처럼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에서 맡겨준 초소에서 자기 몫을 찾아 자기 의무를 책임적으로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밤으로부터 2년이 지난 2월의 어느날 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혁명시인 조기천에 대하여 또다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기천은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의 호랑이로, 나의 랑심,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희망인 김대장이라고 묘사했다, 조기천은 민족의 긍지가 있고 자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 신념이 있는 인간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수령님을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데서는 모든 일군들이 김책이 되고 조기천이가 되여야 합니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걱정으로 차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대강을 펼치시는 력사의 그 시각에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령수로 충성다해 높이 모신 김책, 전설적위인으로 격조높이 칭송한 조기천, 바로 그런 충신, 그런 열정가가 되기를 바라시는것이였다.

무릇 정열이 없는 충신이란 있을수 없다. 뜨거운 열정과 충효가 함께 불타 때만이 참된 충신이 될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김책형의 일군, 조기천과 같은 인간이다.

《신로군일》(臣勞君逸)이 거꾸로 된 이야기

원산에서 고성쪽으로 얼마쯤 내려가면 만으로 둘러싸인 안침한곳에 자그마한 백사장이 있다.

이 백사장은 옛날부터 《신로군일》백사장이라고 불렸다. 즉 신하들이 수고를 하면 임금의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백사장이다.

그것은 지난날 금강산을 찾아왔던 왕들이 자주 여기서 휴식을 즐기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백사장을 《군로신일》백사장이라고 이름을 고쳐부르고있다.

왜 《군로신일》백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이런 흥미있는 전설이 있다.

백사장나루터에는 응삼이라는 배지기로인이 있었다.

그는 나루가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여기에서 살아오는 늙은이였다.

응삼로인이 살아온 지나간 긴 한생에서 마을을 떠나적은 두번밖에 없었다.

처음은 일제통치시기 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죽음의 고역을 치르다가 우리 나라가 광복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한 해반이라는 기간이였고 그다음은 미제가 일으킨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나가 싸운 3년이라는 기간이였다.

응삼로인은 이 두번을 내놓고는 일생동안 고향마을을 떠나본적이 없었다.

그만큼 그는 자기 고향을 사랑했고 제가 사는 고장보다 더 살기 좋은곳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고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설음많은 그 시절, 망국노의 쓰라린 눈물을 삼키며 사자밥을 지고 풍랑사나운 바다에 나가 선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고기를 잡을 때도 그는 한번도 제 고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어 바다의 주인이 된 그는 새 민주조국 건설에 헌신분투하였다.

전후에도 파괴된 선창과 마사진 배를 수리복구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고향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였다.

해뜨는 바다에선 고기를 퍼올리고 달이 지는 뒤동산에선 능금을 따고 바다기슭에 펼쳐진 그리 크지 않는 벌에선 오곡을 가꾸니 말그대로 무릉도원이요, 그림속의 선경이였다.

신선이 산다는 천상세계인들 이보다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으랴.

그는 늘 이런 궁지를 가슴속깊이 지니고 살았다.

천하명승 금강산이 지척이니 응삼로인의 궁지가 과한것은 아니였다.

여기도 실은 금강산의 한자드락인것이다.

마을뒤에 있는 산을 하나만 넘어서도 티끌하나 없는 수려한 산봉우리들과 바위우에 바위가 올라서고 그우에 몇백년 자란 로송이 가지를 드리운 절묘한 풍치가 눈을 주는곳마다에 안겨온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위너설에 부딪치며 부대끼며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바다로 용용히 줄달음치고있다.

응삼로인은 소급시절에 힘꼴이나 쓰는 이름난 장사는 아니였으나 명절날이면 씨름판에 나서서 가끔 무명필꼴이나 타군하였다.

그런데 그런 힘이 환갑을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마을젊은이들을 무안하게 만들 때가 많았다.

그래도 먹은 나이는 어찌지 못하는지 자기 생각과는 달리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응삼로인은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고기잡이배에서 내려 이제는 여기 나루터의 배지기가 된것이였다.

배지기라는 한가한 자리에 돌아왔은 다음에도 그는 조금도 쉬는 잠이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우선 백사장을 알뜰하게 꾸려서 여름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지나칠수 없게 만들었다.

아니 이즈음에 와선 여름만이 아니라 봄, 가을, 겨울 일년내내 사람이 그치지 않았다.

해수욕을 하러 오는 사람들뿐만아니라 평양과 원산에서 그림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군하였다.

얼마전에는 나라에서 이름있는 화가 한사람이 찾아와서 며칠이나 묵으며 백사장나루터를 그려갔는데 그 그림이 미술전람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응삼로인은 이 모든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무등 기뻐다.

조금도 피곤한줄을 몰랐고 온몸에서 힘이 솟구쳤다.

사람들은 응삼로인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정정한것은 금강산의 정기가 깃든 산삼으로 몸을 보양한탓이라고 하지만 그런것만은 아니였다.

물론 금강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 령약을 캐고

가꾸면서 그 약을 복용한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온몸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 일하고난뒤에 느끼는 로동의 희열이 아마 그를 더 젊게 하였을것이다.

응삼로인은 하루도 번지지 않고 백사장나루터를 알뜰히 거두고 꾸리었다.

하다못해 백사장에 해당화 한포기라도 떠올기 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였다.

그러던 어느날 응삼로인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생겼다.

대학을 졸업한 막내아들녀석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글썽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만나배웠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사라구야. 응삼로인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정말 꿈만같은 일이었다.

뭔가 굉장한것을 연구해서 석사가 된 아들을 경애하는 그이께서 직접 부르신것이였다.

《그분께 제대로 인사나 드렸는지?》

막동이라 응석반이로 키워 그런지 괜히 마음을 쓰게 했다.

막내가 편지에 쓰기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이름을 물으시고 나이와 살아온 경력을 자세히 료해하신 다음 현재도 나이가 많으나 계속 일손을 놓지 않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아버지를 훌륭한 애국자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이 촌백성의 이름까지 물어주시다니? 나를 애국자라고!...》

돈보기를 낀 로인의 눈에선 불을 타고 두줄기의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눈물을 닦을념을 하지 않았다.

마누라도 저고리고름을 눈에 가져다댔다.

그때부터 로인은 더 극성스럽게 일을 했다.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름없는 백성에게 이렇듯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는데 아무리 무지한 촌백성인들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그는 하해같은 은덕에 만분의 하나도 보답치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했다.

어느날 로인은 마을뒤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약초밭을 가꾸고 돌아왔다.

그날저녁 밥상을 물린 그는 텔레비존을 보다가 보도시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느 큰 회의를 지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자 옷깃을 여미고 화면앞에 마주앉았다.

《아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저렇게도 수척해지시다니...》

로인은 가슴이 왈각 무너지는것 같았다.

(나라일에 얼마나 바쁘시면 저렇게도 수척해지

셨을가.)

그날밤 로인은 온밤 잠들지 못했다.

백성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여 잠들수가 없었다.

잠자리에서 이리 궁싯 저리 궁싯 몸을 뒤채기던 그는 푸름푸름 창박이 밝아오자 불을 켜고 일어나앉았다.

금강산 깊은 골안에다 약초밭을 일군것이 참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금강산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약초를 가꾸고 자래우면 틀림없이 세상에 없는 가장 진귀한 명약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함께 로인은 섭섭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몸가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들에 대한 섭섭함이었다.

그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더 잘 받들어모시었으면 그렇게까지야 되었으랴.

그는 두리반을 퍼놓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로인은 편지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무엇때문에 그처럼 수척해지셨는가고 물으면서 수척해지신 그이의 모습을 텔레비존화면에서 보니 가슴아픔을 참을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 무엇을 심려하고 계시는지 우리 당원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풀어드리겠노라고 절절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다.

정히 쓴 편지를 체신소에 가서 부치고나니 한결 마음이 좀 놓이는것 같았다.

그날부터 로인은 더 정성스럽게 약초밭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약초밭을 가꾸던 응삼로인은 설참에 발머리에 누웠다가 만산에 흐드러지게 핀 꽃향기에 취해 그만 잠이 들었다.

그는 곧 꿈을 꾸었다.

꿈에 금빛뿔을 머리우에 한아름 인 사슴이 구름을 타고 파란 하늘에서 날아내려왔다.

응삼로인앞에 내린 사슴은 할아버지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로인장은 무엇때문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약초밭을 가꾸고있습니까?》

응삼로인은 일구월심 생각하던바를 그대로 털어놓았다.

《옛날부터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늘에 해가 있어 산천초목이 수려하듯이 나라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로 평생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백성된 도리를 지키지 못하니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소그려. 그래서 그 은

덕에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고싶은 마음으로 이 약초밭을 가꾸는것ियो.》

응삼로인의 말을 다 듣고난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빛뿔을 흔들었다. 그러자 난데없이 파랑새 한마리가 포르릉 날아와 사슴의 머리우에 내려앉았다.

《이 파랑새를 따라가면 로인장의 소원이 이루어질것입니다.》

말을 마친 사슴은 뽕얇게 안개를 일으키며 어디론가 사라지고말았다.

사슴을 찾다가 깨여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파랑새가 눈앞에서 날고있었다.

파랑새는 응삼로인의 머리우를 날아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듯 앞서서 날았다.

응삼로인은 저도 모르게 파랑새의 뒤를 따라갔다.

한참 걸어가니 절묘한 경치가 눈앞에 안겨왔다. 명주필을 드리운듯 두줄기 폭포가 쏟아져내리는데 안개가 자오록이 피여 오르고있었다.

바위우를 지나는 물은 수만구슬이 흘러내리는듯하였고 랑옆으로 뻗은 수려한 산천초목들에는 푸른 정기가 흘러넘치고있었다.

응삼로인은 경치에 취해 어정쩡해 서있다가 파랑새 생각이 나서 다시 걸음을 옮기였다. 파랑새는 이상한 정기가 흘러넘치는 바위우에 사뿐 내려앉았다. 그 바위 아래쪽을 바라보던 응삼로인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주먹만큼한 빨간 달을 쫓다낸 몇백년 묵은 산삼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이건 보통 산삼이 아니구나. 하늘이 날 도와준게 분명하구나. 이 산삼을 정성껏 키웠다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려야겠다.)

응삼로인은 산삼주위를 있는 정성을 다 고여 깨끗이 거두었다.

다음날부터 응삼로인은 날마다 산삼을 가꾸러 올라가군하였다.

며칠후 산삼을 돌아보고 마을로 내려온 그는 뜻밖에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나부터 백사장에 나와계신다는것이였다.

《아니 그이께서?...》

그는 믿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어정쩡해 서있던 로인은 정신이 펴쩍 들었다.

그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실뿌리 하나 다칠세라 정성을 다해 조심조심 흙을 파헤쳤다. 다 캐고보니 팔뚝같이 크고 싹하였다.

로인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는 푸른 바위이끼에 산삼을 정히 싸안고 나무터로 날라

갔다.

땀에 젖어 황황히 달려온 로인은 그만 걸음을 툭 멈추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즐겁게 해수욕을 하는 수원들만 보였던것이다.

하늘에서는 6월의 태양이 작열하고 모래불에서는 더운 열기가 확확 풍겨올랐다.

그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흰모래불우에서 뒹굴다가는 다시 바다물에 뛰어들어갔다.

한쪽에서 씨름이 한창이고 다른쪽에서는 수영이 한창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오셨다는게 헛소문이 아닐가? 하긴 바쁘신 그이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다.

맥이 풀린 로인은 스택스적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는 바다가로 다가갔다.

해수욕을 하던 한사람이 로인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는가고 물었다.

《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오셨다고에...》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저쪽 외진곳을 한동안 경건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로인에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계십니다.》 하고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로인이 놀라운 눈길로 그쪽을 자세히 눈여겨보니 자그마한 해가림양산밑에서 웬분이 무슨 책갈은것을 열중해 보고계시였다.

《아니 저분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란 말입니까?... 아니 그럼??》

로인은 여전히 놀라운 눈길로 일군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길에는 책망의 빛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로인님,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니, 내 이거 촌늬은이가 객적은 소릴 한다고 하겠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동무들은 놀구 경애하는 그이께서만 일을 하시게 해드려야되겠수?》

로인은 몇해전에 텔레비죤에서 수척해지신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뵈온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로인은 한 일군이 보낸 사과의 편지를 받고야 직성이 풀렸었다.

그는 숨소리가 높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격해졌다.

그 일군은 노여워하는 로인에게 자기들도 어쩔수 없어 그렇게 하였노라고 하면서 변명하듯 이런 사연을 이야기했다.

금강산일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배편

으로 원산쪽을 향해오시던 도중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별나게 경치가 아름답고 알뜰하게 꾸린 백사장을 보시자 그곳 나무터에 배를 정박시키라고 하시었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동안 피로가 겹쌓이신 그이께서 이 좋은 휴식날에 일광욕이라도 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던터이라 일군들은 성수가 나서 그이를 모시고 백사장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문건트렁크를 두 개씩이나 들고 나오시더니 해가림양산밑에 자리 잡고 앉으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이 웬일인가싶어 엉거주춤하고 서있자 그이께서는 《날씨가 참 좋구만. 암. 좋은 날을 그냥 보내서야 되겠소. 나는 아무래도 문건을 처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백사장을 아주 잘 꾸렸는데 동무들은 여기서 일광욕을 하시오. 자주 피부를 태워서 몸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건강해야 혁명사업도 잘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문건들을 펼치기 시작하시었다.

일군들이 그이께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옆에서 해바라기를 하라 하고 주춤거리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왜 그러구들 있소? 오늘 일광욕을 하는것도 동무들의 일과입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일광욕을 하시오.》하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일과》라고 하시는 말씀에 더는 어쩔수 없었다.

그들은 그이께서 문건을 보시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만큼 먼발치에서 해수욕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건을 보시는 족족 해당 일군들을 부르시여 과업을 주군하시였으며 그때마다 일군들이 천진란만하게 노는것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군하시었다.

이야기를 듣고난 로인은 눈시울을 습벅이며 그이쪽을 경건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갈린 목소리로 《임금이 여기에 와서 휴식을 하였다고 하여 예로부터 <신로군일>백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진정 그 반대로일세!》라고 말하였다.

옛날에 신하들이 수고하면 나라님이 편안하다고해서 《신로군일》이라는 말도 생겨났지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따가운 폭양밑에서 사업을 하시고 전사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뛰놀고있으니 이거야말로 그 반대가 아니냐는 뜻이였다.

이때 문건을 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그 누군가를 찾으시다가 응삼로인을 보시자 몸을 일으켜 그를 향해 걸어오시었다.

로인은 황급히 마주 달려가 그이께 정중히 인

사를 드렸다.

일군에게서 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신 그이께서는 반가와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었다.

《그럼 나무터 백사장을 이렇게 훌륭하게 꾸린 응삼로인이 아니십니까?》

《예?!》

로인은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질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아들을 만나주신것은 오래 전일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언젠가 로인님의 아들을 만났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로인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군당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정말 기쁩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소탈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응삼로인의 귀엔 웅웅 소리만 울릴뿐 그이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한참만에 응삼로인은 정히 안고온 산삼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드리며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이 산삼을 받아주십시오.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 백성들의 소원이고 행복이옵니다.》

《로인님, 이리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젊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산삼은 로인님이 쓰십시오.》

그이께서는 응삼로인이 올리는 산삼을 받지 않으시었다.

《장군님! 이 늙은이의 간절한 소원이니 이것만은 받아주십시오.》

응삼로인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리었다.

몇번이나 거듭 사양하시던 그이께서는 로인의 진정을 차마 더는 물리칠수 없으시였는지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럼 로인님, 로인님의 지성이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이께 산삼을 드린 응삼로인의 마음은 무등기뻔다. 백성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지킨것 같았다.

그후 응삼로인은 늘 이때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들리셨던 백사장을 더 잘 꾸리었다.

그러던 어느날 응삼로인은 가벼운 병으로 뜻하지 않게 도에 있는 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별치 않은 병인데 부산을 피우며 자기를 도병원에게까지 입원시킨 군일군들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며칠후 또 군의 책임일군이 병원으로 응삼로인을 찾아왔다.

(바쁜 어른이 왜 또 이 늙은이를 찾아왔노?)
로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심드렁히 그를 맞았다.

일군은 응삼로인앞에 정성껏 포장한 함을 내놓으며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보약재입니다.》

응삼로인은 갑자기 눈을 휘둥글하게 떴다.

함안에는 산삼 한뿌리와 록용이 들어있었는데 산삼은 분명 자기가 그이께 드린것이 아닌가. 응삼로인은 목이 꼭 메여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얼마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사장을 우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응삼로인이 입

원치료를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이 많은 로인에겐 산삼과 록용을 다 같이 쓰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약재를 보내주셨습니다.》

일군의 말을 듣고 가슴을 들먹거리던 로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쭈루룩 흘러내렸다.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우리 백성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신로군일》이 거꾸로 되었다. 우리 나라는 《신로군일》이 거꾸로 된 나라이다.

그때부터 이 백사장을 《군로신일》백사장, 즉 나라님이 수고하고 신하들은 편안하게 휴식하는 백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구월산

최혁

꽃이 피고
단풍에 물들며
유구한 세월
산세의 수려함 지녔다지만
부러웠더라 백두산이
천하명산 금강산이

말발굽소리
활시위소리
력사의 풍운에 이끼었으며
전설도 지녔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그 자욱 아니었다면
그 어이 명산으로
오늘처럼 머리 높이 들수 있었으랴

우리 장군님
만년대계의 명산으로 꾸리시여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게 하시려고
너의 산마루에 오르시여
사랑의 설계도 펼치시었으니

《고난의 행군》길 아무리 험난하고
몰아치는 폭풍 아무리 사나워도
그이 펼치시는 래일은 아름다워라
승리할 내 조국은 번영하리라

그 사랑 안으시고
찍으시는 자욱마다 향기는 넘쳐
산새들은 지저귀며 기쁨을 노래하고
수림도 키쫓구며 설레었나니
아 구월산!
이 강산의 천만산악이 키를 쫓구며
부러움에 바라본 산아

너 말하라
크나큰 이 행운 어디서 왔느냐
네 모습 아름다워 찾아온것이냐
네 력사 유구하여 찾아온것이냐

구월산
구월산
드넓은 대지우에 산자락을 펼치고
백두의 지맥을 이어 거연히 솟아
새롭게 머리쳐든
조선의 명산!

아 행복한 조국을 꽃피우시는
장군님의 품속에 네 솟았기에
명산으로 그 영광 지녔거니
위대한 사랑의 그 빛발 안아
명산이 아닌 산 이 땅에 없으랴

백두산으로

최서인

하얀 뱀스들은 밀림의 푸른 바다를 누비며 기세 좋게 달리였다. 들쭉날쭉한 구릉지대를 꿰며 잘 포장된 길이 끝모르게 뻗어갔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였다.

삼지연을 떠날 때에는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답사각의 뽕죽지붕들이 온통 재빛안개속에 묻히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더랬는데 어느새 안개는 걷히였다. 이따금 먼 숲우에 안개덩어리가 떠있을뿐이였다. 날씨는 좋다. 쾌청의 징조였다. 개인날의 천지를 볼수 있다는 기대로 모두들 기분이 좋은것 같다. 하긴 백두산에 왔다가 천지를 못보고간다면 얼마나 서운한 노릇이라.

뱀스가 방금 구름우를 올라서는데 누군가 《백두산이다!》 하고 소리쳤다. 삼시에 뱀스안이 활기를 띠며 흥성이였다. 바로 어제낮에 삼지연역 사앞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몰랐더랬는데 백두산은 허영계 눈이 덮인것이였다. 밤사이에 백두산에 눈이 내린것이다. 신비의 웅자로 솟아올라 만리창공에 백발을 날리고있는 백두산을 보니 벌써부터 승엄해진다. 그런데 자연은 금시 활력의 계절에 접어들고있지 않는가. 길좌우편으로 끝없이 펼쳐진 수림속에는 록음이 짙어가는데 먹음직스럽게 자라오른 무수해며 병풍, 청취, 고사리같은 산나물들도 눈에 띄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부대의 길량식으로 행군길에서 부지런히 뜯군했을 백두산의 산나물들이어서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것이였다.

가도가도 끝없는 수림의 바다! 백두고원의 풍치는 참으로 이채롭다. 오랜 세월 사나운 폭풍과 강추위를 이겨내며 아릅드리 거목으로 자라오른 이팔나무며 분비나무, 전나무들이 천고의 밀림을 이루었는가 하면 하얀 봉나무숲이 나타나 신비경을 펼치기도 했다.

백두산! 온 나라에 지맥을 뻗친 조종의 산 백두산은 예로부터 누구나 한번 오르고싶어한 희망의 봉우리였다. 하면서도 빙설천지의 아득한 수림과 때없이 폭풍우를 일쿠며 번개와 우뢰를 불러오는 엄혹한 자연으로 하여 선뜻 오를 결심을 내디지 못하고 신비와 동경속에 그려보기만 하던 산이였다. 하물며 꽃피는 봄날의 루정이나 바다가 사장이며 명산을 찾아 5연절구 기행이나 몇조각 남기고는 온 나라를 다 보았노라고 일컬은 풍류객쯤해서야 어찌 백두의 사나운 성미가 두렵지 않았으랴.

백두산은 결코 호락호락한 성미가 아니어서 애국충정의 피가 뜨겁지 못하고 용감성이 부족한 심장들앞에는 길을 내여주지 않았다. 어찌다 뜻있는 명사호걸들이 결심품고 수수만년 인적없던

광활한 원시림을 헤쳐넘어 구름우에 솟아 위엄떨치는 백두산에 오르기도 했다. 그들은 때없이 번개와 우뢰를 부르며 포효하는 백두에 올라 아득히 물결쳐간 이 나라의 국토를 바라보며 흥금을 넓히였고 조국력사의 새 아침을 기원했다.

백두산은 그 탄생의 의미조차도 심상치 않다. 유사이전의 아득한 옛날, 지구가 생겨나 아직은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던 그때 지각의 거대한 변동이 있었다. 그 시기에 거대한 불산작용이 있었다. 지심깊이에서 용암과 함께 터져오른 무시무시한 핑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갓 태어난 행성의 잠을 깨우며 생명의 력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다. 무한대의 하늘을 뒤덮으며 화산재가 솟구쳐오르고 주변천리에 불돌이 날리였다. 지금도 백두산 주변의 그 어디에서나 단애진곳을 보면 그때 내려쬄인 부석이 두껍게 층을 이루고있다. 세월은 아득히 흘러 부석의 대지우에는 나무와 풀들이 뿌리내리고 울울창창한 수해를 이루어놓았다. 나무들은 자랐다가 쓰러져 진대가 되고 그우에는 또 나무들이 자라고...

자연은 오랜 순환과정을 거쳐왔다. 용암이 미증유의 힘으로 솟구쳐오르고 불재를 날리던 분화구는 억년 마를줄 모르는 천연호수로 되였다. 이렇듯 신비속에 조종의 산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백두산은 천상의 구름을 휘여잡아 비를 뿌리어 대지우에 생명수를 주기도 하면서 자애와 영광을 떨쳐왔다.

하지만 백두산이 세계만방에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된것은 이 땅우에 주체의 새 시대가 밝아온 그때부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조국광복의 해를 올린 영광의 땅이며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우리 민족과 인민앞에 새 력사의 려명을 밝혀주신 혁명의 성지입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이 망국삼천리에 퍼져 온 강토가 우국지사들의 순국의 피로 랑자하던 그 치욕의 해를 지나 태양없는 하늘에 검은 구름장만이 갈수록 두터워지지만 하던 력사의 수난기에 백두산은 오래동안 기다려오던 자기의 위대한 아들을 맞이하였다. 만고의 평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 백두밀림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대전의 총성을 올리신것이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 되였다. 하여 지난 세월 뜻있는 사람들이 호랑이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수림의 망망대해를 지나 구름우의 령봉에 올라 막연한 기대에 가슴울렁이며 애국의 기개를 간직하던 백두산은 오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려 붉은기를 날리며 찾아오는 수많은 아들딸들을 두팔벌려 맞이하고있는것이다.

포장도로로 끝없이 이어진 붉은기 날리는 대오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 이 길은 4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길은 원시림속에 묻혀있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혁명의 역년재부인 혁명전동의 뿌리를 말살하려고 원수들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던 시기였다. 그들은 백두산으로 가는 이 길이 영원히 묻혀버리기를 바랐던것이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젊으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학생답사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의 길에 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밀림의 길없는 길을 헤쳐가시며 이 땅의 어디에나 깃들어있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을 답사대원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시었다. 바로 그이께서 그 나날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백두에로의 길이 열린것이였다. 하거니 아득히 열린 대로를 따라 백두산으로 가는 우리들의 마음 어찌 뜨겁지 않겠는가!

애국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는 땅이여서 나무 한대, 풀 한포기마저도 깊은 생각을 자아내는데 빠스는 어느새 무두봉등판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풍경은 새로워졌다. 기암판계로 나무들은 키가 자라지 못하고 길게 퍼져간 가지들은 그 끝이 아래로 드리워졌다. 그나마도 성글게 자랐는데 사나운 바람에 뿌리채 뽑히여 나딩군 이깔나무들이 수없이 눈에 띄었다. 여기는 평퍼짐한 지대들도 해발고가 2천메타이상을 헤아린다. 자연은 엄혹하다. 한여름에도 녹을줄 모르는 얼음과 눈이 음달진 계곡마다 비게처럼 깔려있는데 우에는 먼지가 앉았다. 백두산이 가까와올수록 이깔숲은 점점 성글어지고 풀 한포기, 나무 한대 없는 부석의 땅이 나졌다. 부석들이 바람에 날려 물결형을 이룬 그것을 보고서도 이곳의 엄혹한 자연을 느낄수 있었다. 그래도 양지에는 만병초가 한벌 덮여 만첩으로 꽃을 피웠다.

무두봉등판에서 길은 갈라졌다. 기본도로는 백두산으로 곧장 이어져있고 갈림길은 무두봉밀영과 아근의 소연지봉밀영, 간백산밀영 등 밀영지구로 가는 길이였다. 이 일대는 어디에나 혁명선렬들의 성스러운 자욱이 새겨져있었다.

빠스가 한참 등판을 지나는데 돌연 폭풍이 불어쳤다. 구름은 어디에서 언제 떠왔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주먹같은 부석덩어리들이 뿔뿔 나리고 숲이 태질했다. 백년은 넘어 자랐을 아름드리 이깔나무가 가까이에서 와지끈거리며 중등이가 부러져나갔다. 번개의 거대한 장검이 먹장구름을 갈가리 찢으며 내려쬐히고 우뢰소리가 터졌다. 금시 가슴들이 조막만해지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백두산이 노호하는것이였다. 사

위는 삼시에 캄캄해졌다. 지척을 분간할수 없게 내리던 대줄기같은 비는 주먹같은 우박으로 변했다. 천태만변의 장관에 우리는 그만 아연해졌다.

하지만 천지구경을 못갈것 같던 우리들의 은근한 우려는 공연한것이였다. 폭우는 몇분 안걸려 멀리로 밀려가고 머리위에 파아란 하늘이 열리었다.

폭우가 밀려가자 백두산의 웅자는 청신해진 대기로 하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백두교를 지나 답사자들을 태워갈 지상케도식삭도차가 보이고 간밤에 내린 흰눈을 떠이고 우렛이 솟아오른 향도봉이며 장군봉이 가까이에 보이였다. 향도봉의 천연암벽에 새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체가 우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숭엄하게 정화시켜주는 불멸의 글밭이였다.

혁명의 성산! 나는 이 위대한 성산의 령봉을 향해 올랐다.

나의 앞에는 천리수해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서늘한 바람이 목깃을 스친다. 태양은 가까이에서 뜨겁게 불타고있다. 우리는 태양가까이에 서있는것이다. 모든것은 우리들의 발아래에 있다.

침침히 뻗어간 산발들도 그리고 그우에 떠있는 구름도 모두 우리들의 발밑에 있다.

아직도 두터운 얼음이 기슭으로 지나간 천지의 파아란 물이 내려다보이였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백두의 메부리들이 최고 길이 3,840메타를 헤아린다는 천지의 하늘빛 호심에 비끼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신비롭고 장엄하며 아름다운 경치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6월의 흰눈을 떠인 기암괴석의 봉우리들이며 천지의 색조화를 아무리 재능있는 미술가도 다 살려내지는 못할것이다. 글을 쓰는 나 역시 천지의 물빛을 하늘빛에도 비교해보고 비취색이니 푸른색이니 박색이니 하는데 비교해보았으나 도무지 적중치 않았다. 그 천지의 물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답사자들이 유람삭도를 타고 내려가고있었다. 백두산에 올라 천지까지 내려가보고싶어하는 답사자들을 위하여 몇해전에 최상의 설비를 갖춘 유람삭도가 놓아진것이다.

나는 백두산마루에 세운 사적비부터 찾았다. 화강암에 새겨진 헌시는 여기 혁명의 성산과 더불어 영원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하고있었다.

이 나라 혁명의 뿌리 깊이 내리고
우리 당의 뿌리 소중히 간직한
백두산, 백두산 조종의 산이여!
천지의 맑은 물로 충검을 갈아
강대한 두 제국주의 한칼에 쓸어눕히고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높이 일떠세워
그 이름 온 세상에 떨쳐주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구백륙십삼년 팔월 십일
여기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시었다

...

나는 사적비에 새겨진 한자한자를 다시금 가슴
속에 새겨보며 머리를 들어 멀리를 바라보았다.

운무에 잠긴 아득한 수해너머 안도가 보인다.
그 옆으로 내도산과 마안산이 보인다. 거기에서
서북쪽으로 더 가면 동강이라고 한다. 우리 혁명
이 겹쌓이는 시련을 이겨내며 지나온 력사의 고
장들이다. 나는 조국땅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지
척에 있는 소연지봉과 대연지봉, 대각봉이 보이
고 소백산과 선오산, 간백산이 그리고 삼지연지
구가 안겨온다. 오른쪽으로 유표하게 안겨오는
사자봉너머에는 조선혁명의 미래가 동터온 백두
밀영이 있다고 한다. 백두산에서 40리라고 하니
퍼그나 지척이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항일의
선렬들의 자취가 어려있는 력사의 고장들이다.
그리하여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에도 《장백산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여 여기 백두산에 오르면 누구나
혁명선렬들의 정신을 가슴속에 되새기게 되며 조
국애로 심장을 불태우게 되는것이다. 저기 남녘
에서 온 통일의 사절들과 멀리 해외에서 온 동포
들도 백두산에 올라 새로운 투쟁결의를 다지며
신심을 가다듬는것이다. 백두가 있어 조국의 존
엄은 빛나고 내 나라는 위대하다.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가까이에서 누군가 격
정에 넘쳐 시를 읊었다. 돌아다보니 나와 함께
온 젊은 시인이 《백두산의 아들》이란 자작시를
읊고있었다. 열정으로 불타는 시인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시였다. 하긴 백두산에 오른 시인의
심장이 어찌 불타오르지 않으랴.

나는 뜨거운 생각을 안고 백두산을 내리었다.
길은 아득히 열려져있다.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길은 어디로나 이어져있다. 나는 이제 이 길을
따라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말리크 수마

김일성

당신은 영생하신다
주체사상이 영생불멸하듯이
당신은 영생하신다

김일성

당신은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아버지
그들이 경애하는 아버지의 존함을
소리높이 부르기에
당신은 영생하신다

김일성

당신은 조선해방의 구세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위대한 영웅

김일성

당신은 위대한 사상과
거대한 위업의 실현자
당신의 위업은 조선의 력사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영생불멸하리라

당신은 영생하신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따르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노라

김일성

당신은 사회주의와
진보적인 세계의 위인중의 위인
당신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준 비범한 천재

김일성

당신은 조국통일의 구세주
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남조선통치배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리

(필자는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사무원임)



명작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어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용맹과 기개가 시와 노래로 되어 이 땅에 메아리친다.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래일을 확신하며 또 한해 오늘의 진군길에 나선 인민이 부르는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

그 한편한편의 시와 노래는 그대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시대의 웨침이 되어 울려 퍼진다.

우리 작가들이 써내는 시와 소설, 가사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가려는 인민의 철석같은 맹세가 담겨져 시대의 명작으로 불리우고 있다.

전에 없던 기풍으로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는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만산을 헤쳐가는 인민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들끓는 현실에서 창작의 붓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문학예술작품들이 거두고있는 사상예술적성과들과 작가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양양된 창작열의를 대할 때마다 오늘의 이 현실을 마련해주시려 심혈을 기울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로고를 되새기게 되는 우리들이다.

당과 호흡을 같이하는 작가, 인민의 작가가 되도록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작가, 예술인들이 왕성한 창작적열정으로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도록 얼마나 마음쓰시었던가.

우리는 못잊을 그날의 감회에 또다시 잠기게 된다.

감격에 넘쳤던 지난해 4월 26일.

우리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창작활동에서 보다 큰 전변의 계기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았다.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작품의 인식교양적의의와 그가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헤아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에 맞게 문학예술분야에서 다시한번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도록 창작가, 예술인들을 불러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

을 짓부시며 추호의 동요와 비판을 모르고 끄떡없이 나아가는 내 나라의 기상과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선 인민의 슬기를 자랑스럽게 펼치실 원대한 뜻을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신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발악적공세에 당당히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나가며 성스러운 투쟁을 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인민의 이 의지와 지향이 시대의 노래로 울려 퍼질 때 인민의 힘과 열정은 더욱 솟구쳐오를 것이며 내 조국엔 승리의 함성이 넘쳐나게 될것이다.

바로 이것을 문학예술부문이 맡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에서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담화에서 정세의 요구와 혁명임무에 맞게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 많은 명작을 창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명작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명작에 대한 심오한 사상이 담겨진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었다.

명작은 명실공히 시대와 인민의 감정정서가 비끼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자각케 하는 작품인것이다.

명작에 대한 그이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갈수록 작가들은 오늘날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인민이 기다리는 문학예술작품이 과연 어떤 주체의 작품들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창작가, 예술인들은 정세의 요구,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는 시와 소설, 영화와 미술작품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작가, 예술인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라관을 안겨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이라고 창작방향을 명시해주시었다.

또한 당이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그 방도까지 제시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실력전을 벌리는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현실적요구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명작을 많이 내놓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문학예술을 흥성거리게 하는것이라고 명작풍년이 마련될 창작마당도 그려보게 해주시었다.

실력전을 벌려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재능을 높일데 대한 문제, 중요하게 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을 키우며 수령의 미학관과 문예관을 토대로 창작적사색을 진행할데 대하여서와 그러기위하여 현실체험을 잘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창작기관들사이에 창작경연을 활발히 벌리도록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명작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었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담화는 문학예술전반이 변함없이 시대의 선도자, 대변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그 길을 제시해준 강령적문헌이며 명작들로 차넘치는 풍년마당으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하여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창작사업은 다시금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창작기관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가슴가슴은 명작창작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철

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작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찬양하고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걸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전투가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창작적흐름으로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과 의지를 담은 수많은 시가작품들과 소설작품 창작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년초부터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고 최전연고지의 산밭들을 누벼가시며 인민군전사들을 찾으시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인민이安居할 행복의 락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후세에 전하고싶은 작가들의 심정은 불길처럼 타번져 그이를 칭송한 문학작품들이 련이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가요 《장군님은 전조선에 계시네》, 《철령아 전해다오》와 같은 작품들이 인민의 마음을 담아 태어났고 가요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며라》, 《울려가라 행복넘친 병사의 노래》, 시 《10월의 붉은기아래서》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이 나라 인민의 공지와 자랑을 담은 시와 노래들이 수없이 창작되었다.

소설문학분야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힘찬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작품창작으로 활기를 띠고 영화, 음악,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전반이 명작창작으로 들끓고있다.

자신의 실력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가하며 시간을 아껴가는것이 우리 작가들의 생활기풍, 사업기풍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우리는 확신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손길아래 우리의 문학예술은 앞으로 보다 풍만한 명작들로 더 큰 전성기에 있을것임을...

실로 우리 작가들에게 명작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문학예술의 대풍작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문학예술의 부흥발전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또하나의 위대한 서사시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빛나는 미소여

아이자이아 파오 모리슨

주체의 위대한 태양
주체의 위대한 아들
김정일원수이시여
당신의 빛나는 미소
이른아침 해빛처럼
어둠을 가시여주시고
온갖 슬픔 몰아내여주시네

김정일원수이시여
휘날어진 풀잎과 꽃잎들에 달린
수정같은 물방울처럼 맑은 정
따사로운 동지애
탁월한 령도와 고무로
실망에 잠긴 우리를 구원해주시네
당신의 위대한 사랑
피로운 우리의 마음 달래여주시네

그렇다
재생의 해빛같고
붉게 타는 노을같이
당신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기치따라
당신께서 펼치시는 붉은기정신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영원히 우리는 가리라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령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
태양의 품속에서 아침이 빛나듯이
우리는 당신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영생하리라

당신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녹여주시고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 앞길 밝혀주시네
이 행복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신께 충성다하리라
천세만세 당신만을 따르리라
당신의 령도를 받들리라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향도성
진정 우리의 구성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도 우리 오르고
승리샘
천지물도 마시며
고향집의 아들로 자라리라
영원히 빛나는 미소여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

(필자는 가나시인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그 사랑을 못잊어

새해가 왔다.

위대한 령장의 령도밑에 날과 달을 빛나는 승리와 위훈으로 수놓아온 추억깊은 한해를 몇몇한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며 희망에 넘쳐 이땅우에 동터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이 달려오는 여기 만수대언덕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꽃물결이 끝없이 끝없이 흐른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지극한 정성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싱싱한 향기를 풍긴다.

어둠을 가르는 화광속에 꽃바구니들마다에 드리운 붉은 댕기의 금빛글발이 빛을 뿌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송엄한 마음을 안고 한없는 그리움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각계각층 사람들속에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부모의 손을 잡고 대원수님의 동상에 허리굽혀 인사드리는 애어린 유치원어린이들, 은정어린 은장도를 차고 나란히 선 세쌍둥이들, 설맞이모임을 마치고 곧바로 여기로 달려온듯한 학생들...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아직은 철부지라 할수 있는 저애들은 어이하여 여기 만수대언덕으로 달려왔는가.

아이들과 함께 설을 쇀면 피곤이 다 풀린다시며 해마다 설날이 오면 학생소년들의 노래와 춤을 보아주시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장소로 나오시던 우리 수령님, 그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일년삼백에순다섯날 날마다가 대원수님을 모시는 설날이면 좋겠다고 노래부르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은 벌써 세번째 설날을 대원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이다. 어린생각에도 그 아픈 마음을 묵새길수 없어 저애들도 여기 만수대언덕으로 새해의 첫 발걸음을 옮겼을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지금으로부터 50년전 1947년 설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복이 되새겨진다.

무궁한 새 조선의 새 일군 되소서

해방후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그토록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온나라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복!

그 축복을 되새길수록 어버이수령님처럼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미래를 꽃피우고 후대들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온 심혼을 깡그리 쏟아부으신 그러한 위인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가슴뜨거운 생각을 금할수 없다.

후대들에게 밥 한술 먹이지 못하고 옷 한벌 제대로 해입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말할수 있으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몇몇이 자랑할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며 강반석어머님의 풍랑세찬 일생이 압축된 돈,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싶으시였던 소중한돈 20원으로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입히시고 포근히 감싸주시던 우리 수령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토의해주시고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에는 몸소 부모잃은 어린것의 아버지가 되시어 포연탄우를 한몫으로 막으시며 조국의 미래를 지켜주신 우리 수령님.

자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다른 사업은 다 막으시면서도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는 문제만은 절대찬성이라고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 열린 한 협의회에서까지 아이들에게 교복을 공급한 정형을 료해하시고 모두 공급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

평화로운 나날에나 어려운 나날에나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의 계승자인 어린이들이 자리잡고있었거니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미래와 후대들을 위한 한평생이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는 언제나 후대들의 행복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고결한 생애였다.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신 로고의 자옥자옥, 불변불휴의 헌신의 크기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두번째로 맞이시던 탄생일날이었다.

그날 항일혁명투사들은 그 전해에도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 소박한

생일상을 차려드리었다.

그런데 늘 검소한 식사를 하여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무심히 상을 받으시다가 사랑, 파자가 더 놓인것을 보시고 놀라시며 어떻게된 일이냐고 엄하게 물으시었다.

투사들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는 늘 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드시었고 한흙의 미시가루마저 나누어잡수시였으며 해방이 되어서도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빗다른 음식을 사양해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날만이라도 상을 받아주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렸다.

사연을 아시게 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생각에 잠기시었다.

검소한 생일상에 오른 몇알의 사랑, 파자를 보시고 수령님께서 생각하신것은 며칠전 농촌마을 길에서 만나시였던 아이들이었다.

생신날을 맞기 며칠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농촌마을을 현지도하시었다. 마을길을 지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 어린 학생들을 만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집에는 누가 있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으며 점심은 어떤밥을 싸가지고 다니는가를 하나하나 물으시었다.

토지개혁으로 땅을 분여받아 걱정없이 살고있으며 학교에도 다니며 우리 글을 마음껏 배우고 있다는 대답을 들으시며 못내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요즘 사랑을 먹아보았는가 고 물으시었다.

학생들은 머뭇거리며 얼른 대답을 못올리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올리었다.

《장군님! 우리는 사랑을 먹지 않아도 일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는것보다 공부를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씩씩하게 대답하였지만 수령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었다.

해방이 되어 갓 두해, 일제가 남기고간 참혹한 파괴와 세기를 두고 내려오는 락후에서 우리 인민이 벗어나기에는 너무도 짧은 세월이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 넘치는것은 세월을 주름잡아서라도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살게 하시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 내세우시려는 생각이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윽고 갈리신 음성으로 동무들의 성의만은 고맙소, 그러나 생일이라고 하여 내 어찌 생일상을 받겠소, 나라가 해방되었어도 아이들에게 사랑

한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있는데 내가 생일상을 받은들 어찌 마음이 기쁠수 있겠소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끝내 수저를 드시지 안으신채 자리를 뜨시었다.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여 사랑, 파자를 비롯한 더 많은 식료품들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생신날 밥상에 오른 몇알의 사랑, 파자를 두시고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먹이지 못하는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목메여하시며 끝내 그자리를 뜨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진정 우리 어버이수령님의 머리에 내린 한오리 한오리의 흰서리마다에는 후대들을 위해 기울으신 사색과 심혈의 흔적이 있고 조국의 무궁번영할 래일을 위해 바쳐오신 로고가 깃들어있는것이 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교수하여오신 후대판이었다.

이 위대한 후대판이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대를 이어 계승되고 더욱 훌륭히 꽃피나고있다.

사상과 령도에 있어서도 덕망과 품모에 있어서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후대들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 그 어떤 락도 없다고 보시며 어버이수령님처럼 언제나 우리 후대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신다.

외진 등대섬마을의 세명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개교를 보장하기 위해 비행기까지 띄워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산골마을 11명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위해 이미 세워놓은 건물의 기둥까지 뽑아버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그 위대한 사랑속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오늘에도 우리 아이들은 구김살없이 행복의 노래만을 부르고 그들의 찬란한 앞길에는 언제나 행복의 무지개만이 어려있거늘.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슬픔속에 산천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치고 온 나라 인민이 땅

을 치며 날과 달을 보내던 그해 9월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 가까이에는 심은 포도나무밭들에 레년에 없이 대풍에 들었다.

그 포도나무들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더 맛있는 과일을 먹이시려고 몸소 그 재배방법까지 시험해보시며 키우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신 포도나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심혈을 기울이시여 키우신 포도를 해마다 락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보내주곤하시었다.

하늘도 땅도 몸부림치던 그 나날 포도나무들도 수령님의 사랑을 못잊어 한껏 아지를 치고 열매를 익힌듯 그 모습은 볼수록 눈물을 자아냈다.

알알이 터질것 같이 무르익은 포도송이를 쓰다듬으며 사람들은 수령님을 부르르고불렀다.

《어버이수령님, 올해에도 조선포도가 잘되었습니니다. 올해에도 포도가 다 익으면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더니 그 약속은 남겨두시고 어데 가셨습니까!》

참으로 눈물겨운 사연이 어려있는 사랑의 열매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한 약속을 자신께서 한 약속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심고 가꾸시던 포도밭에 대풍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그 포도를 한알도 허실하지 말고 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그해 9월 수도의 락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은 뜻밖에도 뜻깊은 사랑의 포도를 받아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이 어려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사랑의 포도를 받아안은 어린이들과 그의 부모들은 오열에 몸부림쳤다.

정녕 세상에 이런 사랑, 이런 은정이 또 어디있단말인가.

그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오른 어린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크고 윤기도는 포도송이를 정히 받쳐들고 서서 대원수님이 그리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이 고마워 흐느끼는 아이들의 모습...

동서고금에 없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어찌 그뿐이랴.

비분의 7월의 그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분계연선마을에 태어난 세쌍둥이를 위해 비행기를 보내주시었으니.

진정 후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그대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이 안기여 사는 위대한 태양의 품, 자애로운 어버이품이다.

세상에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그토록 미래를 사랑하시고 후대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위인은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매일 매순간 언제나 조국의 래일, 후대들의 행복을 령도하고계신다.

《미래를 사랑하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 구호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더욱 행복한 래일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가 어려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래일에 대한 사랑은 곧 미래에 대한 사랑,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며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래일은 곧 우리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이다.

후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헌신을 고생이 아니라 락으로 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련을 뚫고나가는 어려운 투쟁도 웃음으로 헤쳐나가시며 후대들이 젊어져야 할 고생을 자신께서 다 젊어지시고 오늘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력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시며 더욱 광명한 미래를 안아오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타고오신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승엄한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보다 휘황찬란할 내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고있으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불굴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이겨나가고있다.

시간이 갈수록 만수대언덕은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사람들로 차고넘친다.

드디어 밤 0시.

새해를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가 장중하게 울려퍼진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을 타고 새해의 련명을 불러오는 저 종소리.

저 종소리가 불러오는 우리의 미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한몸으로 지켜주시고 세월을 앞당겨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래일은 얼마나 더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최용호

붉은 다리아

리복은

1

북부내륙선 철길에 널려있는 정거장들 가운데서 제일 작은 역을 꼽으라 하면 아마도 청암령꼭대기에 땡그렇게 앉아있는 역사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은 작아도 맡은 임무는 자못 크다. 모든 열차들은 청암을 그저 지나지 못한다. 힘차게 달려오던 열차는 벌써 청암령의 공기를 맡으면서부터는 나들이갔다 돌아오는 새 며느리모양 얹혀지며 제동띠를 슬금슬금 조여놓으면서 고동도 조심하느라 울린다. 드디어 열차는 멈춰선다. 열차에 오르내리는 손님이 없는 때도 정해진 이질서는 범모양 어겨지지 않는다. 열차는 반드시 청암땅에 영치를 붙이고 딱따구리망치를 켜진 검사원한테 견인기주행바퀴와 여러 요소들에 대한 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금 달리게 된다.

이런 기술역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청암역은 모든 열차들을 다 붙잡는 역들과 나란히 이름을 쟁쟁히 날리고있는지도 모른다.

평양에서 첫 고동을 울리고 달려온 《최대급행》을 마중나왔던 김숙화는 열차가 긴 고동을 울리며 떠날 때까지도 흠에 서있었다.

그는 열차의 꿈무늬가 희미해져서야 표찍는 나들문쪽으로 돌아섰다.

해토무렵이어서 저녁녘의 날씨는 쌀쌀해서 밤색숨저고리를 걸치고 나왔는데도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져 너인은 무심결에 어깨를 한번 비틀었다. 네땡겉을 뻗는데 역사 한쪽에서 그를 찾는 석션한 음성이 울려왔다.

《봉길씨 어머니 아니요?...》

방금 고동을 울리고 떠난 열차에서 통표를 바꿔친 역장이 격실한 키를 흔들며 성큼성큼 왔다. 역장의 얼굴에는 측은한 너인의 기색을 다소 풀어주고싶은듯한 미소가 지나갔다.

《아들녀석이 평성바람에 취했는가보오. 허.》

오늘만 해도 숙화는 두번씩이나 나왔으니 역장이 그럴만 했다. 숙화는 비로소 등실그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역장말에 대답했다.

《원체 그랜 영치가 소힘줄같다오. 호호...》

역양을 보면 신살고개문턱을 바라보는 너인투인데도 아직 미소가 떠있는 얼굴은 그 나이를 떠나 깎아내리어도 무방할 정도로 싱싱한 향기에 젖어있었다.

《림산에선 청악골에다 풀판을 크게 조성한다는 소문이 예까지 자자하게 나돌던데요.》

《아무렴요. 풀판만이겠소. 청학골에 양떼, 염소떼가 멀지 않아 육설거릴거웁다. 청학을 개간

할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에서 여러차례 토론이 있었다우.》

너인은 청암림산사업소합숙에서 취사원으로 일하고있는데도 이런 때는 역장파도 언사가 잘 통하고있다. 하긴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책임진 취사원이니 사업소전반에 대해서는 관심만 두면 웬간한 지도원 찹찌먹을수 있다. 통나무실적이 몇프로, 공무동력직장 선반공이 무슨 기술혁신창안... 이런데 관심을 두고 칼도마질도 하고 쌀도 일면서 그들의 식성을 맞추는 재미란 정말 그만이 향유할수 있는 취미기도 하였다. 이런 너인이어서 사업소 어느 노동자치고 취사원앞에서 우들령대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겉보기가 안보기라고 아무렇게나 대해서도 성내는 일 없고 사근사근 맞춰주니 누가 그를 싫다 하랴. 혹 저들끼리 밥투정을 하다가도 그만 나타나면 맹물일지라도 곱배기를 청하게 하는 녀성특유의 그 향기로 해서 합숙식당은 언제나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싸여있다. 요즘은 어느 량만가가 만들어 내돌렸는지 숙화는 청암땅의 꽃이라 해서 본인도 허리를 붙안고 눈물이 날만큼 웃어버리었다.

꽃소리가 본인의 귀에 날아든 날 숙화는 벌목공 윤태석을 만나 가벼운 룡담조로 다 시들어버린 호박꽃도 꽃인가 했더니 젊은이의 말 또한 그대로 걸작이었다. 《가시많은 꽃에야 어디 호박꽃과 같은 꼴이 있나요...》...

평성에 간 너인의 아들걱정을 한번 같이 해본 역장은 멀지 않아 변모될 청학을 그려보며 히죽이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허허, 림산에 후방기지가 든든하게 꾸려지면 벌목공들이 좋아하겠시다. 삼동에두 산판에서 따끔한 염소젖을 먹게 됐으니까 통나무실적두 오를거구...》

《왜 통나무뿐이겠나요. 넓디넓은 청학골등판에 염소떼가 흐르면 벌목공들뿐만아니라 탄부들한테까지두...》

《저런, 아주머니 욕심두 원.》

《호호... 그땐 역장이아주버니두 오시우.》

《고맙쥬다. 하지만 옛날부터 사람 못살데라구 소문났던 청학골을 개간한다는게 조련치 않을거웁다.》

《아주버니, 걱정해주어 고맙수다.》

숙화는 미소를 거두고 역장을 다시 쳐다보았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아들 봉길이한테 휴가를 가라고 평성으로 떠밀은 제 처사가 정말 부끄럽

게 느껴지는 너인이었다. (정말 봉길이가 빨리 와야겠는데...) 하고 생각한 그는 궁금한 시선을 역장에게 주었다.

문득 역장이 다시 말을 뱉다.

《참, 봉길이 어머니두 청학골에 젊은이들을 따라간다는게 사실이요?》

너인은 사뭇 놀란듯 눈을 삼박이었다.

《...여기까지 그 소리가 굴러왔군요.》

《사실이군그래. ...젊은이들만 거기에 간다는데 꽤 당해내겠소. 여름철엔 그 갈따귀등판이 싫어서 미옥한 메돼지두 청학을 피해 달아난다는데.》

《호호, 그곳에 가는 젊은이들 때식두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요.》

《헛참, 팔팔한 체네들두 수두룩한데 아주머니가 청학에 밥가마를 메고가다니...》

역장은 도리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듯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아주버니까지 판박은 소리군요. ... 헌데 고칠 게 있수다. 청학이 뭐예요. 청학인데.》

《청학》을 《청학》으로 정정해놓는 너인의 말에 역장은 통표를 바꿔쥐며 버릇처럼 다시 고개를 끄덕거렸다.

《버릇이란... 우리편 그-그 꼴을 청학, 청학했으니까. 그게 다 사람 못살 꼴이라는데서 <악>자가 붙었는데 좌우간 봉길이 어머니, 이제 가보면 알게요.》

하고 역장은 교장이름을 잘못부른 실수를 보충이라도 하듯 한마디 더 끼여넣었다.

《청학이든 청학이든 좌우간 그 땅이야 어데 갈 데없는데 봉길이가 이제 오면 심중히 잘 의논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고...》

너인은 역장이 말끝에 양념장처럼 끼워넣은 아들소리가 한번 무심결에 해본 소리같지 않았다. (그애가 정말 찬동해줄까?...) 하고 너인은 중얼거리며 역장을 따라섰다.

역장은 너인을 표적는 문앞까지 따라나와 배려주고는 인차 사무실로 들어갔다.

숙화는 아들문제를 재차 꺼내서 혼연한 어조로 마음을 든장질해준 역장의 말이 그냥 귀속에서 울어대며 다시 가슴이 무직해지는것을 막을수가 없었다. 청학골에 젊은이들과 같이 가겠다는 자기를 두고 어찌면 다 역장처럼 마감에 아들 봉길을 걸고 마지막 주패장처럼 내밀가. 청학골은 과연 이 어머니와 아들을 갈라 떠보는 무슨 저울추와 갈단말인가...

숙화는 자기가 청학골에 가는 문제를 놓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림산사업소에서는 청학골에다 풀판을 만들고 집짐승들을 놓아기르는 문제가 한창 열기를 띠었다. 별목공들뿐 아니라 잘만 되면 탄부들한테까지 염소젖을 공급할수 있다는 화제가 오르자 숙화는 공연히 마음이 활랑거렸다. 젊은이들이 청학골에 염소며 양을 몰고 들어간다는 소리가 더

는 뜬소리가 아니라는것이 명백해지자 너인은 드디어 마음을 먹고 지배인을 찾아갔다.

체소한 몸집이지만 박달나무처럼 단단해보이는 지배인이었다. 그래서 몸집처럼 작게 한마디씩 해보는 역장에도 쉬이 부러지지 않는 박달나무형의 기품이 어리여있어서 종업원들은 그를 펍 조심히 대해주고있다.

《숙화동무, 리해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이젠 몇이요?... 안되오...》

매우 단도직입적인 설교였다. 젊은이들이라고 다 보내지 않고 선발해서 청학에 보내는것이니 취사원은 더구나 안된다는것이다. 숙화는 더 어찌지못하고 지배인방에서 물러났다. 청학골에서 나이가 많다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봉길이가 받아주지 않겠는가. 봉길인 올해 열아홉살이다.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 없었다.

아들은 지금 평성에 있는 형네 집에 가있었다. 며느리를 데리고 왔던 만이가 봉길이까지 데리고 평성으로 돌아갔던것이다. 그가 떠나간 그 어간에 청학골개척자들이 선발되었는데 그들모두는 하나같이 피가 한동이씩이나 찬 청년들이었다. 청학은 좋다, 이름그대로 우리 청춘을 부르는 《대학》, 배움의 요람이다. 골안에 염소와 양떼가 구름처럼 흐르게 하리라는 랑만가들로 무어진 집단속에 다 시들은 호박꽃이 어울릴수는 없지만 너인은 청학소리가 머리를 내밀자 웬일인지 첫 사랑을 고백한 그 시절때처럼 가슴이 활랑거려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 그 고백을 지배인앞에서 간신히 꺼내봤는데 단박 박달망치에 맞아 깨친것과 같은 처지로 떨어질줄이야...

그래도 숙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꾸만 청학에 대한 미련이 더 커져서 자신을 종잡을수가 없었다. 너인은 청학등판으로 가겠다는 여러 젊은이들가운데서 호박꽃《철학》을 내놓은 그 윤태석이를 조용히 불러 만났다. 무슨 일에서나 씨원 씨원하고 한마디를 해도 의미심장한것을 골라쓰곤하는 그는 동료들이 퍼그나 무게있게 대해주는 청년이었다.

윤태석이는 숙화가 청학골에 가겠다는 소리에 대뜸 찬동하였다.

《좋습니다. 봉길이 어머니까지 청학골에 마음을 두고있으니 정말 행복하다는 기분만이 앞설뿐입니다.》

숙화는 태석의 열띤 감정에 얼마간 어정쩡해졌다.

《행복은 많이 일하는자에게 차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청학에 가서 본때를 보이자는것입니다.》

《그러니 나같은 늙은데긴 청학이 싫어한다는거지. 청춘들한테는 행복의 요람이 되구...》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

사실 봉길이가 어머니까지 우리와 함께 간다면 모두가 춤을 출겁니다.》

《왜?…》

《어머니가 끓인 음식은 다 맛이 있으니까요.》

태석은 불현듯 숙화의 아픈데를 짚었다.

《…지금 봉길인 형한테 가있지요?》

《…》

일순 너인은 내심 놀랐다. 태석이까지 봉길이를 걸고들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뇌리로 줄달음치자 그는 고개만 약간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아들이 청학을 피해 일부러 도피한 것 같은 부끄럼이 들었던 것이다.

《봉길이가 청학에 가겠다고 할가요?》

윤태석은 못내 미덥지 않은 심정이였다.

《가지 않고. 나를 청학에 보내도록금 불을 달아줘. 다들 내가 가면 좋아할 것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주겠어?》

《난 어머니가 이래서 좋습니다. 꼭 실현될 것입니다.》

아니다를가, 숙화가 지배인방에 재차 들어갔을 때 짧고 마디진 지배인의 음성에는 벌써 윤태석이네들이 지원포를 싸준 억양이 많이 끼여있었다.

《청년들을 완전히 틀어잡았더군. 숙화동무 손에 지은 밥 먹어야 등판을 기한전에 뒤엎는다더군. 현대 아들과 의논해보았소? 봉길이가 반대면 다른 도린 없수다. 어머니생각은 이 지배인도 아들만큼은 못하니까.》

청학골로 가는 길에 놓였던 걸림돌이 한꺼번에 뿔쳐지는 바람에 너인은 마음이 후련하여 겨를이 없었다.

《우리 애까지 데리고가겠어요!》

《봉길일?!…》

지배인은 놀라는 기색이였다.

2

그날 밤이 펍 깊은무렵에야 봉길이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 집에 나타났다.

역장의 말처럼 기다리던 사람을 맞는 기쁨이란 참말로 별맛이였다.

형이 태워준 자동차로 청암까지 온 봉길이어서 아들의 몸에서는 아직도 수백리나 달려오며 태워버린 휘발유냄새가 배여서 향수처럼 가볍게 풍기고있었다.

《엱지에 구름이 깔린것 같았겠구나. 언제 한번 이런 먼길을 네가 자동차로 온적이 없으니말이다. …》

《정말 멋들어진 려행이었어요. 형님이 저한테서 촌때를 벗겨주고파 일부러 자동차코스를 잡아준것같아요.》

《호호호… 에그- 정말 촌티나는 소리 하는구나. 여기가 어떻다구. 기차가 청암에서 멎는데.》

숙화는 즐거운 기분을 애써 돋구며 명랑하게 말하였다. 이제 아들한테 말해주어야 할 청학문제를 위해서도 기분상한 소리는 한푼투리도 터치

고싶지 않은 숙화였다. 어머니의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봉길이는 제 기본에 들떠 이야기를 벌려놓기 시작하였다. 형수가 정말 좋다는등, 사람이 살바치고는 도시물을 먹으며 살아야겠다는등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속에서 종시 가슴이 화드득 뛰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숙화는 갓난애적 봉길이를 키우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젖을 빨다가는 갑자기 젖몸을 깨물어놓곤하는 그릇된 버릇이 다 자란 지금에 와서도 떨어지지 않고있다가 이렇게 어머니를 놀래워주는것만 같은 환각이 삽시에 덮쳐들어 눈앞이 다 뻘어졌다. 청암을 뜨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아들에게 청학골등판에 가자고 하면 어떻게 나서리라는것은 너무도 뻘한 일이었다. 지배인이며 지어 역장이 청학골에 가는 일을 두고 아들 봉길이를 걸고든데는 바로 젖몸을 물어뜯던 때의 못된 습성을 예견해서 걱정했던말인가. (말이, 그녀석 제 동생 옳은 길로 이끄는줄 알았더니…)

숙화는 제 자식에게 속으로 된욕을 퍼부어보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것 같았다.

《봉길아!…》

의외로 돌변한 어머니의 억양은 방안공기를 얼く는 힘이 있었다.

봉길이는 두눈이 켜해졌다.

《…?》

《난 모래 청학골로 떠나야 한다.》

《청학이라니요?!》

《그래서 널 수태 기다렸다. 너도 같이 청학골로 가자꾸나.》

요구가 아니라 강박에 가까운 어머니의 말이였다.

비로소 봉길이의 눈까풀은 푹 내리덮이고말았다.

봉길이라고 주위의 공기에 감촉이 둔한 목적은 아니였던것이다. 그가 형네 집에 찾아갈무렵부터 청학골말이 더 나돌았는데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해진것 아닌가. 청학말이 나오자부터 꺼림직해하던 봉길은 이번에 평성에까지 가서 도시바람을 쐬고 나니 저으기 마음이 등 떠서 자신도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자꾸만 도시로만 쏠리는것을 다잡기 힘들었던것이다. 불파귀로 갑자기 한방울의 물기가 무겁게 떨어져내릴것만 같아 봉길이는 고개를 외로 틀었다. 어머니의 억양에는 벌써 청학땅흙냄새가 배여있어서 봉길이는 더 한층 마음이 산란해지고 어머니가 야속스러웠던것이다. 봉길이는 종내 쉼은 마음을 터치고야말았다.

《어머니가 그 험한데 꼭 가야만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요. 어머니가 가겠으면… 어머니 그만 두세요. 차라리 어머니대신 제가 가겠어요.》

《아니 이건 대신할 일이 아니다. 에두를것두 없이 나도 가고 너두 꼭 가야 한다.》

봉길이한테는 이 순간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도 살뜰했던 어머니같지 않았다.

《우리 동맹에서 거기 개척자로 나서자고 결기한것두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안돼요. 내가 남들속에 끼우지 못할가봐 어머니까지 따라나선것 같은데 차라리 제 혼자 가겠어요.》

《아니, 너두 가구 나두 가야 해. 난 승낙받았어. 태석이랑은 다 기뻐하며 좋아해.》

《누구라구요?!...》

봉길이의 눈이 휘둥그래지며 굳어져버렸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간 태석이네가 청학골로 가도록 도와준 일을 추려 간단히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태석이가 어머니를 추동했군요...》

《아니다. 나이 천살에 남의 추동이나 따를 의미같으냐.》

《흥, 등판에 가서 호박을 넝쿨채로 따가지고 오겠다는 심보였지... 태석인 내가 잘 알아요.》

《너 무슨 소리 말랑 하니...?》

숙화는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태석이 본심은... 적화군만 나서라. 그러면 내가 먼저 영웅이 된다는 사람이예요.》

《그게 어디 나쁜 생각이냐.》

《좋아요... 내가 가겠어요.》

《억지로 가는 길엔 첫발자국부터 발목이 시그러질수 있어.》

숙화는 더 말을 안했다. 래일 다시 기회를 보아 왜 너도 청학골로 가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잠자리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들도 잠자리를 뒤채며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더우기 봉길인 려로에 고됨만이 아니라 마음걱정때문에 잠을 못들고 끙끙거리는것이 알렸다. 아들의 숨소리가 들릴수록 숙화는 정신이 말개져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저도 모르게 베개굽이 축축해진 촉감을 느껴서야 추억의 나락에 빠져들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어느덧 아들의 숨소리는 고르로와지는가싶었다.

숙화는 슬며시 일어나 손더듬으로 아들의 이불깃을 버릇처럼 여며주었다. 추억도 많고 번민도 많고 또한 전에 없는 사랑도 그리워지는 밤이었다.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자 가슴속에 웅어리졌던것이 목에 껍 걸리는것이였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순간 봉길이는 이불깃을 헤치더니 벌떡 일어나 어머니품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어머니,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서 무얼 바라는지. 더는 딴 생각을 안하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만은 여기 꼭 남으세요.》

《넌 이 에미격정으로 여태 잠을 못들었구나. 넌 내가 청학골에 가겠다는걸 막자고 마음을 쓰는것같은데 이 에미도 그렇고 너도 녹거리동정심에 량심을 팔아선 안돼. 난 너를 위해서구 너 나를 위해 고생을 산다는식의 동정말이다.》

청학골은 맘을 붙이기 힘든 심심산골고장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고장이 어떻게 돼서 오늘 네포래 청년들이 달려가게 되고 또 내 마음을 끄는지 너는 아직 모르고있다. 그게 안타깝구나.

지금 고마운 당에서는 그고장을 찾아주고 기를지게 해주는데 그 땅을 버리고 떠나 살던 우리가 남들이 다 꾸러놓은 다음에 간다는게 말이 돼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봉길은 놀라운 눈으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넌떠나는 행복에 취해 모든것을 잊고 산셈이다. 허지만 그 땅이 네 아버지 고향이고 네가 태줄을 끊은 고장이라는것만은 새겨두어라.》

《고향이라니?!》 아들의 심중에서 울리는 놀라움을 숙화는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였다.

하기에 밤이 깊었어도 아들의 가슴속에 사그려져가는 넋을 깊이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래 청학골로 자리를 옮기자면 아들의 걸음에 반드시 고향의 흙을 밟는다는 자각을 심어주어야 그가 발탈없이 청학등판까지 갈수 있고 성실하게 일할수 있다는 느낌이 새삼스러워져 숙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청학은 네 고향이지. 청학골이 여태 버린 땅처럼 남아있을 때 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무직한것이 짓누르는것만 같았다. 너의 할아버지대부터 뿌리내리고 그고장에서 네 아버지가 심혈을 쏟아부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게 되는 그 말에 봉길은 조금증이 앞섰다.

《이제 그걸 다 말해주자는게다.》 하고 허두를 재차 댔 너인은 최근에 당조직에서 청학골등판을 료해하고 고산지대에 축산기지를 꾸릴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러차례 걸쳐 토론을 벌리였고 대책까지 세워주고는 여러곳에서 청장년들을 불러 보내주고있는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나서 아들의 마음을 비로소 고향땅으로 끌어가듯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옛말같은 일이지. 너의 할머니가 처녀때였다. 청암일대에 크게 차려놓은 약방에서 그는 몸종처럼 일하였지. 어느해 청학골에 산삼이 유명하다는 소리에 귀가 벌쭉해진 약방주인은 작인들을 청학골에 들이밀었지. 얼추 풀막을 치고... 처녀는 그들의 때식을 끊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에 뽕나무를 하려고 골안에 깊이 들어갔던 처녀는 짐승도 아닌 괴물같은 <산사람>을 보고 혼썰이나 넋을 잃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보니 글썽 그가 사는 웬 동굴이라는게 아니겠니.》

《어머니, 무슨 꿈같은 이야길 해요.》

봉길은 벌떡 일어나 얼른 전등불을 켰다.

《새까만데서 귀신같은 소리를 듣자니 겁이 드

는 모양이구나...

그래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람이 분명했어. 산관에서 이와실을 하던 그 사람은 여기 깔따구처럼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는 왜놈집장을 까놓히고 인적없는 청학에 들어와 혼자 살고있었던게다.

그와 연줄이 이어진 처녀는 작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그 동굴에 자주 가군했지. 정이란 별난 것이지. 처녀는 그의 더꺼머리도 깎아주었대. 그런데 몸을 거두고보니 얼마나 끝끝한 총각인지...

이런 눈치놀음이 들창났지. 약방주인놈은 성이 독같이 나서 처녀를 아예 그 골안에다 깔따구잡이 되게 내버리고 왔다는거야. 심술사나운 생투정질이지. 뜻이 있는 남자를 만났으니 연분이란게 이런것인지. 그 주인놈은 처녀몸이 더러워졌다며 흥, 제주제에 버린다는거지. 약들에 부정을 탄다는 구실을 대고...

그래서 처녀총각이 청학골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네들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다. 거기서 너의 아버지두 낳았고 해방이 되자 그 골에서 나왔다. 우리 수령님의 덕택에 네 아버지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됐구. 전후에 대학을 졸업한 네 아버지가 다시 청학골에 들어가 거기서 너를 낳게 될줄은 나두 몰랐다.》

숙화는 왜선지 뒤말을 몽그리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슬며시 일어나 아들이 컸던 전등불을 끄며 잡자리에 누웠다. 이제 아들 봉길이의 태줄까지 청학골에서 끊지 않을수 없게 된 그 소리를 하자면 자연히 가슴 허비는 추억이 머리를 들판인데 벌써부터 미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막을수 없었던것이다. 차리리 어둠속에서 눈물을 다 쏟아 묵은 상처의 아픔을 씻어버리고싶은 속하였다.

3

림시천막이며 등판개간용 각종 쟁기며 또 화식 도구들과 기타, 손풍금을 둘러멘 청년들이 드디어 산세가 험한 청학골어귀에 들어섰다.

땅속깊이 깔려있는 짙들을 잡에서 깨울만큼 아직은 봄별이 무르녹아내리지 못하는 초봄이어서 골안에는 묵은 잡초냄새만 떠돌고있었다. 선발대성원속에는 숙화도 있었다.

선발대가 길을 넓혀놓은 다음 천천히 뒤따라가라는 지배인의 권고도 마다하고 따라섰던것이다.

어머니가 대오에 끼우니 봉길이도 자연히 따라서지 않을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선발대명단에 오르자 윤태석은 별스레 시뚱해하면서도 쾌활한 성미그대로 너스레를 떨며 청학골에 자리잡은 《첫 가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허지만 그 청학골의 《첫 가정》소리는 어쩌선지 봉길이한테는 짜증만 돋구어놓았다. 태석이가 어머니를 저런 식으로 고무풍선처럼 마음을 띄워 청학골로 데리고간다는 생각이 들어 봉길이는 공연히

모든것이 시답지 않아 걸핏하면 짜증만 냈다. 태석이한테다 언제 한번인가는 꼭 불질을 해볼 마음속의 뿔을 미리 세워보는셈인지 봉길이의 가슴속에서 태석에 대한 감정이 한둘기씩 벗겨져나오는데도 태석이는 그런데 상관할바가 없다는듯 더 두터운 비위살을 부렸다. 청학골로 떠날 차비가 다 끝났을 때였다. 태석이는 봉길이한테 다가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자기가 번듯하게 지어주겠다고 하자 그만 목새기던 성을 터치고야말았다.

《청학골에 내가 가니 이제는 속이 시원하겠소!》

봉길이의 눈에는 분기가 파랗게 서려올라 한참이나 파들파들 떠는듯싶었다.

《씨원하다니? ... 누가 억지로 따라서래... 풀판이 꾸러진 다음에 와도 우리는 타발 안하겠어.》

《뭐라구요?!》

《청학골이 싫으면 애당초 그만두라는거야.》

태석이는 장을 한두독 더 축낸 사나이다운 도량을 보이려는듯 음성마저 느린 축음기소리판처럼 질질 끌며 빈정거렸다.

하루송아지 안따라온다고 청학골등판개간을 위해 준비한 멩에가 썩지 않으니 아예 어머니치마폭에서 떨어지라는것이였다.

《흥, 태석동무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줄 알아요... 청학골에 돌격을 막아나설 무슨 화구가 있을것 같아 떠난것 같은데 거긴 영웅을 만들 화구두 없구 인생을 도약할 발판두 없으니 태석동무나 떨어지랴요.》

봉길이의 시까스르는 도수도 첫잔에 골이 핑돌정도였다. 끝내 태석은 노성을 질렀다.

《뭐야...?! 너 어쩌서 자꾸 요즘을 나한테 타발질이야!...》

《그건 내가 태석동무한테 할 말이야요. 난 태석동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씨원해하는가를 보자고 청학골에 가는것이니- 그리-알라요-》

이제는 봉길이쪽에서 태석이의 그 느린 소리판을 빼앗아낸것처럼 마지막어성을 길게 뽑았다. 너 하나면 나 하나다는 로골적인 비양이였다.

이처럼 약이 오른 도수는 태석이나 봉길이나 한눈금도 차이가 없었다. 여차직하면 먼저 태석이쪽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진 주먹이 날아갈지도 모를순간에 숙화가 나타났다. 정말 다행스러운 출현이였다. 숙화는 여러번 아들과 태석이 관계를 놓고 생각을 굴리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충돌이 생길 건덕지는 없는데 어쩌서 요즘 소담보듯하는지 알수 없었다. 봉길이 탓이겠지. 그녀석 억지로 끌려오는 몸이니까. 그 분풀이를 태석이한테 해보는것인지. 숙화는 아들 봉길이를 청학땅에다 뿌리를 내리게 하고 주인구실을 다하도록 키울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였다.

청학골어귀에서부터 줄창 《할딱고개》를 넘고

또 메마른 잡초투성이인 골안을 헤치며 오다보니 사람들은 녹초가 되다싶이 지쳐버렸다. 속화는 발바닥에 송곳이 박힌것처럼 디디기가 힘들어 털썩 퍼터버리고만싶었다.

《자, 동무들, 여기 모입니다!》

윤태석이었다.

인차 젊은이들이 그의 주위에 쭉 둘러앉았다.

태석은 제 배낭아귀리를 터치더니 그속에서 웬 물건을 꺼내들었다.

《사진을 한장 찍자는것입니다. 이제 순간이 지나면 추억만 남아있을텐데 사진이야 우리의 기분을 영원히 담은 기념물이 될게 아닙니까...》

어느새 사진기의 사타가 눌러졌는지 태석이는 사진기를 쳐들며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담은 영상이 필름에 새겨졌습니다.》 하고는 이번 카드는 정자세로 찍자면서 속화를 가운데 놓고 동무들을 적당하게 세워놓았다. 봉길이가 튀어나가듯 사진기를 켰 태석이한테 다가갔다.

《기념사진인데 태석동무가 빠져서야 되겠소. 나같은것은 빠져두 일없지만.》 봉길이는 무작정 태석이 손에서 사진기를 빼앗아냈다.

《내 자리는 태석동무가 설 자리니 빨리 가 메워주시오.》

《나야 빠진들 뭘하나...》

태석이의 씨원스러운 음성이 돌개바람소리처럼 속화의 가슴을 흔들었다. 허나 봉길은 무슨 영터리를 만들어 생투정을 부리려는것 같기도 했다.

《태석이랑 봉길이 너랑 여기 다 들어서. 나도 웬간한 사진은 찍으니까.》

속화는 등실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태석이한테로 나갔다.

《아니, 어머니 그냥 서계십시오. 어머니가 빠지다니요?...》

태석은 그를 떠밀었다.

《사진기를 줘. 애 봉길아, 너도 들어가 서라.》

속화는 아들을 향해 일부러 말을 뻗듯 마디마디가 의미심장하게 울리었다. 오늘 이곳으로 떠나기직전에 둘사이 있었던 그런 감정이 또다시 불꽃을 튀길것 같은 예감을 느껴서 그는 일부러 나섰던것이다. 사진기사타를 누르는것을 놓고 세사람이 나서는 바람에 분위기는 다소 어정쩡해지는듯싶었다.

《빨리 찍자요.》

속화는 해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아들과 태석이를 동무들속에 떠밀어넣고는 정말 초점을 맞추고 샷타를 눌렀다. 그리고 사진기를 내리며 한마디 했다.

《이 사진기에 찍힌 우리는 한가마밥을 먹는 식솔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돼요. 난 후날 사진을 보면서 누가 우리 식솔에서 마지막까지 맹세에 충실했는가 총화짓군하겠어요.》

이렇게 되고보니 윤태석이 창안해낸 기념사진

은 처음보다 더 무게있게 그리고 멋들어지게 의의가 강조된듯싶었다.

4

《그래, 넌 이 에미속을 그렇게도 박박 태워줄테냐!》

속화는 고개를 짓누르고 앉아있는 아들에게 연방 들이대었다. 오늘 등판에 나가 일하던 아들이 태석이한테다 종내 뿔질을 했던것이다. 조명용 풍력발전기를 등판에다 놓겠다는 태석이의 발기를 봉길이는 맨손바닥으로 하겠는가고 시까스른것이 언터구가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었던것이다.

태석이는 어찌나 성이 올랐는지 그길로 속화한테까지 찾아와 씨근거렸었다.

《어머니, 여길 떠나주십시오. 내가 총동질해서 어머니가 여기 왔다고 봉길인 나무람질하는데 그렇다면 떠나주십시오.》

속화는 순간 태석이의 달아오른 분기를 어떻게 식혀줄지 몰라 허탈에 빠진 사람처럼 멍청히 서서 젊은이의 투정을 받기만 하였다. 등판의 공기를 썰렁하게 한 책임이 다름아닌 자기한테 있다는 죄스럼만이 압박해들뿐이었다.

《태석이, 우리 봉길인 아직 철이 없어 그래. 이 에미탓이니 너무 나무람 말아줘.》

《아닙니다. 봉길이가 왜 까박을 붙이는지 전 압니다. 그래 봉길인 여기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텔레비존두 볼수 있다는걸 리해 못할 사람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콩으로 메주를 쏘대도 곧이 안듣는판이니...》 하고 여전히 달아오른 어성으로 봉길이가 어머니가 등판에서 뜨지 않으면 자기가 뜨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티각태각하며 지내서는 등판을 제대로 개간할수 없다는것이다.

처음부터 마음이 서로 맞지 않고서는 낫설고 물설은 이 등판에 풀판을 조성하고 집짐승들의 보금자리를 꾸려줄수 없다. 더구나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려써야 할 이런 때 쓸데없는 시비질이나 하면서 감정을 곤두세우면 바람 세찬 등판을 제 기일안에 개간할수 없다는것이 뻔한 리치인데 아들이 패썹하게 여겨졌다.

종이장도 서로 맞들면 더 가볍다는데 아들은 태석이의 발기를 무턱대고 제 비위에 몰아넣어 갈아버리려고만 하니 정말 속화로서는 태석이앞에서 면구스럽기만 했다.

《여길 뜨겠다는 소린 안타까와 나한테만 해보는 소리겠지?...》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이 태석이가 사람들한테서 남의 앞길을 막아버린 못된 심술쟁이로 뒤손가락질을 받을판인데... 벌써 명백해지고있습니다.》

《...?》

한동안 둘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드리워 있었다.

《정말 똑똑히 말해줘...》

숙화는 살얼음긴 강우로 걸어가듯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더는 아들만이 아닌 어머니한테 수치감을 들켜줘줄 말을 삼가해주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이 그 질문에 묻어있었다.

《아들의 심정이자 어머니의 심정일텐데... 평생에 가게 된 봉길이를 제가 붙잡아가지고 온 것처럼 일이 번져지고있는것을 봉길이 어머니도 모르는 않을것입니다. 이런 때 사람들한테는 의무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봉길이를 붙잡은 걸 사람들은 얼마나 뭉게 보겠습니까. 인정머리가 털끝만치도 없는놈으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보다 아예 내가 여기서 뜨면 봉길이라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호-》하고 숙화는 비로소 한숨을 토해버리었다.

태석이의 말에는 한조박의 거짓도 없었다. 청학골문제만 없었더라면 아들은 지금 심중팔구 도시행 운전대를 잡아보려고 애쓰고있었을것이였다. 제 생활을 개척해보려고 베틀 북바디처럼 돌아칠 그 정열이 과연 누구탓에 식어버렸는가를 어머니는 모른단말인가?

태석이의 말은 끝났으나 너인의 귀에는 계속 이런 질문이 망치로 못을 치듯 울려왔다. 그리고 숙안이 기름심지처럼 바질바질 타들어 입술까지 말라드는 고통을 어떻게 떼버릴지 몰랐다.

《태석이, 우리 애가 형한테 가겠다는걸 붙잡은 건 나야.》

《아닙니다.》

《나라는데!...》

《그게 사실이라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태석이와 같은 랑만가형의 남자들에게는 이런 쇠발통같은 자존심이 있단말인가. 부모가 석자로 지어준 그 이름이 사람의 됴됨을 보여주는 《인간성》이라는 채찍에 맞아 현 결레짝처럼 돼버리지않게 미리 방비를 하느라 사업소로 되돌아갈 용단을 태석이가 내리고있으리라고는 애당초 생각하지못한 숙화였다.

《명예가 그렇게 중하다면 떠나지뵈.》

숙화는 피로움에 더 모대기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봉길인 누가 뭐라고 하든 여기서 빼던지지 않겠어. 나도 그렇구...》 피로움을 토해버리여선지 마음처럼 몸도 갑자기 홀가분해졌다. 태석이와 관계가 이렇게도 며칠새 무거워졌있었다 말인가... 아들한테 마음속으로 매질을 하면서도 그와 있었던 관계를 되새겨 음미해본 숙화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넌 어째서 태석이라면 꼴을 흔드느냐?...》

《태석인 여길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고있어요.》

그 소리에 너인의 눈앞에는 언젠가 아들이 한

말과 함께 요즘 여기서 태석이 떠들던 위훈의 창조와 같은 목소리들이 같이 섞여돌면서 사진기사건, 풍력발전기사건들로 범벅이 되어 떠올랐다.

《그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

《다 그렇게 태석이를 보는지 모르지만 전 벌써 태석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짐작하고있어요. 여기 조건이 어려우니까 생각이 점점 달라지는거지요뵈.》

《넌 그제 탈이다. 동무에 대해 그런 욕된 생각을 하면 안돼.》

숙화는 오금을 박듯 짝어말했다.

그러거나말거나 봉길이는 한마디 더 꺼냈다.

《어머닌 여기 등판이 개간되면 그냥 계속 앉을 생각이지만 태석이는 여기에 뿌리내릴 재목이 아니예요. 어떤 <찬스>를 보고온 걸음인데 뒷타이 있나요. 힘들어지니까 벌써 몸을 사리는것이죠.》

《그래 넌 여기다 뿌리를 내릴 결심이 됐니?》

숙화는 갑자기 아들이 한결 돋보여져 저도 모르게 미소를 띠우면서 긴장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 대답소리는 한시간이나 맞먹는듯한 침묵을 끌고가다가야 비로소 울리었다.

《내 고향이 여긴데 이제야 뭐 뿌리를 내리고안 내리고가 있어요. 난 할아버지 마음두 알구 아버지 마음두 이제 다 알아요. 나두 어머니처럼 아버지가 다 못한 일을 안고 힘껏 일해볼 결심을 가졌어요. ...내 고향을 꾸리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가 무슨 안식처나 또 어디에 뭇 림시정거장처럼 여기는 위선가들을 끌라내서 애당초 다 속아버리자는것이 저의 결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손에 고향땅을 맡겨버리고싶지 않단말이에요. 고향을 더럽히지 말자요. ...》

(!!...)

순간 숙화는 눈앞이 뿌연게 흐려져 앞에 앉아있는 봉길이가 제 살붙이지만 여간 대견하게 여겨지는것이 아니었다.

(그렇단말이지. 네가 벌써 그렇게도 성장했단말이지.)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아들 봉길이를 미덥게 바라보았다.

대밭에서는 대가 난다더니 이 순간 꼭 봉길이는 남편그대로였다. 근 스무해전 떠나버린 남편이 되돌아온것만 같은 기분이 온몸에 퍼졌다.

어려웠던 그 시절 남편은 자기 태줄이 묻히었고 부모들의 원한서린 한숨이 배인 이런 청학골과 같은 고산지대중에서도 고산지대라 불리우는 산골의 동식물생장문제를 연구제마로 하고 힘겨운 걸음을 하고있었다. 이러자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청학과 같은 고산지대가 얼마나 되기에 경제적가치가 적은 문제를 쥐고 씨름질이나는 투로 동정과 걱정을 하면서 은근히 방향을 돌릴것을 바라고있었다. 지어 편협한 어떤 일꾼들은 로골적으로 목가적인 기분에서 연구제마를 잡았다면서 이제라도 방향을 돌리라고 충고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태반은 한때 이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노력과 수지가 맞지 않아 물러나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의 연구목표를 향해 돌진하였다. 한두해 세월이 갈수록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역시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더우기 그마저도 경제적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다만 학계에서만 운운할 문제라고 락착이 되자 남편 역시 주저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려야 한다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선택한 연구제마인데 바꾸다니 될말인가. 남편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산을 기를지를 꿈과 포부를 안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끝안에 풍토순화를 목적으로 심은 한 작물작황을 보려고 갔다가 뜻밖의 사고에 학자는 몸서리치는 상처를 입었다. 운명직전 학자는 안해를 불러 머리맡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 <황금산>, <보물산> 을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리오. 교시관철을 못한 이몸을 고향땅은 받아주지 않을거요. 한때 제 고향이 싫다고 멀리 가버렸던 난데 이제야 철이 들어 무엇인가 해보려고 고향에 왔는데 먼저 가게되니 용서해주오. 어느때는 꼭 우리 청학땅에도 보물이 넘쳐날거요...》

그해 가을 안해는 만삭인 몸을 풀었다....

숙화는 아들 몰래 열린 눈금을 훔치고나서 나직이 말하였다.

《사실 나도 어느새 고향을 잊어먹고 산 사람이었지. 그저 못살 땅으로만 알았으니까...》

어느날 중앙에서 한 일군이 찾아와 이 에미에게 너의 아버지가 연구하던 자료들을 요구하기에 농작물까지 들춰서 모두 내주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나라에서는 우리 청학땅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세우고 여러모로 방법들을 찾으며 너의 아버지가 연구하던 제마들도 다시 검토해보고 그 학자가 있었다면 청학골은 이렇게 오래 잠자는 땅으로 있지 않았을거라는 평가도 내려줬네. 그후 농작물보다 축산기지를 꾸릴 새방도가 제기되었지. 하지만 난 네 아버지까지 잃고보니 더는 여기서 살 생각이 없어져서 변덕스러운 자연의 황포보다도 네 아버지를 잃은 마음의 상처를 가해보려는 너인의 나약한 마음이 앞섰던거다. 이런 죄가 어디 있지. 남편의 온기가 있는 땅두, 고향두 다 버렸으니. 그래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고향에두 다시 찾아볼수 있고 나라와 너의 아버지한테 지고있던 죄를 갚을 길이 열렸으니...》

숙화는 숨이 찬지 한동안 가슴을 부둥켜안듯 손을 거기에 올려놓고는 아들을 보고있었다. 틀림없는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다.

비로소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 봉길

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앞에 떳떳치 못했어요. 순간이나마 마음이 들떠 평성으로 가려 했으니까요. 사실 전 처음에는 어머니때문에 여기에 발을 들여놨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 이상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누가 뭐라든 꾀꾀이 뿌리를 내리겠어요. 제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놓고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어요.》

숙화는 대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분명 아들은 고향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재목감인것만은 더 의심할나위가 없었다.

(속이 깊은것은 사내들의 장점인지...)

숙화는 청학골에 오기전 그리고 또 이번에 마음 쓴 일을 합한채 모대기다 찾은 답이 너무도 커서 뜨거운것이 가슴그들먹이 고여올랐다.

5

청학골문제가 제기되자 누구보다 기뻐하던 태석이가 아들 봉길이를 걸고 마음을 그렇게도 쉽게 돌려놓으리라고 애당초 생각못한 숙화였다. 자기의 가슴속에서 맴돌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더 절제만 해준 태석이여서 자식 못지 않게 원심을 쓰며 대해왔는데 풀판조성에서 뜻하지 않게 난관이 나서자 청학땅에서 돌연히 발걸음을 돌리다니...

태석이는 어제 바람처럼 끝안에서 사라졌던것이다.

숙화는 너무도 가슴이 허전해서 몇몇 젊은이들을 만나보았는데 모두 태석이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해석을 달고있었다. 성과가 날이 갈수록 묘연해지자 조금중에 사로잡혀 꼬리를 사렸다고 하는 아들과 같은 견해를 가진 젊은이들도 더러 있었지만 아마도 풍력발전기때문에 사업소에 간 모양이라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으랴.

사흘이 지나도 태석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날씨가 따듯해져 숙화는 배낭속에 고이 간직했던 다리아뿌리를 꺼냈다. 김치움에서 겨울을 내고 봄날에 사업소합숙마당에 심군하던 다리아를 너인은 여기 청학땅에다도 심자고 일부러 넣어가지고온것이였다.

다리아는 벌써 배낭속에서도 따스해진 봄기운에 몸을 씻었는지 재회색껍질을 터친 움작들을 뽕족뽕족 내밀고있었다. 움작을 보는 순간 너인은 빨리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꿉이를 들고 합숙으로 꾸린 귀틀집마당에 나가 꽃밭을 만드는데 청년들이 너인의 손에서 쟁기를 빼앗아냈다.

《여기도 다리아꽃이 필가요?》

《피지 않고. 피여두 더 굵게 피지. 꽃은 태양을 향해 더 높이 머리를 쳐들수록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런 때 호박꽃 《철학》을 쏜 태석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저녁 숙화는 작업총화모임에서 풍력발전기 문제를 자기가 맡겠다고 하였다. 봉길이가 풍력발전기를 걸고 태석이의 비위를 상하게 했으니 응당 어머니인 자기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이런 분담을 구실로 태석이를 찾아 사업소에 갈 걸음을 자연스럽게 만들자는데도 있었다.

숙화는 다음날 청학골을 떠났다. 용무는 풍력발전기 자체문제이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태석이를 데리고 올 결심에서 급히 내짚은 걸음이기도 했다. 저녁녘에 사업소에 닿았는데 태석이는 없었다. 행처를 알아보니 그제 읍에 갔지만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태석은 밤이 이슬해서야 합숙에 들어섰다. 그는 합숙방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숙화를 본 순간 나드느문을 전채 한동안 굳어진듯 서있기만 했다.

《읍에 갔던 일은 잘됐나?…》

태석이는 굳어진 몸을 풀고 의자에 와서 앉았다. 숙화는 자기가 찾아온 용무를 간단히 말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청학골로 가자고 들이대었다.

《찾아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내린 문젠데…》

《어쨌서 문제를 심각히 끌고가며 그래.》

《심각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절 찾아왔겠습니까. … 어머니까지 이젠 걸음을 했으니 이 태석은 벌써…》 여기서 태석은 문득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한마디로 저는 청학골을 잘못 생각하고있었습니다.》

《?!》

숙화는 놀라며 그의 말을 뇌여보았다.

청학골을 잘못 보았다니… 이런 변이 있는가.

봉길이의 말이 정말 옳았던말인가. 플판조성의 첫걸음부터 애로가 막아나섰다. 앞으로 수백정보의 플판을 조성과 수백마리의 집짐승을 확보하고 황포환 자연의 변덕을 이겨가며 키워가자면 앞으로 난관이 한두가지 아닐것이니 이 청학골에 있다가는 위훈은 커녕 고생만 차례질것 같으니까 떠나왔단말이지. 생각할수록 숙화는 기가 막혔다.

《태석이, 정 이러겠어!》

돌연 녀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맵짠 음성이 튀어나왔다.

태석이는 너무도 돌발적으로 바꾼 그의 음성에 두눈을 휘둥그레 뜨고 한참이나 허둥거리었다.

《난 태석이한테 그 무슨 구절을 하자고 온것이 아니야. 이제 보니 모욕을 받은것은 내가 아니라 나야 나! 얼마만이라도 청학골이 꾸러졌어도 모르겠어. 첫발자국부터 마음이 들떠서 왼팔을 찾아보려고 하니… 난… 너무해.》

《사실 저두 청학골에 땀과 노력을 바쳐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려는 꿈을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뜻대로 되지 않을바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마음붙이기는 험참지만 그럴수록 서로 뜻을 합쳐야지 제마끔 제멋대로 해서야 무슨 큰일을 치겠나.》

숙화는 청학골과 맺어져있는 사연많은 이야기들을 한순간에 태석이한테 어떻게 말해주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따끔한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청학에 가보니 한당대 파먹어도 빈김치독이라는거겠지.》 숙화는 태석이를 흘겨보듯하고는 그가 더 무슨 말을 못하게 재차 말을 했다.

《태석이는 떠나왔어도 네가 발기한 풍력발전기는 지금 한창 건설되고있어. 청학골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머리는 태석이처럼 돌지 못해도 청학골을 다 제 고향처럼 여기고 육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것이 다 건설되고 전기가 광광 생산되면 태석이를 두고 사람들이 무엇이랴 말할것 같애.》

《전 그런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어야지.》

숙화는 그루를 박듯 짚어말했다.

《어머니, 그래 이 태석이가 청학골에다 뿌리를 내리는것이 무서워 뺄소니를 쳤다는겁니까?》

《그보다도 명예때문이겠지. 언제 열매를 따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디서건 위훈이 기다리는곳은 없어. 제 힘으로 창조해야지. 그래 찾아보니 어때?》

《…》

《아직 못찾았다는거지. 아마 이 땅을 다 살살이 뒤져도 그런곳이 쉽게 걸리지 않을거야.》

숙화의 말은 태석이의 마음속 아픈곳을 정통으로 찌른것 같기도 하였다.

사연많은 청학땅을 떠 나온 태석이한테 너무 가혹하게 분풀이를 들이댄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은연중 숙화는 이제 태석이가 청학땅으로 되돌아서지 않으면 어찌랴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혔다. 그가 사내답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청학골에 가겠어요!》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윽해서야 녀인은 태석이를 향해 시선을 옮기며 나직이 말하였다.

《난 가겠어…》

혹시나 《함께 가요.》하며 따라나설줄 알았던 태석이의 입에서는 놀람이 튀어나왔다.

《이밤에 말이예요?!》

《래일 아침을 풀어야 해.》

《못갑니다.》

태석이의 성미는 비로소 살아오른듯싶었다.

《거기가 무슨 옆집이라고 이제 간다고 합니까.》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재차 못간다고 막아나섰다.

숙화는 태석이한테서 바랐던 모든것이 허물어지며 온몸이 다 나른해졌다. 정말 붙잡는대로 여기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은 다음에 떠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이밤을 여기서 도저히 새울수 없었다. 어떤 험한 일에 닥쳐도 가야 했다. 태석이를 위해서도 이밤에 가야 했다. 그가 언제인가는 반드시 제발로 청학땅을 찾아오리라라는것을 스스로 믿게 되는 속화였다. 그가 바로 청학땅을 하루빨리 찾아올 날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숙화는 어려워도 이 밤길을 가려고 나섰던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숙보면 안돼. 내가 나서자란 고향땅인데 무서울것두 없구 또 이밤에 못갈것두 없어.》

숙화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뒤를 붙잡듯 태석이 웨쳤다.

《못갑니다!》

《간다는데...》

《차! 차!... 래일 새벽에라도 가십시오.》

《새벽...? 아니 제 고향인데 뭐가 두려워서.》

성큼 걸음을 내디디었다.

정작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자니 등골에서 땀이 흘렀다. 태석이와 헤어져 한 십리를 왔는데 문득 등뒤에서 인기척이 울려왔다. 밤길에 이런 산골에서 제일 무서운것은 짐승보다 인기척이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어머니-》

간간히 들려오는 낮익은 목소리다. 고요한 골안에 울렸다.

《어머니, 어머니...》 연방 불러댄다. 순간 녀인은 쟁걸음을 놓던 몸을 다시 말뚝처럼 박아놓고 소리가 울리는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머니- 서요!》

(어마나?! 봉길이가...?)

분명 봉길이었다.

아들이라고 확인한 그 순간 벌써 봉길이는 둘째바람처럼 뛸 날아와 어머니품에 매달리었다.

《어머니, 그렇게두 못들어요.》 하고 기뻐서 날뛸듯하고는 말하였다. 《용서해요. 어머니, 나때문에 또 고생을 했지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못한 숙화여서 그의 뜨거운 숨결에 가슴이 그들먹이 고여올랐다.

《헌데 넌 어디서 날아왔느냐?...》

《어머니가 떠난뒤 인차 따라섰는데 찾지 못했지요 뭐. 어째서 어머니가 어려운 걸음을 했는지 난 다 안단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라서면 또 속썩일것 같아 몰래... 뒤따라 왔했어요.》

《너석두...》

녀인은 짝 붙잡은 아들의 손아귀에서 풀려나며 가볍게 웃었다.

《어머니, 무섭지 않아요?》

《그래 넌 무섭지는 않던?...》

《무섭기야 뭐. 나야 이미 앞에서 어머니가 간다는것 알고 걷는 길인데...》

《내가 있으니 무섭지 않단말이지.》

《그래요.》

《나두 무섭지는 않더라. 내가 이 청학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다구. 너를 업구 걸은것만두 이런 밤이 여러번 돼.》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좋은 밤길이었다.

문득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을 건네었다.

《태석동무한테도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했다구.》

《태석이한테...?》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붙잡은 먼저 제가 일켰으니깐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만아들을 키울 때도 미처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 온몸을 휩쌌다.

《고향이 좋긴 좋구나. 청학에 오면서부터 너는 정말 어른이 다 됐어. 호호호.》

별빛이 골안에 쏟아져내릴듯한 밤하늘에다 그는 고개를 제끼고 웃음을 뽐어올리었다.

이윽고 그들은 《할딱고개》를 넘어서고 해묵은 잡관목투성이인 골안의 오솔길에 막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꿈속에서처럼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 모자는 놀라운 시선으로 마주보았다.

또다시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온 합숙이 자기때문에 떨쳐나와 고생하는것만 같아 미안한 생각이 가슴에 서려들어 숙화는 사방을 휘돌러보았다.

《어머니, 태석형님 같아요!》

봉길이가 환성을 지르듯이 말해서야 녀인은 귀를 도사린채 그 《어머니》 음향이 또다시 울려오기만을 기다리었다.

그가 이밤 따라섰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헛된 미련처럼 여겨졌다.

《웬 태석이라구 그러니.》

《태석형님이 분명해요...》

《태석이가 무슨 흥길동이라구 이밤 나타나겠니. 생각에 미치면 없는 소리도 들릴 때가 있지.》

서로 착각한것 같은 기분에 말려들어 얼마간 걸어가는데 등뒤에서 투덕투덕 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둘은 엉겁결에 고개를 돌렸다. 태석이었다.

《아니?!...》

《태석형님!》

그들 모자는 거의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태석이의 등에는 목직한 배낭이 지워져있었다. 업에서 며칠전에 구해온 풍력발전기부속이었다.

봉길이가 태석이의 배낭을 앗아내듯 벗겨들어 메는것을 보며 숙화는 기뻐어린 어조로 말하였

다.

《오늘밤에 웬 흥길동이가 이렇게 많음...》

그저 기쁨이 밀려오기만 하였다. 다 이밤을 이겨내고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

《글쎄 태석이한테라구 선밥을 먹였잖나.》

늘 제 손으로 지은 따끈한 한가마밥을 먹이며 지내온 생활의 보람이 비로소 가슴속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여올라 숙화는 이 밤길이 좋기만하였다. 기쁨만이 고여오르는 이밤 숙화의 생각은 갈수록 깊어졌다. 얼마전에는 아들 봉길이가, 오늘 저녁에는 태석이가 그렇게도 못간다고 붙잡던 청학골에로의 이 길을 바로 지금은 그들과 나란히 한뜻이 되어 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라나선 그들의 가슴속에 참된 삶의 넋을 고이 심어준 궁지와 보람이 더더욱 새롭게 안겨왔다. 《어머니!》이 소박하고도 성스러운 말속에는 자기의 온 심혼을 기울여 키우고 자래운 너인의 깊은 뜻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불디불은 꽃과도 같이 만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것이다. 마치 친형제와 같이 웃으며 다정히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숙화는 태양의 빛발아래 붉게 피어나는 꽃과도 같이 우리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곳곳이 자라나도록 이 땅의 자양분을 한껏 뽑어 주리라 마음다졌다.

한해가 지나고 또 가을이 왔다.

올해따라 풍요한 가을은 청학골등판에도 기쁨진 생활을 넘치게 하였다. 집집승우리가 지붕꼬깔까지 멋지게 쓰고 솟아났고 여기저기서 양, 염소, 젖소들이 제나름의 영각을 뿜으며 가을날의 흥취를 한껏 돋구어놓고있었다.

예로부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컬었는데 정말 그럴데가 없었다. 하늘이 창창 열린 그 등판의 풀판우에서 살이 몽실몽실 진 집집승들이 한가히 풀을 뜯어먹으며 등판의 정서를 더욱 짙게 하고있었다. 기사들, 작가들, 촬영가들, 화가들... 지어 이즈막에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올라오는 《방식상학》청강생들을 위해 숙화는 땀이처럼 돌아쳤다.

젖을 짜는 처녀들도 늘 젖은 앞치마를 말리울 새없이 두르고 손님들을 봉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처녀들은 우유를 한고뿌씩 권하고는 꼭 한마디씩 하는것을 잊지 않고있었다. 《청학골등판우유맛은 어느것과 다르답니다. 여기는 예로부터 산삼이 유명한 고장이니까요.》이 청학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숙화가 옛말처럼 해준 그 약방집 처녀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어제와 오늘날이 아닌 래일을 안고사는 사람만이 당당히 말할수 있는 옛말이고 자랑이었으며 또한 궁지고 행복이었다.

아침에 갑자기 사업소로부터 전화가 왔다. 모든 성원들은 등판에서 떠나지 말라는 지시였다. 숙화도 이번만은 위생복을 벗고 식당일을 어느

사람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강조되어있었다.

풍력발전기설치, 짐승우리건설, 등판개간, 그 어느데나 숙화의 땀방울이 깃들지 않은데가 없었다.

장마철 깔따귀가 못살게 굴 때 숙화는 어데 가서 구해왔는지 신기한 단지를 내놓으며 《옛날 우리 봉길이 할머니한테서 배운걸 좀 써보자는거야》 하며 그안에 물을 바르라고 하였다. 깔따귀는 다 쫓겨갔는지 사람들은 단꿈만 꾸며 여름밤을 보냈다. 그 신기한 약물은 숙화가 풀안을 뒤지듯하여 찾아낸 몇종의 약초를 가지고 만든것이였다. 양과 염소, 젖소와 같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우리에서 숙화아주머니만 보면 영각소리를 높인다. ...

한낮이 가까울무렵 지배인이 중앙에서 온 한 일군을 데리고 등판에 올라왔다. 지배인은 다리아꽃이 만발한 숙소마당에 사람들을 집합시켰다. 일군은 말하였다.

《...

동무들, 중앙텔레비죤촬영가들이 찍어올린 현지도도 록화물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청학골을 훌륭히 꾸려놓은 동무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만세의 환호성이 축포처럼 터져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환호성을 울리는 사람들의 불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숙소마당가에 곱게 핀 다리아꽃을 주위있게 보시고 해발고가 매우 높은 청학골등판에 저렇게 꽃이 피여넘치니 생활도 량만적으로 넘치게 되고 당이 바란 의도도 현실로 꽃피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꽃을 가꿀줄 모릅니다. 저렇게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험한 등판도 훌륭하게 개간하였습니다.》

나는 저렇게 생활을 가꾸며 창조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반드시 청학골에는 인간을 사랑하구 그들의 마음을 꽃처럼 가꾸기에 애쓴 사람들이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찾아 꼭 자신의 감사를 전해주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 생활의 터전을 가꾸는것은 사람의 응당한 본분인데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높이 내세워주시고 감사까지 보내주시니 그 은혜, 그 믿음,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한단 말인가...

태석이는 봉길이의 손을 짹 짹 들어잡고 몸만 떨었다. 숙화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받고있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숙화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

빠하였다.

《누가 다리아를 심으며 그랬던가요. 꽃은 태양을 향해 머리를 더 높이 쳐들수록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말이에요... 래년에는 이 등판에 더 많은 붉은 다리아꽃을 피워놓자요. 태양과 제일 가까운 등판이 여기 청암땅이라는것을 이 세상에 대고 말할수 있게 말이에요.》

그들의 열기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듯 쪽빛 하늘가를 치받고 서있는 풍력발전기는 날개를 췌췌

돌리며 더 한층 바람을 일쿠고있었다...

그로부터 한달후, 청학등판에 첫서리가 내리었다. 해발고가 높아선지 강서리였다.

하지만 숙소마당가에 핀 다리아꽃들에서는 싱싱한 물기가 흐르고 붉은 광채를 뿌리었다. 이 땅에 깊이 내린 뿌리에서 어머니의 젖줄기와도 같은 대지의 자양분을 끝없이 끝없이 빨아들이기에...

-리만에서-

어머님의 글발

량육

백두밀영고향집앞

청아한 소백수 흐르는 물가에

내 걸음 멈추고

승엄히 바라보는 글발

가슴 뭉클 젖어오는 글발

세월의 풍상이 수없이 스쳐지나갔건만

활달하신 그 글체 생생히 살아오르는

김정숙어머님의 낯익은 글발

발목을 묻는

락엽과 이끼를 헤치면

어머님의 자옥이 여전히 찍혀있을듯

해묵은 구호나무에

귀를 가까이 대이면

어머님의 숨결소리도 들려올듯

아 지역의 눈보라속에서

수령님따라 원쑤와 싸우며

조국이 것처럼 그리우셨던 어머님

조국땅에 발을 옮겨놓으시니

3천리강토가 한가슴에 안겨오는듯

진정할길 없는 마음 안고

지새우신 그밤의 심중의 흔적이런가

가랑잎을 덮고 쪽잠에 드실 때도

꿈마다 달려가시던 강산

만나보고싶으셨던 그리운 형제들

그 조국땅을 처음 찾으시며

하고싶은 말씀 그 얼마나 많으셨으랴

허나 그 많은 사연을 하나로 모아

말없는 이 나무에 새기셨구나

망국의 어둠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 계시여 광복의 날을 믿는

인민들의 가슴에

이 글발로 희망의 별을 새겨주셨구나

수령님을 모시고

사령부를 지켜

천신만고 달게 여기시며

걸어오신 혈전의 자옥자옥

굳혀오신 그 신념

사선을 헤쳐가는 지하공작의 길에서

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수령님을 보위하신

준엄한 결전의 그 언덕에서

꽃처럼 붉었던 너장군의 그 신념

그 신념을 해발로 펼치며

3천리를 비친 빛나는 글발이여

이 글발에 받들려

백두산장수별은

향도의 태양으로 찬란히 빛을 뿌렸거니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 계시여

우리의 승리가 있고

광복의 그날이 있고

참다운 내 나라의 력사가 있다는

혁명의 그 진리를

조국의 력사에 새겨주신 어머님

세월과 세월을 넘어

위대한 이 글발이 숨쉬고있는

그 숨결과 더불어

이 글발에 비끼

신념의 눈빛

희망에 넘친 그 밝은 미소와 함께

아 김정숙어머님은

충성의 위대한 귀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여라

조국과 온 누리에 빛나는

백두산장수별의 해발로 영생하시여라

한 중간역의 꽃과 샘물을 두고

고병석

나는 사업상용무로 하여 자주 동해의 한 중간역으로 가군한다.

휴양소처럼 문명하고 아담하게 꾸려진 철도역이다. 봄, 여름은 물론 가을과 겨울철도 가림없이 일년내내 온실과 화원에서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마당에는 땅속 깊은곳에서 솟구쳐오르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을 받아담은 우물까지 있어 언제 찾아가보아도 마음 끌리는곳이다.

그래서 이 역에서 열차를 타거나 내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즐거운 마음, 상쾌한 기분에 잠겨들어 노래 절로, 웃음 절로 나온다고 한다.

머칠전에 찾아갔을 때에도 나는 그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열차를 타려고 개찰구안에 들어선 손님들은 먼저 우물가로 옥- 밀려들었다.

새하얀 콘크리트로 방틀을 두르고 네면을 막아세운 유리벽우에 비막이 지붕까지 씌워놓아 정갈하기 그지없는 우물이다.

손님들은 번쩍거리는 알루미늄드레박으로 물을 찰찰 넘치게 떠올려 마시기도 하고 물병에 가득 넣기도 하며 즐거이 떠들어댔다.

《자, 어서 먼저 맛보십시오. 더위로 답답한 가슴이 단박 확 열릴겁니다.》

이고장 태생인듯한 한 청년이 드레박을 손님들에게 내밀며 자랑삼아 하는 소리였다. 거기서 한 고뿌 물을 떠마시고난 중년의 손님이 말을 받았다.

《정말 그렇소. 가슴도 쫄하고 머리도 거뜰해지오. 약수 못지 않소.》

《가만, 그 물 우리 군대아들 먼저 좀 먹입시다.》

갑자기 이러며 한 녀인이 손님들을 비집고 들어섰다. 그뒤에는 청년근위대복장을 한 중학생이 시뭇이 웃으며 서있었다. 훈련장으로 떠나는 길인듯했다.

《하, 이 아주머니 수가 높다. 군대래서 정말 군대인줄로만 알고 제격 순서를 양보하고보니 군대사촌인걸. 하하하.》

모여선 손님들도 모두 유쾌히 따라웃었다. 녀인이 다시 이런 말을 했다.

《옛적부터 이 에미들은 싸움터로 떠나가는 아들들에게 고향의 샘물을 떠다먹이며 이기고 돌아오라 부탁했지요. 우물을 보니 그 생각이 나서 내 새치기를 하는거예요.》

《그런 새치기라면 양보한게 아쉽잖수다.》

또다시 우물가에 웃음소리가 들썩했다.

즐거운 분위기는 역구내의 꽃밭둘레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어넘쳤다. 한쌍의 청춘남녀는 장미꽃 덩굴우에서 노는 꿀벌과 나비를 재미나게 바라보면서 차탈 생각을 잊은듯하다가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를 듣고서야 급히 열차에 뛰어올랐다.

열차에서 내린 손님들 역시 그러했다.

그들도 우물이며 그 주변의 화분들과 꽃밭을 찬탄의 눈길로 돌아보며 떠나기 아쉬운 걸음으로 천천히 개찰구를 나서군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려객열차가 오고갈적마다 이 역구내가 유원지나 명절날과도 같이 흥성이게 됨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이 역에 특이한 꽃과 샘물로 해서이다.

꽃과 샘물! 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정서롭게 감수되는것인가.

자연속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자연의 한 산물이고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장소에 가져다놓으면 끝없이 밝고 감미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꽃과 샘물인것이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불려오는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줄뿐만아니라 맑고 깨끗이 정화도 시켜준다. 그래서 꽃을 보고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다.

샘물 또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필수적이고 긴요한것인가. 더구나 목마름과 더위가 불거진 여행길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동반물이기도 한것이다.

한마디로 꽃과 샘물은 사람들의 심신을 기쁘고 거뜰하게 하는데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작용을 하는 자연의 두가지 진귀품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꽃과 샘물이 어떻게 되여 이 중간역의 한 마당안에 같이 마련되여 이채를 띠고 있는가?

화강석포도를 천천히 밟아가던 나의 발길은 역사 오른쪽에 높이 다듬어세운 사적비앞에 이르렀다.

경건해지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화강석비돌을 쳐다보니 거기에 새겨진 글줄들이 천세만세 못잊을 사연들을 전해주며 나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두드려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느해 여름, 이 중간역

에만 하여도 무려 세차레나 찾아오시여 우리 인민의 려행길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역사를 늘 깨끗이 거두고 꽃을 잘 피워 려행하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며 우물도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여 손님들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라고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손수 드레박까지 마련하여 보내주시었다. ...

인민을 위한 령도의 자욱우에 빛나게 수놓아진 불멸의 업적을 읽으며 나는 오래동안 그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것은 참으로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아니, 전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뜨거운 이야기이다. 과연 력사에 기록되고 인간의 기억속에 뚜렷한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 그 어느 령도자가 이처럼 고결한 인간애를 지니고 인민들의 평범한 려행길까지 극진히 보살펴준 일이 있었는가. 확인하건대 나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아무리 다심하고 자애로운 친어머니일지언정 길떠나는 자식들의 가방안에 음식꾸레미는 넣어주어도 려행길에 목추길할 물걱정, 고운 꽃들을 피워 즐거움을 보태어줄 걱정까지는 이루다 해주지 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의 《인민행렬차》를 그대로 이어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친어버이도 따르지 못하는 세심하고 지극한 은정으로 인민들의 려행길까지 념려해주시며 려행길이 흥겹도록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다.

나의 이런 생각을 반증이라도 하려는듯 이 역에서 좌상으로 존대받고있는 화물원아바이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늘 꽃속에 묻혀 일하며 목마를 때마다 저 물을 먹어서 그런지 내 환갑나이가 다 됐지만 늙는

줄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젊을적 한가지구요.

원래 이고장은 모래산과 소나무밭 경치가 소문났으나 지난날 그 좋은 경치가 인민을 위해 꾸러졌거나 리용된건 눈썹만큼도 없었지요. 난 지금도 해방전 일본놈들이 서울의 어느 공원에 가난한 조선사람은 드나들지 못한다는 표쪽을 써붙였다는 말을 상기할 때마다 이가 갈리구 주먹이 후들거려 못견디겠습니다.

벼락맞을놈의 세상이었지요.》

나는 속으로 되받아외웠다.

오늘과 같은 우리 세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이 있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이 꾸러지고 이룩되는 이 땅우의 우리 세상,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이 하늘로 떠받들리우며 수령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산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타고나시였으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락으로 여기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인덕의 결과이다.

하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락원인 우리 나라는 곧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이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지는 모든 영예와 행복은 그이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꽃이며 열매이다.

나는 내가 주어진 우리 세상,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 역에 마련해주신 꽃처럼 아름답게, 샘물처럼 맑고 다함없는 그이께 충효일심을 다해가리라 굳게 다짐했다.

명언해설

《어려울때 충신을 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 충신인가 아닌가 하는것이 검증된다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충신이란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혁명전사를 이르는 말이다. 평범한 나날에는 충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평시에는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렵지 않게 수행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단두대에 올라서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신념과 의리를 지켜 견결히 싸우는 충신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치적생명을 저버리는 변절자, 반역자도 나타나게 된다는것을 력사는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했던 항

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신변에 위협이 닥쳐온 순간 자신의 한몸으로 우박치듯 쏟아지는 적탄을 막아나서시였고 대오안에 배신자, 변절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일신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놈들을 단호히 적발폭로하고 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그 어떤 모진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참다운 충신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

《우끼시호마루》 선원의 수기

리명균

지난 봄이었다.

반백이 넘어보이는 한 동포가 편집부에 찾아왔다. 그 사람은 두루말이로 된 원고묶음을 내놓으면서 신중한 안색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원고는 우리 집 뒤뜰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가 나무모를 심겠다고 울타리결에 구멍이를 뚫는데 그리 깊지 않은 곳에서 구식의 대형 보온병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었던 모양으로 보온병은 심하게 녹이 쓸어 어떤 물건인지 형체도 잘 알아볼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파낼 때 곡괭이 날에 맞아 보온병은 깨어졌는데 뜻밖에도 그속에 바로 이 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잉크빛이 퇴색되어 가려보기가 어렵고 또 일본문자로 씌여졌지만 한글자한글자 읽어보니 우리 동포가 쓴것이 확실하고 내용으로 보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담겨있었습니다. 경솔히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묶음을 풀어보니 원고지가 아니라 낡은 백지에 락자를 섞어가면서 급히 쓴 글인데 검누렇게 변색되고 거의 매 장마다 험하게 얼룩이 진것이 매우 장구한 기간을 경과하였고 또 습기의 피해를 많이 입었음을 알수 있었다.

《이 원고가 보온병속에서 나왔단말입니까?! 참 진기한 일입니다.》

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제 곧 읽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참,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고 주소는…》

나는 송현모라는 그 동포의 이름과 시교외에 있는 그의 집주소를 탁상일지에 적어넣었다.

나는 송현모동포에게 거듭 사의를 표시하고 돌아가는 그를 정중히 배래워준 다음 그자리에서 원고를 읽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장도 거칠고 조잡한 편이었으며 글씨도 난해하였다. 그러나 나는 읽기 시작하자 한번도 원고를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날밤중으로 다 읽었으며 즉각 출판에 회부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바로 그날은 일본정부 총무청의 한 고관이 오만불손하게도 일본의 조선지배는 침략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것이며 긍정면이 많았다고 폭언을 던진 날이었다.

그 폭언을 들은 우리 재일동포들은 누를수 없는 격분과 함께 군국주의 망령이 결코 먼곳에 있지 않다는것을 실감하였다.

이 원고는 군국주의에 대한 경고장파도 같은 내용을 담고있었다.

원고는 다음과 같았다.

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씌여있는 내용은 모두가 엄연한 사실이다.

1945년 9월 26일 새벽 3시 조선으로 가던 5,000톤급 수송선 《우끼시호마루》호가 침몰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문들에는 부선장 쓰까다 가쓰지의 다음과 같은 담화가 발표되었다.

《…시모다데항을 출항하여 조선으로 향하던 5,000톤급수송선 <우끼시호마루>호가 조난을 당한 곳은 오가반도 동북방 40마일 수역이었습니다. 배는 침몰되어 종전과 함께 귀국의 길에 올랐던 4,700여명의 조선인들중 반수가 넘는 승객과 많은 선원들이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조난의 원인은 기관고장이었습니다. 구체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날씨가 심히 불순하였고 또 불의에 당한 일이여서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구체작업을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시던 선장 이즈미 데쓰조씨도 순직하시었습니다.

선박의 부선장으로서 저는 유가족들앞에 실로 면목이 없는바이며 이에 널리 사죄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현실기만이며 후안무치한 언어유희이다.

《우끼시호마루》호의 선원이며 시모다데항으로부터 침몰수역까지 배에 있었던 나는 침몰전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체현한바그대로 사건의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한다.

패전과 함께 군국주의는 분쇄되었으나 그 잔당은 소멸되지 않았다. 만약 방임된다면 그들은 부활되어 조만간에 일본땅을 다시 뒤덮게 될것이다.

(이 글은 응당 조선문자로 씌여져야 할것이지만 내가 아직 조선말을 모르므로 부득히 일본문자로 썼으니 독자들은 양해하여주기 바란다.)

1

1945년 9월 24일저녁, 바다우에 적자색 노을이 퍼지기 시작하였을 때 나, 하야시 이찌로는 쓰까다 가쓰지부선장에게서 이런 훈시를 들었다.

《너는 우리의 패전을 어떻게 리해하는가? 야마도정신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자는 아닌가?》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그에게 만족을 줄수

있고 이 란폭한 상관에게서 불필요한 추궁이나 욕설을 받지 않겠는가 하고 궁리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어제 우리 형인 쓰까다대좌가 자결했다. 하야 부사를 타고 네무로상공에서 태양을 향해 부상하다가 산화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쓰까다 가즈히꼬해군대장과 이종형제간이다. 쓰까다대장은 특공대의 발안자의 한사람이다. 특공대야말로 야마도정신의 정화이며 이번 전쟁의 꽃이었지. 쓰까다대장도 물론 자결했다. 형은 자결하기전에 나에게 <너는 언제 죽겠는가?>하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야마도민족의 재생을 본 다음에...> 형은 랭소했다. <죽음이 두려운가? 비겁한 새끼!> 그러나 나는 내가 아니라 자결의 길을 선택한 형들이 비겁했다고 생각한다. 자결은 재기부능의 무기력자들의 마지막 애가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권토중래> 라는 말을 아는가? 일본군은 패했지만 야마도정신이 사멸한것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우끼시호마루》호는 시모다데항의 방파제안에 닿을 내리고있었다. 해군소속의 5,000톤급수송선인 《우끼시호마루》호는 패전과 함께 군소속의 표식을 뜯어버렸는데 귀국하는 조선인들의 수송에 동원되라는 지령을 받고있었다.

쓰까다부선장과 내가 서있는 조타실의 등근 창문으로는 부두를 하얗게 뒤덮고있는 수만명의 조선인들이 손닿을듯이 바라보였다.

《저것들은 이 일본땅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저리도 기뻐하고있다.》

쓰까다부선장은 웅얼거리듯 다시 되었는데 바투 짙은 머리, 다부진 체구, 침울한 눈은 성난 부르독크의 인상이었다.

《저것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며 너는 분한 생각이 나지 않는가? 나는 마음같아서는 저것들을 죽여버리고싶다. 저것들이 우리의 패전을 기뻐하고있단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것들을 우리 배로 날라줘야 하는 처지에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것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우리가 결으라면 견고 우리가 었더라면 었디였지. 우리가 죽으라면 죽고... 그런데 이제는 전승국행세를 하려든 단말이다.》

《저 사람들은 참 고생이 많았지요. 우리 나라에 끌려와 말그대로 마초처럼 고역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해방된 자기 조국에 돌아가고싶어하는 저네들의 열망을 리해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려는것을 나는 그 표현을 바꾸었다.

《저 사람들의 기쁨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안도감. 고역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희열이겠지요.》

《너는 조선인들을 동정하는자인가? 저것들은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반항하는 노예였다. 반항하는 노예, 쇠사슬에 묶이운 상태에서만 움직이던 노예, 쇠사슬이 끊어졌으니 이제 저것들은 우리의 무서운 적수로 될것이다.》

《적수라니요?! 그렇게까지야...》

《조선인이 적이라는걸 너는 모르는가? 나는 너를 뜻이 있는자로 보아왔는데 알고보니 빈통이구만... 조선인은 과거에도 적이었고 오늘도 적이고 래일도 적이다. 숙명적인 적이야. 조선은 우리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다. 그런데 그들은 발판이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 영원한 적대관계에 있는것이다.》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남의 나라를 발판으로 해야 할가요? 스스로 일어설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판이 있으면 쉬운것이다. 남의 어깨를 딛고 서면 훨씬 높이 올라갈수 있다는 리치를 모르는가? 총리대신이었던 다나카 기이찌대장은 조선인을 비료에 비유했다. 대륙개척의 비료라는 말이다. 비료나 발판이나 대동소이한 뜻이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이 사람은 참 위험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광인기질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엄청난 일을 저지룰수 있다.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룰수가 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대동아전쟁을 일으켰지. 아라끼, 도이하라, 이다가끼 고이소, 마즈오까, 미나미, 오오까와, 도조, 우메스를 위수로 하는 일본군국주의 수뇌들이 저마다 속옷보따리를 들고 전범자구치소로 끌려간것이 바로 며칠전의 일인데 아직도 이런자가 남았구나.

쓰까다부선장의 《불굴》의 포악성에 전율을 느끼면서 나는 문득 그의 리면생활에 대한 비화를 상기하였다.

선원들속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쓰까다는 33살까지 독신으로 있다가 결혼하였는데 결혼후 6개월되는 때에 불현듯 안해를 사살했다. 그 리유는 알려져있지 않다. 이 일로 해서 그는 10년형을 언도받았으나 비밀공사장인 기다자끼요새 건설장에서 3년간 현장감독으로 일하고 그후 남방전선에 출동하는것으로써 징벌을 대신하였다. 그가 《우끼시호마루》호의 부선장으로 나타날수 있는것은 가벼운 부상과 기다자끼 요새 사령관인 쓰까다 가즈히꼬 해군대장의 호의에 의한것이였다. 그런데 지난 정초 이즈미 데쓰조선장의 50돐 생일날에 초대되여갔던 그는 선장의 둘째딸인 도시꼬양을 보자 그 미모에 현혹되였다. 도시꼬양은 미술학교 졸업반인 아직 18살의 나 어린 녀학생이였다. 쓰까다는 이 나 어린 녀학생을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나는 도시꼬양을 안해로 맞겠소. 나는 결심하

면 리행하는 사람ियो.》

도시꼬는 아연질색하였다. 처녀는 이미 장년인 찌까다가 전혀 마음에 없었을뿐아니라 그의 안해의 죽음에 대한 비화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령리한 처녀는 정면으로 거절하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는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노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기다리겠소. 래일 우리 배는 오키나와로 가는데 두주일후에 귀항하게 되오. 그때까지 시간을 주겠소. 귀항하는 날 나와 도시꼬양은 함께 이즈미선장님앞에 나서게 되던가 함께 죽게 될것ियो.》

그런데 오키나와로 갔다오니 도시꼬는 집에 없었다. 언니네 집에 갔다고 하였다.

《그애한테 관절염이 있다우. 요사이 학교에서는 공부는 안하고 날마다 근로봉사대에 나가는데 도시꼬는 불편한 몸이라서 여간 힘들어하지 않았다우. 그래서 학교를 휴학시키고 료양삼아 마이즈루에 있는 언니네 집에 보냈어요.》

선장 부인이 설명하였다. 처녀는 몸을 피한것이었다.

찌까다부선장의 포악한 훈시에 경악을 느끼면서 나는 이 비화가 진실일수 있다는것을 깨달았으며 지난해 봄 사이판해역에서 그를 구출해준것이 과연 잘한 일이였겠는가 하는 의혹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다.

사이판섬 앞 20마일 해역에서 어뢰에 맞아 배가 침몰되었을 때 (그때 《우끼시호마루》호는 수리에 들어갔고 우리는 《규슈마루》호를 타고있었다.) 나는 내가 붙잡고있던 구명대를 수영이 능하지 못한 찌까다에게 양보하고 아무런 구명기구없이 대양의 사나운 파도속을 헤엄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올랐다.

지금에 이르러 오랜 기간 고역을 겪어온 불행한 조선인들의 웅대한 귀국을 그토록 질시하는 찌까다의 증오에 넘친 폭언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사나이를 목숨을 모험하면서까지 구출해줄 필요는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후회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그 일이 있은후 찌까다부선장은 나에게 각별한 신뢰감을 표시하였고 또 여러가지 편의를 보아준것은 사실이었다.

《군은 상급을 아는자이다. 이것이 내가 군을 신임하는 이유이다.》

2

9월 25일 오전 9시에 조선인들이 승선하기 시작하였다. 승선이 개시되자 부두에 대기하고있던 조선인의 바다가 움썩거리고 환호와 같은 소음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끝없는 장사진을 이루면서 배에 올랐다.

배가 넘치도록 승선하였다. 2시간 사이에 선실과 하갑판, 중갑판, 상갑판은 물론 짐칸들 사이

의 비좁은 구석에 이르기까지 립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찼다.

자리가 너무 협착하여 움직일수 없는 지경이였지만 사람들은 불만은 커녕 그저 기쁘다는 표정이었다. 승선의 행운이 차려진것만도 천행이라는 태도였다. 이제 배우에서 몇날만 견디면 그림고 그리운 조국땅에 가닿는다! 이미 배에 오른 사람들은 자리들을 더 좁히라고, 한사람이라도 더 오르게 하자고 고함들을 쳤다.

배는 홀수선이 수면에 잠길듯말듯 내려앉아있었다.

대부분의 《우끼시호마루》호 선원들은 배에 오르는 조선인들을 아무런 감정없이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전혀 반갑지 않고 환영할수 없는 손님들이라는 시답지 않은 표정을 하고있는 선원도 있었다. 그러나 승객들은 선원들의 기색이나 태도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기쁘고 즐거워하였다. 고향으로 가는것이다. 부모형제들이 그림고 다정한 친척들과 이웃들이 기다리는 고향마을로 돌아가게 된것이다. 이 지옥과도 같은 지긋지긋하고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자기들도 살아서 돌아갈 날이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꿈과 같은 날이 왔다.

머리 희끗한 이즈미선장은 생각깊은 담담한 안색으로 조선인들의 승선을 바라보고있었다. 잔주름이 잡힌 그의 눈귀에는 틀림없는 이슬기가 어려있었는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패배감과 체념, 피로감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부인할수 없는 동정이 뒤섞인 쓸쓸한 표정이었다.

승선은 계속되고있었다. 각각각색의 차림새였다. 대부분이 인부들, 징용군들이었으나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섞여있었다. 허리굽은 할머니, 젖먹이를 업은 아낙네...

마지막으로 한 환자가 담가에 실려 올라왔다. 담가우의 환자는 어찌보면 60이 넘는 로인갈기도 했고 어찌보면 50대 갈기도 하였는데 얼굴과 몸은 해골이나 다름없었다.

담가우의 환자를 보자 내곁에 서있던 찌까다부선장이 문득 혼자소리처럼 뇌였다.

《저게... 그자가 아닌가?!》

그의 낮은 이상스레 창백해졌고 턱이 경련하고있었다. 그것은 경악의 표정이었다.

담가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그 붐비는속에서도 좌우로 자리를 비키며 길을 열어주었다. 담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웅위되듯 떠받들리워 움직였으며 갑판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곳이 밤에는 추우리라는것을 고려한듯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4, 721명이 승선하였습니다.》

승객들을 세고있던 사께이라는 선원이 선장에게 보고하였다.

반시간후 부산장실에 들어간 나는 쓰까다부신장이 의자에 앉아 마치 녀름하는 도승처럼 눈을 꼭 감고있는것을 보았다.

내가 들어온것을 알자 그는 뇌였다.

《운명의 희롱이라는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본적이 있는가?》

《그건 무슨 뜻인지요?》

《담가에 실려서 올라온자를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그자는 나한테서 한달동안이나 고문을 받은자이다. 기다자끼 요새공사장에서…》

그자는 조선인 인부를 250명이나 탈출시킨자이다. 탈출조직의 명수이다. 기다자끼 요새공사는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다. 저런 인물이 배후에서 인부들의 태업을 추동하고 끊임없이 탈출을 조직한 까닭이다. 3,000명의 조선인 인부들중 근 10%가 탈출한 다음에야 우리는 배후인물이 저자라는걸 알아내고 체포했다. 그러나 저자를 죽이지는 않았다. 요새공사에 참가한 인부는 그 완공과 함께 전원이 없어져야 할 운명에 있었지. 그러니 미리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거다. 그런데 완공이가까왔을 때 저자가 돌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과연 비상한 수완을 가진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를 놓쳐버린채 나머지 2,700명의 조선인 인부들을 소멸해버리었다. 그런데… 저자가 오늘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단말이다. 이미 나에게 저자를 체포할 권리가 없을 때에… 이제 나는 저자를 배에 태워 저자의 조국으로 모셔다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게 운명의 희롱이 아니란말인가? 나는 오늘처럼 패전을 실감해본적이 없고 오늘처럼 자기 처지에 대해 굴욕을 느껴본적이 없다.》

《체념할수밖에 없지요.》

《체념? 아니다. 체념은 내 기질에 맞지 않는다. 참을수 없어. 나 쓰까다 가쓰지는 굴욕을 참지 않는다. … 그자가 어디에 위치하고있는지 가서 보고오라.》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부산장실에서 나와 중감판으로 내려갔다.

중감판은 천정이 낮고 조그마한 선창이 몇개 뿔려있을뿐 채광이 나빠 첫 순간 나는 눈앞이 어두워지는감을 느꼈으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담가우의 환자를 찾아낼수 있었다. 환자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활기에 넘친 이야기판이 벌어지고있어 쉽게 눈에 띄었기때문이었다. 그 환자는 비스듬히 일어나앉아 쇠약한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나직나직 이야기하였는데 두리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신중한 안색으로 귀담아 듣다가는 열렬하게 호응하기도 하고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내가 조선말을 몰라 그 흥떠운 담화내용을 알수 없는것이 유감이었다.

환자의 곁에 있던 가냘프게 생긴 한 처녀가 손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뚫은 땀을 씻어주었다. 보때 그 사람은 기력이 너무 쇠진하여 몇마디의 말을 해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상태인듯하였다.

나는 중감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듯한 외양을 하고 그 가까이를 천천히 지나갔는데 승객들은 선원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여기는듯 나에게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병자의 시중을 들던 그 처녀가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수그렸다. 나는 그 시선이 매우 낮익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순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녀성은 내가 아는 유일한 조선녀자였다. 안소영… 내가 특별히 관심하는 녀자…

뜨거운 걱정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의식하였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 돌아서 뚜벅뚜벅 걸음에 힘을 주면서 상감판으로 올라왔다.

애써 침착을 견지하려고 하였으나 가슴속에서 걱정의 분류가 소용돌이치는것을 억누를수 없었다. 저 녀자도 가누나! 조선사람들은 다 떠나가누나. 조선사람인 그 녀자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것은 응당한 일이였고 또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던바도 아니였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로 되어 배에 오른 그 녀자를 보자 나는 에이는듯한 아픔을 폐부에 느끼였고 애잡잘한 비애의 감정이 가슴속에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저 녀자와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누나! 이 배가 부산부두에 닿고 저 녀자가 내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 다시는 만날수 없을것이다. 저 녀성과 내 삶을 영원히 결합시키려고 꿈꾸었던만…

상감판에 올라와 란간에 기대선 나는 짙은 청록색으로 굵실거리는 해면을 바라보며 그 녀자를 처음으로 만나던 때 일을 더듬었다. (나는 여기에 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쓸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쓰지 않을수 없는 한도내에서 몇자 적으려고 한다.)

지난해 어느날이었다. 기다자끼 요새사령부에 연락을 갔다오던 나는 거리 입구에서 공습을 만났다. 《비29》의 대편대가 하늘을 뒤덮으며 거리와 교외의 요새사령부에 폭탄을 들붓기 시작하였다. 수백톤의 폭탄이 쏟아져내려오는것 같았다. 나는 마침 길가에 있는 방공호에 뛰어들었다. 방공호는 행인들을 위한 립시대피호인듯 겨우 5~6명이 들어앉을만한 작은곳인데 다행히 안은 비여있었다.

폭격은 계속되고있었다. 줄폭탄이 작렬하는 연속음에 귀가 멍멍해졌고 불바다로 변한 거리에서 구역구역 밀려오는 검은 매연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혔다. 문득 나는 다급한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발자국소리는 황급히 가까와지더니 저고리등에 불이 달린 체소한 사람이 대피호로 달려들어

왔다. 그 사람은 방독면을 쓰고 적십자표식이 있는 위생가방을 들었는데 자기 저고리등에 불이 달려있는것을 모르는듯하였다. 나는 지체없이 벌떡 일어나 두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대피호벽으로 콧 빠 밀치며 등뒤의 불을 흠뻑에 비벼서 껐다. 그 사람은 놀란 소리를 지르면서 항거하듯 세차게 나를 뿌리쳤다. 그러나 나는 다시 콧 빠 붙들고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그의 등을 흠뻑에 비비었다. 《당신 등에 불이 달렸소!》

이때에야 그 사람은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불이 다 꺼진 다음 나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내 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 사람은 방독면을 벗고 나에게 사과의 말을 하였다.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 송구스러워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가름한 얼굴, 매우 이쁜 눈의 처녀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이때에야 나는 그 사람이 여자라는것을 알았고 나의 행동이 포옹하는것과 흡사한 동작이었음을 상기했으며 민망스러움을 느끼었다. 《아, 이거 실례했소. 너무 란폭하게…》

내가 면구스러워하며 변명하듯 말하자 처녀는 고개를 수그렸다. 낮이 빨강게 상기되어있었다. 《아니예요. 제가 실례했어요. 제가 그만…》 이쁘게 생긴 눈에 수집음이 짙게 비끼는것을 나는 보았다.

폭격은 반시간나마 계속되었다. 대피호안에는 두사람밖에 없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있었으나 그이상 더 다른 말을 주고받지 못했고 서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방공호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깃들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런 말도 생각해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게면쩍게 헤어졌다.

그후 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런데 반년후 운명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다.

오끼나와섬이 《옥쇄》된 다음 적들의 본토상륙이 시간문제로 예견되고있을 때 나는 소형발동선을 타고 시모키타반도를 10마일 뒤에 둔 해역에서 기뢰부설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귀항하던 도중 적기의 기습을 받고 발동선이 침몰되었다. 소대의 절반인원이 적기의 직격탄에 죽고 나머지 절반인원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기지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도중에 거의 모두가 희생되었다. 출혈을 막지 못한 중상자들이 10마일을 헤엄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상을 당하고 또 육체적준비가 좋은 몇사람만이 기적적으로 헤어나올수 있었는데 다행히 나도 그속에 끼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생존자들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 실려갔다.

내가 의식을 차린것은 산소마스크를 쓴 상태에서였는데 내가 눈을 뜨자 곁에서 지켜보고있던 간호원이 반가운 소리를 질렀다.

《아, 소생했어요! 선생님, 이 환자가 눈을 뜨셨어요!》

간호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고 이쁜 눈에 기쁨의 물결이 찰랑거리는것이 보였다. 내가 소생된것을 이 낮모를 간호원이 이렇게도 기뻐해주거나 하는 고마움을 가슴 찢듯이 의식하였다.

나는 감사의 정을 품고 그 간호원을 주시하였는데 그의 류달리 아름다운 눈을 보며 나는 언제인가 길가 대피호속에서 만났던 여자를 회상하였고 이 간호원이 혹시 그 여자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었다. 이틀후 산소마스크를 떼고 침대에 일어나앉았을 때 나는 물었다.

《당신이지요? 그때 대피호에서…》

《그땐 참 고마왔어요. 그땐 일등병님이 어찌도 무섭던지…》

간호원은 방싹 웃었다.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여자도 나를 기억하고있었다. 하얀 위생복차림의 그 여자는 매우 청신하고 아름다웠으며 또 대단히 친절하였다.

퇴원하여 배에 돌아온 다음에도 나는 자주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저녁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여자를 찾아갔다. 그 여자는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에 용기가 배가된 나는 다시 찾아갔으며 날과 함께 찾아가는 회수가 잦아졌다. 그 여자는 언제나 한결같은 친절과 정다움으로 대해주었다. 나는 그 여자도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달후 나는 그 여자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나의 제기를 거절하는것이였다.

《어마나, 안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수 없습시다.》

나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의식하며 떠뜸떠뜸 말하였다.

《물론 저는… 아무 특별한 점이 없는 보통선원입니다. 소영씨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요…》

그러자 그 여자는 서둘러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 그런 뜻이 전혀 아니예요. 제가 그쪽의 의사를 받아들일수 없는것은… 제가 배우자로 될수 없는것은… 전… 전… 조선녀자예요…》

(그 여자는 안이라는 조선성과 비슷한 야스라는 일본성을 달고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에 근무할수 없었다.)

그 여자가 조선녀자라는것은 천만뜻밖이였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단지 그것때문에 내 청을 거절하는것이라면 나는 오히려 신심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런걸 개의치 않습니다. <내선일체>가 아닙니까!》

나의 말에 그 여자는 쓸쓸히 미소를 지었는데 철부지 어린아이를 대하는듯한 미소였다. 그 여자는 갑자기 나이를 열살쯤 더 먹은것 같은 사려

깊고 산전수전 다 겪은 너인의 표정으로 되는것이었다.

잠시후 그 여자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뇌었다.

《언제든지 전… 고향에 돌아갈것을 생각하고있어요.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믿어요.》

《소영씨만 거절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소영씨의 고향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쓸쓸하게 미소하였다.

《고향에는 고향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어떻단말입니까? 조선에도 일본사람들이 많이 가있지 않습니까?》

《…》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후 나는 스무번도 더 그 여자에게 자기심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답은 끝내 받아내지 못하였다. 일본인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있던 나의 요구가 관철될수 없다는것을 그때 나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다. 다만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동안에 내가 알게 된것은 안소영이 이따금 어디론가 갔다오곤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디에 갔다오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 여자에게는 말 못할 그 어떤 비밀이 있는듯하였다… 문득 곁에 누가 다가서는듯한 기척을 느끼었다. 돌아다보니 바로 안소영이었다.

《하야시상, 죄송해요. … 인사도 없이 달아나려고 해서…》

《조선사람들은 레절이 밝다고 들었는데요.》

《인사를 하고 어찌고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괴로울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마주쳤으니 부득불 인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군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하야시상을 잊지 않겠어요. 일본사람들가운데 하야시상같은분이 있다는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승선했습니까? 배에 오르는걸 보지 못했는데요.》

《하야시상이 갑판에 서계시길래 다른 사람들뒤에 숨어서 올랐지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담가우에 누워있는분은 누구니까?》

《언젠가 저더러 어데 갔댔는가 따지신적 있지요? 저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것 같다고… 그때 저는 오오히로 감옥에 면회를 갔댔어요. 오오히로 감옥에서 아버지가 무기징역수로 복역하고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분이 아버지입니까?!》

《아니예요, 아버지의 동지예요. 그분도 무기징역수였지요. 저의 아버진… 사망하셨어요. 감방에서… 바로 8월 14일 저녁에… 각혈을 하시고…》

《각혈?…》

《감옥생활 3년만에 폐결핵에 걸리셨지요. 끝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것처럼 고대하시던 해방의 날도 보지 못하시고… 하루만 더 견디셨더라면 나라가 해방되는걸 보셨는데…》

안소영의 맑은 눈에 금시 눈물방울이 맺히었다.

《…》

나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안소영은 굼실거리는 바다물을 굽어보았다.

파도는 높지 않았고 해빛을 받은 해변은 눈부시게 반짝이고있었다. 서늘러운 해풍이 불어오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지는것을 의식하였다.

안소영은 말을 이었다.

《담가에 누워계시는분은 황보상이라고 감옥밖에 있을 때부터 저의 아버지와 손잡고 투쟁하시던분인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감방에 있게 되었지요. 5년동안 하루같이 아버지의 병구완을 해주셨습니다. 자신도 팔병이 들어 걸음도 잘 걷지 못하시는 몸으로…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벌써 사망하신지 오랬을거예요. 전 어제 오오히로감옥에 가서 황보상선생님이 출옥하시는걸 모셔왔어요. 친아버지를 모셔오는 마음으로…》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나와 안소영은 서로 다른 기슭에 서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두 기슭은 너무도 아득하게 멀었다. 안소영이 아버지처럼 돌보고있는 그 환자를 쓰까다부선장은 그렇듯 불구대천의 원수로 증오하고있었으며 나는 어쩔수 없이 안소영이 아니라 쓰까다와 더 가까운곳에 서있는것이였다.

3

《우끼시호마루》의 출항시간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었다.

선원들이 느릿느릿 출항준비를 하고있을 때 나는 쓰까다부선장이 부른다는 전갈을 받았다.

부선장실에 들어가니 쓰까다는 아까와 똑같은 도승의 자세로 앉아있었다.

《불렀습니까?》

내가 묻자 부선장은 눈을 꼭 감은채 되물었다.

《그자가 어데 있는가?》

《누구말입니까?》

《내가 담가우에 있는자의 위치를 알아오라고 했지?》

부선장의 어조에는 노기가 어려있었다.

《아, 그 사람은 중감판에 있습니다.》

《지금 몇시인가?》

《15분전 13시입니다.》

쓰까다는 눈을 번쩍 뜨고 시계를 보았다.

오후 1시가 가까와오고있음을 알자 그는 움쩍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을 품은 사람의 마뜩지 않아하는 표정과 무엇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집요함이 어려웠었다.

《나를 따라오라.》

《어데로 갑니까?》

《따라오면 안다.》

뜨까다는 확고한 걸음걸이로 앞을 섰다.

그는 배에서 내려자 나를 데리고 뱃트에 올랐다.

《노를 저으라.》

뜨까다는 이물에 말뚝쪼처럼 서있었고 나는 고물에 앉아 그가 지휘하는대로 노를 저었다.

잠시후 뱃트는 등대가 있는 바위굽이를 지나 항만사업소의 갯도식 비밀창고가 있던 벼랑밑으로 갔다. 거기에는 씨름군같은 기관장 구보다가 대기하고있었다.

《준비되었는가?》

뜨까다가 짧게 물었다. 구보다는 허리를 굽혀하였다.

《실으라.》

구보다가 밀가루포대같은것을 손수레에 싣고 사뭇 무거운듯이 밀고왔다. 밀가루포대가 저렇게 무거울수는 없겠는데... 하는 의문이 들었고 또 밀가루포대같은것을 실어가는데 이렇게 부선장과 기관장이 직접 나설리는 없다는 판단이 떠올랐다.

포대를 뱃트에 옮겨싣었다. 포대는 매우 무거웠고 안에 나무상자같은것이 들어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선원은 상급의 지시를 리행하기만 하면 된다.》

《...》

《노를 저으라. 오던 길로 돌아가자.》

나는 노를 저었다. 뜨까다는 다시 이물에 말뚝쪼처럼 서있었다. 그는 부동의 자세로 서있었으나 용의주도하게 사위를 살피고있었다.

뜨까다는 《우끼시호마루》의 방과제쪽 선측으로 다가가라고 지시하였다. 뱃트가 접근하자 이미 갑판우에서 대기하고있었던듯 갑판장 마쓰시다가 즉시 기중기바지를 내려보냈고 지체없이 포대를 물어올려왔다. 과연 흥미있는 물건이다. 무엇이 들어있을가. 이 밀가루포대속에는? 하는 의문을 나는 다시금 느끼었다. 부선장, 기관장, 갑판장이 관제하고있다. ...

오후 2시 정각에 《우끼시호마루》는 닻을 올리고 시모다데를 출항하였다.

방과제가 가물가물 멀어지고 뒤이어 시모다데항이 수평선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배가 파도사나운 쓰가루해협을 극복하느라 오랜시간 허덕인후 오가반도가 멀지 않은 수역에 이르러 바다우에 어둠이 짙게 덮이였을 때 뜨까다부선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자기앞에 기척자세로 서있는 나를 사뭇

쏘아보는듯한 눈초리로 한참동안 주시하더니 말하였다.

《너는 검열된자이다. 나는 너를 신임한다. 그렇기때문에 내놓고 말하려 한다. 지금 우리 배에는 4,721명의 조선인이 타고있다. 나는 그들을 다 조선으로 건네보내고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4,720명만을 보내려고 한다.》

《?!》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가? 4,721명에서 4,720명을 빼면 한명이 남는다. 나는 그 한명은 조선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가 담가우에 있는 사람을 녀두에 두고있다는것을 직감하면서도 나는 물었다.

《그 한사람이란 누구니까?》

《내가 이미 말했지. 담가우에 실려온자, 나는 그자와 마지막 계산을 하려고 한다.》

살기가 느껴지는 뜨까다의 말에 나는 전율을 의식하였으나 침착하게 반문하였다.

《마지막 계산이라니요?》

《몇번이나 말해야 리해하겠는가? 그자는 이미 죽었어야 할자이다. 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는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권토중래>의 날을 내다 봐야 한다고 했지? 나는 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배는 이미 출항하여 조선으로 건너가고있고 그사람은 이미 배에 올랐는데 어떻게 조선으로 건네보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배머리를 다시 돌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소리... 그자가 없어지면 되는것이 다.》

《없어지다니요?!》

《소멸해버린다는것이다.》

《살해한단말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그자는 우리의 잠재적인 적수이다. 그자가 없어지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자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고 또 일본이 공개할수 없으며 부득이 취하지 않을수 없었던 특수조치들을 알고있다. 나는 7년전에 그자를 놓쳐버리었는데 알아보니 대동아전쟁개시 직전에 체포되어 오오히로 형무소에서 종전을 맞았다고 한다. 종전전에 그자가 형무소에 있다는것만 알았으면 간단히 처리하는것인데 변성명을 했기때문에 아는수가 없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그자는 다시 내 손안에 들어왔다.》

《...》

《너는 내가 왜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는가?》

《...》

《나는 네가 그자를 소멸해버릴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본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그자를 없애버리라. 이 밤안으로...》

나는 즉석에서 항의하였다.

《전쟁이 끝난 지금 그건 테로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잔혹한 살인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인도주의적견지로 봐서도 이미 종전이 된 지금...》

쯔까다의 얼굴에 땀방울이 비끼었다.

《너는 우리 일본의 재생을 원하지 않는가? 그자는 우리 일본의 재생을 위해 죽어야 할자이다. 인도주의니 잔혹이니 하는 단어들은 무기력한자들의 신음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

《결심채택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시간을 주겠다. 한시간...》

《시간은 필요없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살인행위에 참가할수 없습니다.》

《그 결심은 확고한것인가?》

《확고한것입니다.》

《변경시킬수 없는것인가?》

《변경시킬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조선사람들의 담벽으로 겹겹이 웅위되어 있습니다. 조선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사람을 은밀히 테로한다는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쯔까다는 눈을 찌프리고 한참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역시 도승과 같은 자세였다. 다만 도승들이 살생을 제일가는 금기로 하고있다면 이자는 오직 살생을 모색하고있는것이였다.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정반대의 사색을 할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쯔까다는 불쾌감을 억누르는듯한 어조로 뇌었다.

《그렇단말이지? 조선사람들의 담벽속에 들어있단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한명이 아니라 4,721명의 조선인모두를 소멸해버려야 할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도 이미 예상하고있었다.》

《예?!》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나는 이 <우끼시호마루>를 폭파시키겠다. 4,721명 전원을 바다물속에 수장시키겠다. 4,721명이 소멸되면 황보상의 문제는 스스로 무산될것이다.》

나는 모퉁이 송연해지는것을 의식하였고 이자가 혹시 발광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그를 주시하였다.

《배를 폭파시킨단말입니까?!》

《황보상과 그를 에워싼 조선인들을 소멸하기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많은 사람들을 살해한단말입니까? 5,000명이 가까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나는 경악하여 몸서리를 치며 되물었다.

《죄는 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황보상을 처리하는데 장애로 된다는 죄이다.

그리고 우리의 패전을 기뻐한다는 죄...》

쯔까다는 나에게 멸시의 시선을 던졌다.

《이 <우끼시호마루>를 폭파시키는데는 너의 도움이 필요없다. 나는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기뢰를 준비하였다. 출항전에 너와 함께 날라온것이 기뢰였다.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없다. 너는 이미 무용지물이다.》

《...》

《그렇다고 소동을 일으키면 안된다. 소동을 일으키면 너는 황보상보다 먼저 처리될것이다. 침묵하라. 침묵하면 목숨은 잃지 않는다. 우리 일본인선원 32명은 누구도 죽지 않는다. 뽀트 2척이면 충분할것이다. 뽀트 없어도 너는 수영명수이니 능히 헤어나갈수 있을것이다.》

4

쯔까다의 범죄음모는 너무도 놀라운것이여서 도저히 믿을수 없는것이였으나 엄연한 현실이였다. 기뢰까지 준비했으니 그자는 이미 모든것을 계획하고 모든것을 각오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런데 내가 그자를 도와 기뢰를 운반해주었으니?! 나는 그자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자의 범죄에 가담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이미 공동행동을 한것이 아닌가! 기뢰... 내가 운반해온 기뢰에 의해 《우끼시호마루》가 폭파되고 4,700여명의 조선인이, 안소영과 황보상이 살해되는것이다! 이 무슨 엄청난 범죄란 말인가! 이 무슨 중세기적 도살행위란 말인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음모앞에 아연질색하고 통탄하던 나는 한참후에야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음모에 타격을 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선사람들을 구원할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조선사람들이 음모가 있다는것을 미리 알고 그에 대항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안소영에게 알려주자. 그러면 황보상이 듣고 무슨 대응책을 강구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황보상은 경험있는 조직자이니 무슨 묘책을 찾아낼수도 있을것이다. 이 배에는 4,700여명의 조선사람이 타고있으니 그들을 쫓기시킨다면 강력한 반격을 가할수도 있을것이다.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밖은 캄캄하였다.

뒤설레이는 파도가 느껴질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흐리는지 별빛도 보이지 않았다. 오가반도가 가까왔으니 등대불이 눈에 띄움직하는데 등대불같은것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의혹이 떠올랐다. 배가 항로를 바꾸어 공해쪽으로 나가고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였다.

그럴수 있다. 공해 멀리로 나가는것이 범죄자들에게는 유리할것이다.

이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촉박감을 의식하면서 나는 중갑판으로 급히 달려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런 조급한 행동이 다른 선원들의 의혹을 살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애써 침착을 회복한 다음 될수록 천천히 소풍을 하는듯한 외양을 하고 계단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불렀다.

《하야시, 서라!》

갑판장 마쓰시다의 목소리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섬찍하게 의식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목소리가 울려온 어둑속을 응시하였다. 그러나 갑판장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경중한 키에 긴 팔이 균형이 잡히지 않아 마치 말이 두발로 서있는것 같다는 야유를 듣는 마쓰시다 당자는 보이지 않고 다시 추궁하는듯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거기서 무엇 하는가?》

《저는 지금 비번입니다. 소풍을 합니다. 선원 실안은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러면 여기로 오라.》

갑판장은 조타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밑에 웅크리고있었다.

《여기에 앉으라. 나와 함께 당직을 서자.》

《당직이라니요? 갑판장님이 이런데서 무슨 당직을 섭니까?》

《그건 이제 알게 된다.》

그의 수수께끼같은 말투 그리고 그가 부선장의 제일가는 심복이며 낮에 갑판기중기로 기뢰를 물어올렸다는것을 상기한 나는 이자가 여기에 우연히 앉아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이놈이 여기에서 감시임무를 수행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감시가 틀림없다면 쓰까다부선장이 음모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소영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에 바질바질 몸이 타는것을 느꼈다.

이놈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는 초조감에 모대기던 나는 이놈에게서 벗어나자면 이놈보다 높은 상관의 이름에 의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나는 선장을 생각하였다. 그렇지, 선장에게 가보자, 왜 이때까지 선장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즈미선장은 교정한분이니 쓰까다같지는 않은 것이다. 선장은 음모를 알고있을까? 선장에게 쓰까다일당의 음모를 알려줘야 한다. 선장은 부선장을 제어할 직권을 가지고있으니 그를 눌러앉힐 수 있을것이 아닌가. 안소영에게 알려주는것보다 선장에게 먼저 알리는것이 음모제지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또 응당한 순서일지도 모른다. 잠시 후 나는 시계를 보며 마쓰시다에게 말하였다.

《갑판장님, 선장실에 잠깐 갔다오겠습니다.

10시에 왔다가라는 지시를 받고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자 갑판장이 만류할 여유를 주지 않고 급히 선장실쪽으로 향하였다. 갑판장은 나를 쫓아보며 붙잡으려는 동작을 취하였으나 내가 중갑판이 아니라 선장실쪽으로 가는것을 보고는 더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선장실앞에 가 서서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뻗었을 때 누구인가 나의 뒤덜미를 짹겨머쥐었다. 돌아다보니 부선장 쓰까다였다.

《선장을 만나겠는가? 너는 나보다 뒤에 만나는 것이 좋다.》

부선장은 나를 와락 밀어제끼더니 손기척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선장실에 들어가 무려 한시간이나 지체하였다. 그들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은 두사람의 대화가 한시간이나 걸렸다는것과 담화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의 부선장의 격노한 표정을 보고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내가 선장실에 들어갔을 때 미리 희끗한 로션장은 낮이 하얗게 굳어진채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있었다.

나는 그앞에 5분동만이나 부동의 자세로 서있었다. 마침내 선장이 입을 열었다.

《용무를 말하라.》

《선장님, 저는 쓰까다부선장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장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선장님의 립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장의 립장은 명백하다. 자기 배를 파선시키는데 동의할 선장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더우기 조선인 살해에 나는 동의할수 없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감사는 당치 않다. 나는 부선장의 흥제에 반대지만 그것을 저지시킬 능력은 없다.》

《선장님의 지시에 부선장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부선장에게 문제로 되는것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다. 쓰까다는 만약 내가 자기의 행동을 방해한다면 선원들의 반란으로 대답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모든 선원들이 이미 자기에게 지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보건대 군과 나만이 이단자인것 같다.》

그러나 선장이 나의 편이라는것을 확인한 나는 신심을 가지고 결연히 이렇게 चे기하였다.

《그렇다면... 선장님,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저에게 쓰까다를 체포할데 대한 명령을 주십시오.》

《체포? 자신있는가?》

이즈미선장의 눈이 번쩍었다. 그는 희망을 느낀듯하였다.

《쓰까다쥼 자신있습니다. 두목을 잃으면 줄개들은 오합의 무리로 될것입니다. 모든 선원들이 다시 선장님을 따르게 될것입니다. 지체없이 쓰까다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자는 살인귀이의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선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인귀라는 말은 옳다. 전쟁이 끝난 지금 4,7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그건 확실이고 도살이다. 하늘이 용서 안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본인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죄가 하늘에 닿았지. 나는 우리의 패전을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직도 쓰까다같은자가 있으니...》

《...》

《나는 쓰까다가 그렇게까지 악한일줄은 몰랐다. 나는 그를 설복하고 만류하던끝에 이런 말까지 했지. 그만두라, 당신은 우리 도시꼬에게 마음을 두는것 같은데 그애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두라, 당신이 이런 범죄를 범할수 있는 사람이라는걸 알면 도시꼬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을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나? 나는 <우끼시호마루>도 폭파시키고 도시꼬도 내것으로 만들겠소. 두고보시오... 이런단 말이네.》

말을 마친 이즈미선장은 결단을 내리듯 명령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오늘도 《고난의 행군》을 이어나간다

석광희

가슴을 펴고
크게 내디딘 걸음
진두에 불길처럼 나뵈기는
저 붉은 기발 따라
더 보폭을 넓히자 속도를 내자

가야 할 앞길엔
험한 령도 있고
사나운 강도 있으리라
허나 《고난의 행군》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헤치는 난관이 무엇이라

실로 전설과 같은
백여일의 행군이여
무슨 힘, 무슨 기적이
적들의 대포위를 뚫고
붉은기를 더 높이 날리게 했더냐

생눈으로 타는목 추기고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애오라지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전대미문의 역경을 돌파해왔거니

만일 엄혹했던 그날에
미래를 위한 그날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에 이어져 값있게 빛나는
그날의 하루하루를
십년처럼 백년처럼 살수 있었을것인가

새해의 진군길에 나선 이 아침
메아리쳐가는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에
조용히 귀기울이면

지금도 가슴치며 울려오지 않느냐
길길이 일어난지던 눈보라속에서
세차게 울리던 그 펄럭임소리
그래서 피는 땀이 사품치는것이다
숨결은 달아올라 불같이 뜨거운것이다

죽으면 죽었지
결코 놓을수 없고 버릴수 없었던
그 기발밑에 서서 생각한단
가는 길 여전히 순탄치 않고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
갈수록 더 악랄해지리란것을

그런들 어떠랴
그것은 이미 각오한것
가슴 내대고 맞받아가리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세차게 펄럭이는것이
우리의 붉은기가 지니여 굵힘이 없는
억세고 거룩한 녀 아니더냐

위대한 수령님따라 헤쳐온
《고난의 행군》이여
그 정신, 그 기상 떨치며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따라
일심단결의 철의 대오가 이어가나니

달랠길없는 걱정과 흥분이
하늘땅에 불구를 울리게 하는
자력갱생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사회주의 3대진지 굳게 다지고
이해를 력사적인 해
승리의 해로 안아올리리

설날의 눈송이

정은옥

설날

설날은 눈오는 명절이라더라
그래서 이날에 내리는 눈은
어깨우에 이리도 정깊은것이냐
그래서 이날에 맞는 눈송이는
마음에 이리도 뜨거운것이냐

아서라

어떻게 맞는 우리의 설날이길래
폐사로운 명절처럼 스칠수 있으랴
이 해의 설날은
하늘에서보다 마음의 눈이 먼저 온 설날!
어쩌면 지난해 설날아침
어깨우에 흰눈을 맞으시며
인민군전사들을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그 아침의 흰눈을 못잊어
지금도 우리의 눈굽은 뜨거웁나니

어찌 알랴

이해의 첫 아침
우리 장군님 또다시
어깨우에 흰눈을 맞으시며
그 어느 초소길을 가시지 않는지
이해의 설날은
우리 마음에 흰눈이 먼저 쌓인 설날!

인민을 품안으시고

조국을 품안으시고

아, 우리 장군님
붉은기 높이 든 《고난의 행군》길 진두에
오늘도 앞장서 제시거니

그래서 이해의 설날

우리 마음에 먼저 맞은 흰눈은
장군님 이끄시는 승리의 행군길에
다만 축복의 꽃보라였으면
다만 행복의 꽃보라였으면

그래서 설날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먼저 쌓인 흰눈은
경애하는 장군님 안녕하시라!
다만 그 소원 안고 희디흰 눈송이
다만 그 일념 안고 뜨거운 눈송이

아, 설날은 눈오는 명절

이날에 우리 마음의 눈송이
더 뜨겁게 안으리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신들메
더 든든히 조이리라
진정 우리의 설날, 설날은
흰눈으로 더욱 아름다워지는 설날이여라!
흰눈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설날이여라!

차창을 열고서 가자

리재준

정월이라 바람은 차도
렬차원처너야
차창을 열고서 가자

인정많은 우리 비서동무
떠밀듯 보내주어
이 분조장
농민휴양 갔다오는 길이다

그렇지 저길 바라
산마루에서 흘러내리는 삭도바가지

넝쿨에 달린 호박처럼 주렁졌구나
구수한 거름내 예까지 풍겨오는듯
저렇게 잘 익은 부식으로
영양단지 빛으면야
강냉이소출이 쑥쑥 오를게다

저기에선 흙갈이가 한창
밀차에 썰매까지 달리누나
내 웃웃을 벗어제끼고
광광 곡괭이를 휘둘러
언땅을 떼내고싶다

몽게몽게 피여오르는 흰연기를 보아라
떡시루 김 올리듯
소토를 구워내는 저 아낙네
마주앉아 농사경험 나누면
귀맛있는 이야기 들을수 있으리

어허 염소떼로다
한겨울에도 배부른 염소떼가
산허리에 구름처럼 흐르니
내 마음이 다 즐겁구나
긴 회초리 휘저으며
노래라도 한곡조 뽑고싶구나

차창에 안겨드는 벌은 벌마다
내 눈길 놓지 않아
차창에 비껴오는 일터는 일터마다
내 마음 후끈 덥혀주어
터질듯 부푸는 이 가슴

또 한굽이 돌아서니
새땅찾기전투장인가

벽시묵음

와릉와릉
《풍년》호들 흙무지 밀어 내는데
펄펄 날리는 붉은기아래
구리빛 주먹 흔드는 저 젊은이
《고난의 행군》정신 이야기하리

규정엔 없어도
잠시라도 렬차를 세울순 없는가
휴양기간 못했던 농사일
여기서 두릅으로 봉창하고싶구나
여기서 열곱으로 봉창하고싶구나

아 정월이라 바람은 차도
새해의 벽두부터
농장마다 끊는 숨결 한껏 호홉하게
온 나라에 나뭇기는
붉은기의 펄럭임소리 내 심장에 안고가게

렬차원쳐녀야
차창을 열고서 가자

제 할 말을 찾으라

쏟아낸 석탄을 두고
웃으며 말할수 있는
제 할 말을 찾으라

아, 석탄으로 새해의 진군길을 떠미는
탄부의 땀이 담긴 그 말로
조국은 하루하루를 총화짓고있거니

천일수

불태우자, 더 붉게

용해공들아
불태우자, 더 붉게 쇠물노을을

쇠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쇠물로 곤난을 박차 나아가는
그것 아닌가, 강철군단의 붉은기!

주광남

용해장-나의 일터는

뜨거운 심장 안지 않고서는
선뜻 들어설수 없는곳이다
용해장- 나의 일터는

전후 시련의 언덕에서
강철로 나라의 앞길을 개척한 선배들

그네들의 불굴의 넋이 깃든곳이거니

그날의 그 넋을 잊지 않았다면
그날의 그 일터에
어찌 가슴 펴고 설수 있으랴!

윤희혁

두기사에 대한 이야기

윤경찬

1

발전소지구의 밤거리는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보슬비가 조심스레 내리고있었다. 집집의 창문마다에서 밝은 불빛에 섞여나오던 밝은 웃음소리도 지금은 들을수 없다. 8월의 폭양을 막아주며 시원하게 설렁거리던 길가의 가로수들은 비에 축축히 젖어있다. 하루일을 끝내고 활기에 넘쳐 밀려가고 밀려오던 사람들의 발걸음소리도 이제는 그저 동안뜨게 들릴뿐이다.

박동호기사는 머리를 깃수긋하고 침묵속에 잠긴 거리를 걷고있었다. 초저녁부터 인적없는 강변에 홀로 나가있다가 들어오는 길이다. 그에게는 정답던 이밤의 모든것이 가슴답답하게만 여겨졌다.

이 로동자구의 출퇴근길을 걷기 시작한지도 수십년, 환갑나이가 돼오는 오늘날까지 한번도 지금처럼 자기 환멸에 잠겨 무겁게 걸어본적 없던 길이었다.

그는 골목길로 꺾어들었다. 골목 맨 마지막 다층살림집 3층에 최성학기사의 집이 있다. 여기를 목적했던것은 아니었는데 어쩌서 이 길로 들어섰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저 무의식중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밤 최기사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것이다.

한계단, 두계단... 천근의 무게를 가지는 발걸음으로 2층까지 올라온 그는 더 올라가지 못했다.

예전에는 제집 드나들듯했던건만 지금은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어릴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막역지우로 지내오는 사이여서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허물없는 집이었건만...

한참동안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그는 종시 발길을 돌려세웠다. 캄캄한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데 안경알에 비방울까지 맺혀 눈앞엔 그저 아무것도 안보였다. 항상 빗살자리 력력하던 머리카락은 삼겨웃처럼 마구 헝클어졌다. 언제나 단정하기만 하던 옷은 이미 후줄근하게 젖어 볼풀없이 되었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지기의 생활처럼 바지가랭이며 구두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감기가 들려는지 몸이 오싹오싹했다. 그러나 그보다 그의 마음을 더 떨리게 하는것은 오늘 오후 회의에서 최기사가 부르짖던 그 처절한 목소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전력문제를 걱정하시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 다시 전력문제를 심려하시면서 오늘 새벽 우리

발전소에 전화를 걸어주시였답니다. ...》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할수 있다면 그 무엇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런 시기에 살면서 자기는 10여년전에 시작한 수차개조안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던 최기사의 토론은 동호를 못견디게 괴롭혔다. 그 토론이 꼭 자기를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같아 동호는 숨조차 크게 못쉬다가 회의를 끝내기 바쁘게 강변으로 나갔었다.

수차개조안-그것은 10여년전 동호와 성학이가 함께 시작했던 기술개조안이었다. 그것만 성공하면 전기부문은 물론 류체기계분야에서도 하나의 혁명으로 될것이라고 그들은 얼마나 가슴울렁거리었던가. 그것을 결심한 그날저녁도 그들은 자기들이 즐겨찾군하는 강변의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동호가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잠재우며 말했다.

《뭘 해낼가?》

《해내야지.》

제 성미를 닮은듯싶은 총 쉰 머리카락을 바투 깎은 최기사가 뒤로 벌렁 드러누우며 말했다.

《전문연구사들두 아니구 우리같은 현장기사들한테 사실 아름찬것인데...》

《무슨 소릴 하나? 일단 결심한거야 머리가 열 쪼각나두 해내야지. 자네야 대학때부터 수재루 소문나지 않았나. 조타를 잡게. 노는 내가 힘껏 짓지.》

미지의 난바다에 탐구의 배를 띄운지도 여러해가 지났건만 성공은 기약할수 없었다. 물론 성공의 열매라는것은 애타는 소원에 의해 잡히는것도 아니고 피타는 노력이 있었다고하여 무조건 차례진다는 법은 없는것이지만...

동호가 그 성공의 문어구에 다달은것은 1년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을 잡아당기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탐구로 이어지던 그 나날엔 비록 성공의 희열은 없어도 나라의 과학을 위해 성실하게 자기를 바친다는 긍지가 있었건만 정작 성공의 문고리를 켜 다음부터는 기쁨대신 몇갑절 더 고통스러워진것이다.

그 고민, 그 불행을 끝장내고저 이밤 최기사를 찾아왔었던건만... 그는 자신이 불쌍해보였다.

(내 처지가 이렇게까지 한심해지리라고 여태 한번이나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의 한생은 자랑만 넘치던 한생이었다.

《s》수력발전소 기술과에 출장원이나 손님들이 찾아와 발전소를 구경시켜달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풍채 좋고 언변 좋은 동호기사에게 안내를 맡기곤 했는데 그의 말은 흔히 이렇게 시작되곤 했다.

《발전소는 나라의 국장에까지 새겨져있습니다.》

지금의 안해도 동호의 그 자랑과 포부에 반하여 정든 고향 평양을 떠나 여기 서북방 한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던가.

처녀시절 안해는 전력공업성의 기요원으로 일했었다. 대학을 졸업한 동호는 성지도원이라는 배치장을 땡개치듯 내놓으며 발전소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매일 성에 찾아와 떼를 쓰곤 했다. 처녀는 대기실 한쪽의자에 앉아 풀떡거리곤 하는 총각의 정열에, 총각은 새침한 쌍태머리 처녀의 미모에 반했었다.

《...국장에 크게 새겨져있는게 발전소가 아니요. 난 발전소에서 발전기운전공을 했소. 어둠을 밀어내는 밝은 빛을 만드는게 내 직업이었던말이요. 동무두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를 알지?》

동호는 자기를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로 묘사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맨 앞장선 선봉투사의 위치에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장담했다. 자기에게 시집오면 처녀의 래일을 더할 나위없이 밝게 해주겠다고. 동화속의 요술사처럼 밝은빛을 만드는 사람의 생활이 어찌 어두울수 있겠는가. 내 말을 믿으라! 동무의 래일은 틀림없이 밝고 행복할것이다!

동당지 않는 총각의 억지론리는 처녀를 입을 싸쥐고 웃게 했으나 어쨌든 그를 따라왔고 오늘까지 그가 장담하던대로 밝고 행복하게 살아왔었다. 이제는 발전소지구의 중학생들까지 그에게 꼭꼭 인사를 했고 동호역시 남들의 인사를 받는 데 습관됐었다. 그러던 사람이 많은 비가 내리던 7월의 슬픈 그날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언제를 향해 곧추 뻗은 포장도로 한옆으로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고다녔다. 간혹 오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답례는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채 지나치곤하여 인사한 상대방이 무안해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러는줄만 알았다.

(내가 어떤놈이라는걸 알면 사람들이 날 가만 두지 않을테지.)

동호는 머리를 싸쥐고 진창길을 마구 걸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보수작장에 다니는 아들은 밤교대를 나가고 며느리는 해산날자가 다되어 발전소병원에 입원했었다. 사실 며느리는 시집와서 몇해동안 아이나이를 못해 제스스로 송구한 마음 안고 살아왔었다. 시부모들이 일없다고,

그러거야 우정 법하는 파실도 아닌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해줄 때면 오히려 좁은 어깨를 더 웅숭그리며 머리를 못들곤했다. 그게 동호네 집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고 할지. 하지만 이제 는 그걱정의 잔뿌리마저 뽑히워진셈이다.

몇달전인지, 밤에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로친네가 더운 입김으로 귀구멍을 간지럽히며 소곤거렸다.

《여보, 알고있수? 며느리가 글썄...》

《그게 진짜요?》

동호는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며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였다. 뜻밖의 희소식이었던것이다. 로친네는 기겁을 하며 실박한 팔뚝으로 남편의 동가슴을 밀어 황급히 제자리에 눕히고는 두툼한 이불을 폭-들썩워놓고 이불속에서 령감을 꾸짖었다.

《옷방에서 애들이 깨어나겠수다레. 며느리가 놀라면 안된다는걸 모르시유?》

그러나 동호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참을수 없었다. 그는 로친네가 머리끝까지 뒤집어쳐워준 이불을 활 밀어제끼며 큰소리로 웃어댔다. 달빛에 비쳐진 천정도배지의 꽃무늬들도 마주 내려다보며 웃고있었다.

이제 자기도 할아버지가 될것이다. 두벌자식 더 곱다는데 아닌게 아니라 손주애를 무릎에 앉히고 파끈한 오줌벼락을 맞아보는것도 늙은이들에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밤이 엇제같은데 벌써 날자가 되어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로친네는 병원에서도 다해주고 친정어머니까지 온다고 만류하는데도 부득부득 따라갔다.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이겠지만 핑계는 좋았다. 고대하던 손주애를 아래목에 앉아만 있다가 맞을수는 없다는것이이다.

(생활은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있건만 난 두팔벌려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으니...)

그는 초점 잃은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아래목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복에 필요한 모든것이 그곤하게 갖추어져있는 보금자리도 지금은 낯설고 썰렁해보이기만 했다.

2

동호는 불을 켜고 옷방으로 올라가 책장맨우에 들어있는 도면말이를 내리웠다. 《고통》의 근원라고 해야 할 《수차개조안》이었다. 이 도면들의 선 하나, 점 하나하나가 동호 자기에 의해서 그려진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이것은 성학기사의 창조물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그의 사심없는 방조, 정열적인 고무가 없었더라면 자기가 이것을 완성할뿐이나 했던가. 그런대도 그는 이런 도면이 있다는것조차 모르고있었다. 이밤따라 동호에게는 자기를 힘껏 도와주고 부축해주던 성학에 대한 고마움과 그것을 외면해온 자신에 대한 죄스러움이 새삼스레 가슴에 미

쳐왔다.

...

수차개조안연구를 시작한지 몇달이 지난 어느 날저녁, 평양에 다녀온 성학은 동호를 집으로 청해었다.

《평양특산물이라도 잔뜩 지고온게로구만.》

동호는 손기척도 하는듯마는듯 하고 친구의 집문을 열어제끼며 소리쳤다.

《그래, 굉장한걸 가져왔네. 여보, 어서 들어오우!》 성학은 부엌에 대고 호기있게 소리치며 병글거렸다. 그런데 조금후에 차려들여온 상을 보며 동호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봉어생선국, 고사리볶음, 두부지지개... 집에서든 늘쌈 먹던것뿐이었다.

《난 또 굉장한거나 있다구.》

실망기어린 친구의 말에 성학은 재미있다는듯 껄껄 웃어댔다.

《내가 뭐 자네한테 술대접하자고 왔은줄 아나?》

그는 옷방에서 큼직한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자네가 갈 때 주려고 했는데 술맛 잡칠가봐 먼저 내놓네.》

가방을 기웃해보던 동호는 입이 함박만해졌다. 기술개조안연구에 절실히 필요했던 참고도서들이었던것이다. 그것도 극히 최근에 나온 선진기술자료들과 번역판들, 외국원서들이었다. 정신없이 이책저책 집어들던 동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뚜껑에 찍혀진 도서관명판들이 매 책마다 달랐던것이다. 어떤 책은 과학원명판, 어떤 책은 대학명판, 어떤 책은 개인이름...

《막낭쳐남 잔치에 간다더니 이 술한걸 사방에서 빌려오느라 고생했겠구만.》

《아니게이니라 동봉서주했네. 찾아가서 척척 내주기만 하면야 좀 좋겠나. 하여튼 도움이 될걸세.》

김을 문문 피워올리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밥상은 어느새 식어버렸지만 책에 정신팔린 두사람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먹고싶은 생각도, 권할 생각도 잊은 그들이었다. 그날 밤늦도록 친구의 집에서 수차개조안을 토론하던 동호는 제먼저 저고리를 벗으며 말했다.

《여기서 자구가겠네. 아주머니! 자리빼앗겼다구 눈 흘기지 마시우.》

그런속에서 한해, 또 한해... 5년세월이 흘렀다.

그해 5월단오날 발전소에서는 들놀이를 조직했다. 산골에 가면서도 한뼉 물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경치 좋은 호반을 마다하고 가족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었다. 동호의 안해는 단오날 쭈뼛을 해먹으면 잡병을 방지한다면서 쭈뼛, 찰떡에 장고까지 메고 숨을 헐떡거리며 령감의 뒤통무니를 따라왔다.

오후에는 직장별로 씨름, 바줄당기기, 사람찾기... 동호의 안해가 부한 몸을 풍기적거리며 달려나가 엮어놓은 쪽지 한장을 집어 들더니 종이장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여보, 령감, 여보!》

아마 남편의 손목을 잡고 뛰라고 쓴것을 집어든 모양이었다. 폭소에 팽파리가 합쳐져 들썩하는판에 동호가 자리를 차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억센 손이 그를 잡아당겼다. 즐거운 세계에서 그를 끌어내것은 최기사였다. 바쁘게 달려왔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가 말했다.

《뭘것갈네.》

《뭘말인가?》

남편을 떼우고 자기혼자 굴러가다싶이 뛰여가는 로친네를 아수하게 바라보며 동호는 언짢게 물었다.

《수차말일세. 취수구에서부터 떨어지는 락차가...》

처음엔 최기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곁에서 울리는 그의 흥분된 목소리보다 멀리서 떠들썩하는 웃음소리가 동호의 귀에는 더 크게, 더 똑똑하게 들려왔던것이다. 꼴찌를 하고 풀이 죽은 로친네의 모습이 얼씬거리고 조금전까지 배가 아프도록 웃어대던 잔디밭 그자리가 동호를 부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잠수라는 소리에 동호는 정신이 펴져 들었다.

《자네 무슨 소릴 하나. 정신있나?》

《나야 한때 경험있는 잠수공이 아니었나. 게다가 지금 1호는 대보수때문에 취수구를 닫지 않았나?》

《어쨌든 안되네. 목숨이 들인줄 아나? 기업소에 말해보게, 로망한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틀림없이 성사된다면 또 몰라두.》

그 말에 최기사는 버럭 성을 냈다.

《하여튼 해봐야 할게 아닌가. 목숨, 목숨하는데 위험한줄 누가 모르나.》 총 쉰 머리카락이 지붕처마처럼 이마우에 드리웠는데 그밑에서는 서늘한 눈매가 동호를 직시하고있었다.

무슨 말인가를 마저 할듯하던 최기사는 올 때처럼 횡하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허참, 성미두.)

지는 해를 아쉬워하며 느지막해서야 산을 내려온 동호는 기막힌 사실앞에서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최기사가 그 무거운 잠수옷을 입고 취수구에 잠수했었다는것이였다. 더 억이 막히는것은 잠수공인 최기사의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였다. 사색이 되여 최기사의 집으로 달려간 그는 격한 김에 최기사 아들의 따귀를 한대 갈기고야말았다.

《미친 녀석, 제 애비 귀한줄도 몰라!》

아들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진주마냥 불빛에 반짝거렸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성미를 잘 알지 않나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자랑이 섞인듯한 그 눈
물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동호는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하긴 세상에 제
부모 위하지 않을 자식이 어데 있을까.

옷방 침대우에 누워있던 최기사가 동호를 불렀
다.

《그만하구 올라오게. 자네 마음 내 알아. 하지
만 우리 기술자들과는게 위험한걸 마다하구야
무슨 일을 하겠나. 더구나 발전기의 현존능률을
높이라는거야 수령님의 교시가 아닌가.》

침대에 걸터앉아 그가 내미는 자료들을 들여다
보며 동호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최기사 아들에
게 손찌검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친구의 아들
에게 더친 그 분노는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감추
어보려는, 그 비겁성을 부정해보려는 몸부림이
아니였는가. 동호는 뜻밖에 발견하게 된 자기의
추한 모습에 진저리쳤다.

(내가 언제 그런 비겁쟁이가 되였는가.) 성미
로 말하면 어릴적부터 별차기로 소문난 자기가
아니었던가.

아득한 유년시절, 그들은 아스라한 들메나무우
듬지에서 까치둥지를 털어낸적이 있었다.

《성학아, 우리 내기하자. 너 저 꼭대기까지 올
라갈수 있니?》

《응. 그런데 어머니가 옥해. 떨어진다구.》

《피- 무서우니까 핑계대누나. 겁쟁이같은거.》

동호는 짚신 짚을 벗어내치고 손바닥에 침을 바
른 다음 아름답리나무기둥에 매미새끼처럼 달라
붙었다. 그런데 둥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가
나서 둥지를 와락와락 헐어버리고 내려오려는데
땅 밑에 납작 붙어있는듯싶은 성학이를 까마득히
내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올라갈 때는
모르겠더니 내려올 땐 왜 그리도 온몸이 와들와
들 떨리던지 나무기둥에서 손을 뗄수 없었다. 그
는 그만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급해맞은 성
학이가 썩하니 달려가더니 제 형과 함께 사다리
를 맞들고왔다.

《일없어. 내려오라. 너의 어머니한테 안대줄게.
너 나보다 세구나.》...

지금 이자리에서 그때 일이 문득 생각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무분별한 용감성은 객기에 지나
지 않지만 참다운 용감성은 사상에 의해서만 발
현되는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 옳은 소리다. 거
기에 선천적인 성미나 기질 같은게 얼마나 작용
하랴.

《밤새 그러구있겠나. 집사람이 기다리겠네. 꼴
찌를 해서 노했겠는데 잘 풀어주라구.》

그래도 동호는 일어설념을 못했다. 들메나무에
공포로 얼어붙었던 유년시절 그때처럼 전신의
힘이 다 새어버려 끝없이 밑으로 쫓아들고만싶었
다.

모포를 밀어제낀 최기사가 곁에 다가앉으며 억
지로 그를 일쿠어세웠다.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맥없이 몇걸음 옮기던 그는 방 한가운데서 굳어
졌다. 자기가 오히려 환자의 부축을 받고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동호는
친구의 팔을 꼭 잡고 서글프게 말했다.

《난 아마 평생 자네의 부축을 받아야 할가보
군.》

그때 최기사가 찾아낸 방법은 동호가 지금의
도면을 완성하는데서 하나의 실마리로 되었다.
실마리란 작다는 소리이지만 따지고보면 그것은
전체를 의미하는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도면
이 어찌 동호 역시 자기의것만이라고 할수 있으
랴.

도면을 한장한장 번지던 동호의 손은 맨 마지막
막장에서 멈춰졌다. 도면에는 작성날자도, 작성
자이름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것들이 쓰여져야
할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왜 안써넣었는가. 자
기는 도면이 완성되지 못해서 안써넣었다고 변명
해왔지만 사실은 손이 떨려서 써넣지 못했다. 거
기는 량심이 들어앉아야 할 자리였던것이다. 그
리고 도면의 한부분, 어떤 수자가 표기되어야 할
자리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만 쳐있었다. 아
프게 눈을 자극하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도
면을 덮었으나 눈앞에서는 그것들이 여전히 어지
럽게 춤을 추었다. 그는 미칠것만 같았다. 소리
라도 지르려는 순간 문이 벌럭 열리며 안해가 들
어섰다.

동호는 그제야 온몸에 식은땀이 쭉 내뿜힌것을
느끼며 구들장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안해는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웃고름을
눈가로 가져가는것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웬
일인가? 혹시 머느리가?...

《아들을 낳았수다. 뽕돌같은...》 로친네는 말도
채 못하고 방바닥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울긴 왜 울가?

《...난산이었지요. 산모든 아이든 하나밖에...
그런데 글썽 군병원에서 전화를 받구 의사들이
달려오구 어떻게 알았는지 비서동지두 병원에 오
지 않았겠수. 온 병원이, 온 발전소가 떨쳐나섰
됐지요. 둘 다 살리느라구... 너무 그러지들 말라
고 만류하는데두... 이게 수령님의 뜻이라면서...
모두들 울었수다... 지금이 어떤 때이게... 울면서
수술을 했지요. ...수령님생각이... 간절해서...》

동호는 눈물에 젖은 안해의 목소리가 아득히
먼세계에서 들려오는듯싶었다. 한참이나 그는 말
없이 앉아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정신이 펴쩍 들
어 화닥닥 일어 섰다.

(가봐야지.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인사라도
해야지.)

서둘러 집을 나서던 그는 대문가에 못미처 흠
칫 놀라며 멈춰섰다. 손자보고싶은 마음은 하늘

같다해도 무슨 체면에 거기에 얼굴을 내민단말인가 하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던것이다. 몇몇치 못하게 살다보니 갓 태어난 손자에게까지 죄를 짓는구나하는 생각에 동호는 눈물이 핑-돌았다.

(사람은 이런 때를 당해봐야 자기 처지를 아는 것인가. 아! 이대로는 더 못견디겠구나.)

방안에 달려들어온 동호는 도면을 몽땅 걷어안고 일어섰다. 밤중에 어딜 가는가고 묻는 안해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는 대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하지만 최기사의 집앞에 이르러서는 예전처럼 문을 열지 못하고 조심스레 손기척을 올렸다.

똑, 똑, 똑...

문을 열어준것은 최기사였다.

《난 또 누구라구.》

도면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 친구의 무릎을 철썩 갈기는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던 최기사는 1년전에 그것을 완성했다는 동호의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빙빙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허나 고개를 푹 떨구고 자기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모습은 이 모든게 사실임을 증명하고있었다. 그래도 영문을 알수 없어하는 최기사의 집요한 시선을 받으며 동호는 회상하고싶지 않은 과거, 될수록 잊어버리려고 애쓰던 1년전 그때를 쓰겁게 돌이켜보았다.

3

(찾았다!!)

번개처럼 떠오르는 착상에 동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회열이 북받친 그는 자기가 볼도 커지 않은 어두운 실험실안에 혼자 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온 방안이 떠나가도록 웨쳤다.

《성공이다!-》

힘한 바위크름을 뚫아 령마루에 올라선 탐험가의 기쁨이랄가.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감박거리며 자기를 축하해주는듯싶었고 언제밀 배수구에서 빠져나오며 사품치는 물결도 자기만을 위해 춤추며 설레이는듯싶었다. 최기사가 자리를 뜨고 곁에 없는것이 유감이었다. 있다면 서로 얼싸안고 맨바닥에서라도 덩굴어보련만...

그는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어 자그마한 방안을 성급히 오락가락하며 저혼자 빙글거리다가 책상에 마주앉았다. 들먹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녹잡히며 다시한번 검토해보았다.

틀림없었다. 성공은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동호는 무서운 전율을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온몸이 싸늘해져 그는 까딱 움직이지도 못했다. 방금 찾은 방법대로 설계를 완성하자면 단 한가지만은 발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안에 들어가 측정을 하여 정확한 수치를 줘야 했다. 그런데 가동상태의 발전기본

체속으로 몇시간동안 들어가있다는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던것이다.

그는 눈앞이 새까매졌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꼴을 싸쥐고 생각을 굴려보아도 출구는 하나밖에 없었다. 어둡서니는 볼수록 커진다더니 발전기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할수록 머리칼이 곤두섰다. 천하가 들부서지는듯한 요란한 동음, 미궁의 나락같은 어둠, 화끈한 열풍... 그속에서 자칫하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령마루에 올라선줄 알고 만세를 불렀는데 정작 올라서고보니 아찔한 벼랑끝이라는 생각에 그는 머리를 싸쥐었다. 벼랑끝의 악정이에 매달린 운명은 론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밑에는 사품치는 바다, 울퉁불퉁한 바위들...

(그러니 포기해야 한단말인가? 그럴수는 없다. 우선 나혼자 이 방법대로 설계를 완성하자. 혹시 그동안에 안전한 우회로가 나타날수도 있지 않는가.)

그는 최기사에게 아무말도 안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말한다는건 곧 그러더 발전기속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나 같은것이기때문이었다. 불같은 그 사람이 가만 있지 않을것은 너무나 명백했던것이다. 지금 이자리에 그가 없는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동호는 집에서 찹찹이 설계를 그려나갔다. 그러나 설계가 거의 돼갈수록 그의 고민도 점점 짙어졌다. 이대로 완성해선 어떤단말인가? 기술자의 량심과 생에 대한 애착이 서로 얹치락거리는 모순된 감정을 무겁게 안고 그는 번민에 시달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최기사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수차개조안을 완성하기 위한 탐구를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정열적으로 달려붙었다.

그들이 현장에서 밤을 밝힐 때면 두 집 안해들이 밥보자기를 들고 어깨나란히 현장으로 찾아오곤했다. 저마끔 음식을 잘해오려고 말없는 승벽 내기를 벌리다나니 밥보자기들을 한데 퍼놓으면 요란한 식탁이 펼쳐지곤했다. 동호의 안해는 젊은 시절엔 시부모들을 모시고사는 처지여서 빛다른것이 조금 생기는 경우에도 제 남편에게 밀어주어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전에도 남편이 집에 못들어오는것이 일견 섭섭하기는 했지만 식사를 가지고 현장에 찾아나올 때면 즐거움도 없지 않았다.

안해가 더구나 즐거워한것은 시어머니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식료상점에 가서 갖가지 음식감들을 제 손으로 마련해주곤했기때문이었다.

《네 밥두 가지구나가 같이 먹구 오려무나.》

고마운 시어머니였다. 현장에 나온 안해는 자기는 먹는등마는등하고 음식을 맛있게 드는 남편을 애정이 담뿍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보는것이 먹는것보다 즐거운지...

그때의 습관이 굳어져버렸는지 동호의 안해나 최기사의 안해나 머리가 회여진 오늘날까지 한번도 자식들에게 밥을 들러 내보낸적이 없었다. 언제나 자기들이 따끈한 밥보자기를 들고나와서는 출출해하던 남편들이 사방 저자락질을 해대는것을 재미있게 바라보며 소리없이 웃음을 짓곤했다. 늙으면 아마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제 남편에게 잔정이 더 많이 가는 모양이다. 하기가 여자들에게 제 남편보다 귀한 존재가 있으랴만 늦게 시집장가를 가서인지 최기사와 그의 안해는 언쟁 한번 안하고 오늘날까지 늙어온다. 빈그릇들을 챙겨든 그의 안해가 남편의 입가에 묻은 밥알을 살짝 빼주며 아늑한 미소를 보낸다.

《인차 들어오시우. 아직 한참때인가 하우?》

생활의 향기를 남편들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넣고 돌아가는 안해들의 모습을 착잡한 시선으로 오래도록 바라우던 그 저녁 동호는 도면을 덮어두어야 한다는걸 어쩔수 없이 인정했다.

혼자서 발전기안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최기사에게 말하자니 인정이 허락치 않았었다.

도망병의 논리는 오직 한가지 살아야 한다는것 뿐이다. 허나 동호는 자기를 비겁한 도주자로 생각지 않았던것이다.

무릇 모든 과학적성과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탐구의 열매라는게 그 탐구자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야만 얻어지는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인류문명에 얼마만한 가치를 가질것인가.

만약 그 죽음으로 자기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다는가 아니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화구를 막는다는가 하여튼 그 죽음의 대가가 자못 큰것이라면 서슴없이 그 길을 택했을것이라고 그는 자기를 위안했다. 그전에는 류체기계분야에서까지 하나의 혁명으로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되던 수차개조안도 정작 그 대가로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혀 하찮고 보잘것없어보였던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것이고 나아가선 조국을 모욕하는것이라는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조국에 바쳐진 삶은 값높이 평가된다는것을 그는 미처 몰랐던것이다.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먼저 타산하는 사람은 실사 화구가 앞에 놓여있고 그것을 막으면 영웅으로 된다는것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다해도 결단코 자리를 차고 일어서지 못한다는걸 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던것이다.

《...그러니 자네를 위험속에 세우고싶지 않아서였다고한건 사실 억지론리였네. 결국은 나자신이 들어가기 무서워서 결심을 못했겠지. 덮어두었다가 천천히 안전하게 완성해보리라 했었네. 그런데 수령님께서...》 동호는 더이상 말을 못했다.

동호에 대한 측은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최기사는 그것을 터뜨리지 않았다. 다만 그 동그라미며 작성날자도, 이름도 안씩여진 행한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리해하고는 후-하고 한숨을 내불었는데 그 소리는 휘파람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그 한숨과 함께 믿음, 사랑, 의리를 포함하여 지기를 인간으로, 천우로 대해주던 아름다운 감정들이 최기사의 가슴속에서 다 빠져나가는듯싶어 동호는 절망에 잠겼다. 차라리 매라도 들었으면, 더러운놈이라고 욕이라도 해주었으면 고통이 덜해질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일어섰다. 최기사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그의 안해도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부뚜막에 쪼그리고앉아 혹시 두사람이 다투지나 않을가 하고 가슴조이고있을것이다.

밖에 나선 동호의 발걸음은 다시 강변으로 향했다. 집에는 들어가고싶지 않고 어디든 조용한곳에 혼자 있고싶었던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정답게만 들려오던 강물소리마저 이밤만은 자기를 욕질하며 끝없이 주절대는듯싶었다.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어디에 가도 안정을 찾을수 없구나. 그래, 난 죄인이다. 수령님앞에 죄를 진놈이다.)

동호는 이밤 자신을 무한정 확대하고싶었다.

영원이라는 시간속에 비집했던 자신을 몰아넣고 가장 모질게, 가장 철저히 자기를 매질하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동호는 자기옆에 최기사가 와있는 바람에 상념의 세계에서 돌아왔다. 최기사는 온화하면서도 책망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 몇시제 이러구있나?》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라왔으나 동호는 억지로 그걸 씹어삼켰다.

《왜 아무 말두 안하나? 나같은건 옥해줄 가치도 없다는건가?》

《너무 피로워말게. 사람은 그런 정황앞에서는 주춤거리게 되는걸세.》

《하지만 난 주춤거리게 아니라 도피했네.》

잠자코있던 최기사는 주머니를 부시럭거리더니 담배갑을 친구에게 내밀었다.

《내 이야기 하나 하라나?》 그리고는 동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담배연기를 맛스레 들이빨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일일세. 자네도 알다싶이 난 전쟁이 끝나는 그해에야 군대에 나가지 않았다. 그전에는 나이를 더 먹구 오라면서 입대시켜주지 않는통에 53년설을 쇠자마자 새해벽두에 달려갔지.

<나이를 더 먹구 왔습시다. 입대시켜주십시오.

내 나이 이젠 열여덟살입니다.>

<넌 재간두 좋구나. 설을 한번 쇠면 두살씩 먹느냐?>

사람좋은 그 군관은 내가 정말 병사구실은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지 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입대수속을 해주더군. 헤어질 때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당부했네.

<용감하라구. 병사!>

사실 그 말은 공연한것이였네. 기어이 영웅이 되어 고향에 돌아오겠다는것이 그때의 내 결심이였거든.

난 사단직속중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 사단은 인차 최전연으로 나가게 됐네. 난 그때에야 그 군관의 말이 공연한 당부가 아니었다는걸 깨닫게 됐네. 개활지대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봉우리에 적들이 틀고있았는데 정말이지 난 처음엔 무서워서 갭도안에서도 잠을 못잤네. 중대의 막내가였던 나는 전선생활에 익숙되면 폭탄 터지는 소리도 꿈만하게 들릴거라는 구대원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더군.

하루는 정치부중대장이 나를 찾더군.

<최동문 입대전에 발전소에 있었다니까 전기문을 좀 알겠구만.>

<예.>

<땅크발동기를 구해올테니 확성기를 살릴 준비를 하오. 소리판이랑은 전번에 구해둔게 있는데 전기만 있으면 되오. 전선이라는게 너무 조용하거든. 한번 들썹해보지요.>

그날밤에 정치부중대장은 몇명의 대원들을 인솔하구 개활지대에 내려갔네. 거기서 마사진 적땅크들의 발동기를 분해해가지구 밤새껏 날라왔지. 그런데 확성기를 설치하자구보니 부속이 하나 없더구만. 땅크의 무전기에 붙어있는거라두 떼다가 대신 써야겠는데 차마 말이 안나가더군. 그 사지관으로 또 내려간다는게 뭘 의미하는지 자네도 알테지. 어쨌든 다음날부터 전선엔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네. 적들은 그 노래소리를 막아보려고 사할동안이나 포사격을 해뒀는데 그 포탄소리를 누르며 산발을 타고 메아리치던 노래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

동호는 잠자코 들었다. 들을수록 그의 안색은 컴컴해졌다. 그는 최기사가 거짓말을 한다는걸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때 무전기부속을 가지러 단신으로 슬그머니 개활지대에 내려간것이 최기사 자신이라는것, 그래서 호되게 비판은 받았지만 정치부중대장은 꼬마가 너무 대견스러워 전선신문에 크게 나도록 해주고 훈장까지 내신했다는걸

동호는 오래전에 최기사한테서 들었었다. 아마 최기사는 언젠가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준것을 감감 잊은 모양이었다. 그는 동호를 위하여 아름다운 추억에 손상을 입히며 거짓말을 했던것이다.

동호는 친구의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자네가 뭘 말하고싶어하는지 다 아네.)

어느사이언가 동녘하늘이 희분해졌다. 새벽빛에 싸인 언젠가 그 거대한 룩박을 점점 뚜렷이 드러내고있었다.

4

동호는 그날밤 집을 나섰다. 이밤중에 어딜 가는가고 묻는 로친네에게도 아무말없이 잔등만 두드리주고는 현관을 나선 길이었다. 현장으로 향하던 그는 먼저 병원에 들렀다가기로 작정하고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 한번만이라도 손자애를 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한생을 살아온 사람의 자격으로, 그 한생을 후회없이 총화짓기 위한 마지막길을 가고있는 사람의 권리로 이제 금방 생이 시작되는 손자애를 꼭 안아보고싶었었다. 그렇게는 안되다해도 먼발치에서 보기만이라도 할수 있다면...

지금껏 망설여오던 그 운명적인 마지막 실험을 이밤 혼자서 단행하리라 결심하고 나선 그는 자기의 행동을 영웅적인것으로 묘사하고싶지 않았다. 그저 한생의 과오를 속죄하러 가는 심정이였고 흑점으로 남아있던 그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인류문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적성과를 위해서는 모든걸 다 바칠 각오가 돼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시대 과학자의 탐구자세일진대 난 요행수를 바라고 살아왔으니 참.)

고요한 정적이 병원구내에 깃들어있었다. 그는 정문을 지나 곧바로 불빛 환한 창문가에 다가갔다. 이밤중에 접수에 찾아가야 면회를 시켜주지도 않을것이고 설사 허락한다 해도 머느리와 아직한 눈도 못 뜯 손자앞이지만 몇땀이 나설 용기가 없었던것이다.

(3호실이라지. 1층인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문에는 흰 창가림이 차분히 드리워져있었다. 동호는 맥이 풀렸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설수는 없었다. 그는 행복한 안정감이 밝은 불빛과 섞여 흐르는듯싶은 창문가에 잠시 서성거리다가 발돋움을 하며 창가림사이로 빠르게 드리난 입원실안을 들여다보았다.

보였다! 한쪽 벽에 붙여놓은 침대우에 모포를 덮은 머느리의 모습이 드리워진 창가림천때문에 얼굴쪽으로만 절반쯤 눈에 띄었다. 머느리는 자면서도 어머니된 기쁨을 감출수 없었던지 미소를 지우지 못하고있었다. 그옆에 놓인 자그마한 요람에는 손자애가 꽃포단에 싸여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굴 닮았을가. 하긴 아직은 누굴 닮았는지, 누구를 닮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난 닮지말았으면...

(아가야! 부디 행복하여라!)

한동안 넋을 잃고 창가에 서있던 동호는 몇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병원을 떠났다. 눈앞에서는 미소를 담고 단잠에 든 머느리의 모습이 떠나지않았다. 해산의 진통이 두렵다고 어머니가 되는걸 마다하는 녀성은 없는것이다. 그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수 있는것은

자기도 어머니가 된다는 금지감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기는...

현장으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지금껏 나라앞에 큰 빛을 지고도 웃으며 살아온 자기가 늦게나마 그 배은망덕함을 깨닫고 개심길에 나선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동호는 회생을 각오하고나선 이 걸음 웃으며 걸을수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을 사는 사람들이며 그 길에 진실로 영광찬 탐구자의 한생이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어둠속에서나마 시름없는 웃음을 지었다.

아! 자기의 행복한 생활을 잃고싶지 않았다 성공한 개조안을 포기했던 그가 오늘은 정녕 이 모든것과 작별하러는것인가! 아니다! 그는 행복과 작별하는것이 이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을 누리 고싶었던것이다. 그를 둘러싸고있는 주위의 모든 것도 그의 발목을 붙잡는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크고 참다운 행복을 위해 어서 가라고 등을 떠미는 듯싶었다. 하여 그는 지금 정다운 이 생활과 뜨겁게, 기꺼이 작별하는것이며 오래동안 떨어져있던 그리운 꿈을 찾아 달려가는 련인처럼 그렇게 환희에 찬 심정으로 이 길을 걷고있는것이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기사가 먼저 나와 동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자기와 숙박꼭질은 필요 없다는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먼저 시작할가 했다가 자네가 원망할것 같아 기다리겠네.》

《고맙네, 정말...》

그는 자기에게 마지막까지 재생의 기회를 마련 해주려는 친구의 의리앞에 머리가 숙여졌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험만은 자기 혼자 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다듬었다. 우정은 람용해서는 안되는 신성한것이다. 저 위험한 속으로 최기사가 까지 끌고 들어갈수는 없는것이다. 절대로!

《이보라구, 우선 한대 피우고 시작하세.》

《그럼세. 하지만 날 설복해서 떨굴 생각을 하지 말게.》

《허 참.》

두사람은 휴게실에서 긴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동호는 담배가 절반쯤 타들어갈 때까지 잠자코있다가 약간 갈린듯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난 어제밤 도면을 들고 자네를 찾아갈 때만해 두 그걸 실천에 옮길 용단은 못내리고있네.》

솔직히 말하면 위로를 받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 그런데 자넌 나에게 위안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네. 내 여태 안전한 방도를 찾는다고 주춤거렸지만 사실 그건 비겁한자의 자기 변명이었지. 사람은 한생이 아무리 자랑스러웠다해도 단

한순간이나마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면 그 한생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기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나. 이보라구, 제 할바를 다하고야 웃을수 있는것이 인간일진대 내 이제라도 나라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여보려네. 나도 이제 철이 들어야 할게 아닌가.》

동호는 최기사의 두손을 부여잡으며 애원에 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 제발 이 일만은 나 혼자 하게 해달라구. 부탁이야, 내 죄는 나 혼자 씻고싶네.》

최기사는 간절한 호소가 담긴 친구의 얼굴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철이 들어야지.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심장에 새긴 그날부터 너와 나 우리 인민모두가 더 철이 들지 않았는가. 철든 자식이 되여 아버지의 유훈을 관철하는것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것이 오늘 내 나라의 가풍이 아닌가.

《이 사람아, 나도 기술자가 아닌가.》

그러니 이 일엔 내 몫도 있어. 자네만 철이 든 줄 아나.

우린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거든, 친구라는게...》

동호의 두손을 꼭 감싸쥔 최기사의 손은 뜨거웠다.

《성학이, 고맙네...》

《...》

미덥게 마주보는 두 기사의 눈빛은 빛나고있었다.

《그럼 자넌 내가 축정하는 수치를들 적게나. 그러면 시간을 훨씬 당길수 있거든.》

동호는 최기사에게 쥐고있던 수첩을 넘겨주었다.

《그러세. 하지만 다음 한번은 내가 축정하자구. 확인하고 검산하는 의미에서 말일세. 그 수치는 자네가 받아쓰라구. 그렇게 되면 실수가 없을걸세...》

마주잡은 두손이 힘껏 오르내렸다.

실신했던 동호와 최기사를 사람들이 안아내왔을 때 동호의 손안에 꼭 틀어쥔 그의 수첩에는 축정에서 얻어낸 몇개의 수자가 적혀있었다. 그때문에 회생을 각오했다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잘것 없어보이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 인간에게 한생의 자부심을 되찾아주는데는 더없이 값진 보물이였다.

의식을 차린 동호와 최기사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지배인도, 당비서도 그리고 안해도...

그들을 둘러보는 동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름없는 안정감을 맛보는듯싶었다.

내나라

김석주

아끼고 사랑하며
손때묻어 귀중한 그것을
내것이라 말하고
내 집이라 말하듯이
내 나라라 말한다

언제나 정겨운 목소리로
내 어머니라 말하고
내 고향이라 말하듯이
내 나라라 말한다

내 나라...
가만히 불러보면...
정답고 친근하고 소중한것
못잊을 추억과
끊을수 없는 인연이 있는 모든것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내 시내물
내 거리
내 동산

그리고 가없이 기쁨진 들판
련련히 뻗어간 산밭들
나의 일터
나의 공장들...

아름답고 풍요한 이 모든것의 주인은?
나다!
내가 살고
내가 땀흘려 가꾸는
내것이다!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어버이수령님 찾아서 안겨주신

이 땅, 이 하늘
경애하는 장군님 빛내여주시는
이 요람, 이 세월

하기에 털끝만치도 빼앗길수 없는
목숨같은, 피와 살과 같은
권리다
주권이다
너와 나
우리의 사회주의다

그 어디서 흙 한줌 헤집고
가지 하나 분지르고
살그니 꼬집어도
내가 아픔을 느끼는
내땅
내 하늘
내 바다

강변의 조약돌 하나
산기슭의 나무 한그루
보석처럼 다듬어세우고
내 한몸 다 바쳐 가꾸며 지켜갈
내것이다

풍운사나운 세상의 한복판을 가르며
사회주의기치 높이 나아가는
존엄높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다!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고 빛내갈
내 나라다
우리 나라다
인민의 나라다

자기 생활의 세계, 시세계를 가진 시인들의 초상

최희건

저 하늘의 태양이 있어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천만가지 향기로온 꽃들이 피고 이 땅의 깊고 얇은 계곡, 풍요한 대지를 적시며 천만줄기 강하가 흐르고있다.

산야에 피어웃는 백화가 각양각색이고 굵이치는 강하의 그 흐름소리도 저마끔이어서 이 나라 산천에 아름다운 자연의 그 《교향곡》이 울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그 산천의 수려함을 보는것이며 풍만한 시의 정서적음향을 듣는것이며 랑만과 환희로움을 안고 살지 않는가.

하거니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안아 기름진 문학의 토양에 뿌리내려 움트고 꽃핀 주체시가문학의 화원속에 풍기는 《시의 향기》, 《시의 가락소리》 다각각으로 독특한 까닭에 한편의 시를 읊어도 귀맛이 있고 한곡조의 노래를 불러도 가슴은 기쁨에 젖는것이 아닌가.

진정 여기에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시가문학 건설에 바쳐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닿아있다.

또한 여기에는 그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주체시가문학을 배우며 자라난 제자들이 한편한편의 시가들에 남모르게 바쳐온 뜨거운 땀과 진한 피가 어려있다. 진정 심장의 피를 끓이고 났을 태워 쓴 그네들의 하나하나의 시편들에는 우리가 오늘에 바치는 충정이 있고 래일에 이어갈 붉은 피가 있고, 숨저도 안고갈 뜻이 있고, 묻혀도 높떨 숨결이 있으며 꿈많은 사랑과 랑만과 희열이 있고 걸음걸음 새겨가며 깨우치는 생활의 진리와 철학이 있다.

하기에 그들이 쌓은 《시탑》의 총계를 한단한단 따라오르며 파헤쳐 살펴보며 너나 없이 허심하게 새로운 의미로 시를 배우며 우리의 주체시가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자는 뜻에서 이글을 쓴다.

1. 사랑의 불을 안은 시인

(동기춘시집 《인생과 조국》을 두고)

시인 동기춘은 사람의 불을 안고사는 시인이다. 그가 안고사는 사랑의 불-그것은 인간과 생활,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과 뉘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불은 이 시인의 시정신을 낳은 활력이다.

시집 《인생과 조국》에는 시인의 사랑의 불, 사랑의 열이 뜨겁게 느껴지고있다. 거기에는 눈물젖은 어린 시절의 고향, 환희와 랑만에 넘쳤던 꿈많은 시절의 고향에 대한 추억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송아지동무들, 스승과 이웃들... 고향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련민의 정, 푸른 봄이 웃으며 마중오고 황금의 들-정든 초원이 설레이며 옷자락에 매달리던 그 살뜰한 정, ...바로 살불이로 느껴지는 그런 고향땅이었기에 시인은 좋아도 나빠도 나서부터 스물네해를 고향의 화대천과 절골천의 소란한 물결소리를 들으며 살았었다.

기뻐도 그 내가에 나와 웃었고 슬퍼도 그 시내가 버들방천에 나와 울었다.

이처럼 정깊어진 고향이었던 까닭에 그는 살진 향토의 발이랑에 더운 땀을 흘렸고 젖소들이 한가득 널린 푸른 언덕에서 초원의 서정시, 고향의 서사시를 썼다. 분명 이것이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펴준 활력이었을것이며 그로 하여금 고향땅

을 통채로 불안고 몸부림하는 향토애의 시인으로 되게한 연유일것이다. 이 시인의 향토주체의 서정시들이 가지고있는 발견적가치는 무엇보다도 고향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노래하였다는데 있다. 고향과 그 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시인으로서의 그의 사상정신적성장과정은 그의 시가작품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시 《땅은 흙이 아니다》에서는 《노예주를 위해 노예가 땅을 가꾸고 랑반의 령지에서 천민이 낱알을 바칠 때》 땅은 《계급》의 징표였고 《땅때문에 타향살이 떠났다가 간도의 피바다에 잠긴 조선민족》, 《땅때문에 이 나라의 딸들이 팔리며 나서자란 문턱을 울며》 넘어섰고 《땅때문에 눈감은 머슴의 그 감지 못한 눈에다 흙을 덮어주었으니》 바로 그땅은 이 나라 《백성들의 목숨》이었으며, 김일성장군님께서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라는 《혁명의 강령을 조국광복의 붉은 기폭에 쓰시였을 때》 그 땅은 《계급혁명의 근본문제》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제날 어머니의 헌웃고름이 자식들의 터진 발가락을 건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삼아준 짚신이 굵힌 발을 몇날 몇달 감싸주지 못하였던 세월에는 고향땅은 흙이 아니라 《피의 바다》,

《비애의 바다》, 《눈물의 바다》였으며, 해방된 고향땅에서 어제날 먼지진 발등에 떨어진 눈물의 얼룩을 지우던 일이 생각나 오늘에는 오히려 그 땅을 신을 신고 걷는것조차 송구스럽게 느껴지니 그 고향땅은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행복의 바다》라고 하였다.

인간의 생존수단, 생산수단인 땅을 사회력사발 전단계에 따라 계급의 징표나 계급혁명의 근본문제에 보고 정의지는데서나 그리고 사회력사적관계에 의한 인간의 처지와 위치에 따라 인간삶의 터전이고 요람인 그 땅을 《눈물의 바다》라든가 《사랑의 바다》로 느끼며 해석하는데서 우리는 시인의 작가적분석판단과 예술형상적감각, 작가로서의 리지와 감성적사유의 결합능력을 뚜렷이 찾아보게된다.

시인이 설사 그 어떤 기발한 시적재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 옳바른 사상의식,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인간과 생활, 사회와 역사를 똑바로 리해할수 없으며 따라서 참다운 예술가로 될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형상을 이루는데서 사상적인것은 정서적인것과 결합되어야 사람들의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시적형상을 이루는데서 의의있는 작용을 할수 있다.

시형상에서 사상적인것과 정서적인것의 결합은 시인의 사상의식과 정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바 이것은 시인의 리성적사유와 감성적사유의 통일에 의해서만 형성되는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향토애의 시인 동기춘의 서정시들에서 고향과 그 땅에 대한 해석을 새로이 하고있는 문제에 논점을 세워 분석할 가치가 있다.

시인은 지난날 눈물에 젖던 고향의 하늘아래서 로동의 희열에 넘쳐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에 삶의 개척자라는 긍지와 자부를 가슴벅차게 새기었으며 그때부터 고향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시인이 고향땅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는것은 고향땅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재산, 유산, 피의 전취물로 보았고 그것을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하였다는것이다. 시인이 나서자란 고향의 그《발머리》, 《학교》, 《산마루》, 《길》, 《시내》... 그러한 고향의 구체적세부와 표상들은 시인의 선대 조상들이 살았던 당대에도 있었으나 그때에는 그것들이 《내 목숨》, 《내 청춘》, 《내 사랑》, 《삶의 정든 노래》는 아니였었다.

경애하는 우리 수령님께서 내 나라 백성들을 인민이라 부르시고 그 인민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참삶을 누릴수 있게 해주신 그때로부터 그 땅은 《내 목숨》, 《내 청춘》, 《내 사랑》, 《삶의 정든 노래》로 되

였다.

말하자면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에게 주신 땅, 그 고향이야말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사랑, 우리 삶의 터전인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남겨주고 가신 영원한 유산인것이다. 그래서 그 고향땅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사랑인것이다.

이것이 시인 동기춘이 알고있는 고향땅이며 그가 새로이 의식하고 해석한 고향에 대한 의미인것이다.

고향땅에 대한 심오하고도 새로운 의미를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한 시인의 리성적슬기와 감성적사유의 원숙한 능력은 여기에 있는것이다.

시인은 향토와 조국과 수령님의 사랑을 하나의 것으로 느끼고있다.

하기에 시인은 시 《고향》, 시초《고향땅의 새 노래》, 시 《고향의 이빨나무숲이여》, 《산촌의 회상》등 향토주제의 서정시들에서 노래한바와 같이 누구든 고향땅에 목숨을 두었다면 진실로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심장속에 고향의 의미, 조국의 의미로 거저없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의 향토주제의 작품들에서 고향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그 형상적가치는 그가 자기의 향토와 인간들 그전체를 하나의 유기적결정체로 보고 고향 그자체에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데 있는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것에서 전체를 인식하고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관계속에서 고찰하는 변증법적사유, 어머니와 고향과 조국을 하나의 《사랑의 실체》로까지 감각하는 시인의 독특한 예술형상적사유능력을 보여준것이다.

이 시인이 고향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느끼게 된것은 그가 살아온 사회계급적처지, 깊은 인생체험에서부터 산생된 하나의 룰리의식, 도덕의식의 발현인것이다. 이 룰리도덕의식은 단순한 인간룰리나 도덕들 준수하려는 량심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계급의식, 계급적지각에 기초한것이다. 그가 쓴 어느한 서사시에서 노래한바와 같이 자기가문의 선대조상들 가운데는 생의 마지막날까지 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간이들도 있었고, 어렴풋이 깨달은이들도 있었으며, 땅과 고향을 지키려다가 숨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인의 대에 와서야 그 고향땅이 굳건히 수호되고있으며 행복한 삶의 터전을 비옥하게 가꿔가고있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땅과 고향이 자기의 대에 와서야 비로소 《내 목숨》, 《내 청춘》, 《내 사랑》, 《삶의 정든 노래》로 되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계급의식, 계급적자각이다. 하기에 시인은 자기의 향토주제의 모든 시편들에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신 이 땅이 나의 조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 땅은 그가 태를 묻었고 기
여다니던 시절에 먹어보고 처음으로 두발에 묻힌
흙이었으며 다감하던 인민학교시절 도화시간에
풀밭에 엎디어 그린 산과 들, 폭탄을 막아준 방
공호의 흙지붕, 문화주택을 만든 벽돌, 사회주의
언제에 다져넣은 팟배인 흙, 안해의 처녀시절에
함께 걸은 농장길, 우리 아이들이 밤마다 누워
별을 세는곳, 참으로 시인이 일생토록 떠나고싶
지 않고 죽어서도 묻히고싶은 고향, 제 손으로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고 팟젖은 손이 논과 밭에
오곡을 자래우는 풍요한 산과 들, 비물에 조금
씻겨도 자기 몸에 상처난듯 아프고 꿈에서조차
자기의 세계를 이룬다는 산갈은 땅... 진정 시인
에게 《사랑과 정을 준 산천》-바로 그 《사랑》
이 고향이었다. 《잃으면 내가 없고 지키면 내 삶
이 있어 너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뿌릴》그 땅이
《나의 조국》이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수력은 이제는
본능 아닌 《본능》으로 굳어지고 기질 아닌 《기
질》로 완전히 체질화됨으로써 향토애, 조국애의
사상감정이 시인의 피가 되고 열이 되었다.

시집의 제3편 《내 사는 내 나라》에 들어있는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 《사랑의 가치》와 같
은 작품에는 고향과 조국, 인생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 그의 사랑의 시정신이 가장
깨끗이 정화되고 뜨겁게 결정되어있다.

《백년도 못사는게 사람의 명이고 죽으면 묻는
것이 법이라 해도》 정녕 그렇게는 하지를 못해
피바다에서 투사들이 안아올린 땅-그 어머니조국
은 렬사들을 차마 묻을수 없어 《최후순간을 영생
에 멈춰세운... 혁명렬사릉 추모상》! 참으로 시
《아낌의 정화》에는 내가 죽어 너를 살려야 함을
알고 산 투사들의 뉘와 오열에 오열을 쏟으며 추
도가를 불렀고 울어울어 울지 못해 가슴 찢어지
는 그 쓰림을 안고 빼앗긴 자유와 조국을 찾자고
값있게 바친 녀들에 대한 시인의 열화같은 사랑
-사랑의 불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시인이 그
사랑의 시정신은 시 《인생과 조국》에 더 집착되
여있다. 《제 명을 다 살고간 그런 사람이 렬사릉
엔》없어, 《병으로 맺음한 그런 사람도》 렬사릉
엔 그리없어 더욱 가슴저리하고, 《10대 20대에 피
줄조차 못남기고-그래도 아끼던 생을 아끼지 않
았던...》그 렬사들의 뉘으로 솟아오른 주작봉마루
에 서니 《자유가 없인 차라리 죽음이》나았기에
한목숨 기꺼이 바친 렬사들, 그 렬사들이 바란
자유였던 조국땅을 불안고 찾은 값이 너무도 비
쌌을 느끼며 《이 아까운 사람들과 바꾼 땅을 딛고
분함에 억한 가슴을 두드리는 마음》-진정 그것
이 시인의 《사랑》이었기에 혁명렬사릉-여기서는
누구든 인생과 조국이라는 엄숙한 물음앞에 서있
게 될것이니 릉을 찾는 사람들은 《렬사들이 지켜
보는 눈앞에 조국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같은 꽃

뭍음을》놓으라고 눈물에 젖어 렬사들을 추모하는
시인! 자자마다에 정의 눈물을 쏟고 구절구절에
피를 태워 렬사들을 경모하고 추모하는 시인의
모습은 그대로 정과 열에 끓는 인간사랑의 극치
이지 않는가!

그것은 시인이 살아온 처지와 인생체험, 남다
르게 느끼고 깨달은 계급적자각과 룰리도덕으로
형성된 사상미학적리상이다. 물론 이러한 자각과
의식은 인간의 리성에서부터 오는것이기도 하지
만 자기 민족, 자기 계급, 자기 인민에게 충실하
고 헌신하려는 로동계급의 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수령의 사상과 덕성을 따르
고 닮은데서 생겨나고 형성된다.

고향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불-사랑의
시정신은 이 시인이 자기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인간사랑의 정치
신앙을 신념과 량심, 도덕과 생활로써 받아들이
고 숭배하였기때문에 그처럼 진실하고 뜨거울수
있었다. 자기의 수령과 령도자의 사상과 뜻과 사
색으로 시인으로서의 자기를 완성시켜가며 진정
으로 자기 수령의 시인으로 살려고 하는 작가적
면모를 우리는 그가 시집의 제4편 《내가 아파서
쓴 시편들》에서 뚜렷이 엿보게 된다.

조국이며, 너때문에
내 때로 고통스러웠고
때로 밤중에 일어나
애꿎은 담배도 태웠다

조국이며, 너때문에
내 고민도 많았고
갈라진 이 땅을 두고
아픈 시를 자주 썼더라

이 시구절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심
려하고계시던 분렬된 조국을 두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통일갈망의 전인민적사상감정을 안고사
는 불타는 사랑의 뉘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시
인은 바로 통일갈망에 대한 전인민적사상감정에
자기의 사랑의 불을 지피면서 고통과 고민의 밤
을 지새우다가 마침내 통일열원의 붓을 들게 되
는것이다.

시 《통일열원》은 갈라진 조국땅에 대한 애달픔
과 고통, 간절함과 숙원이 결집된 시인의 통일노
래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이 시는 이 시집
에 들어있는 이여의 시편들에 비해 그 사상주제
적내용의 절박성과 심각성, 통일열원의 강한 열
도, 정서적색채의 짙은 농도로 하여 시인의 《사
랑》의 시정신이 가장 집대성된 작품으로 된다고
본다.

혈육 한점 없는 남녘땅을 두고 피지도록 《나의
남녘》을 부르는 시인의 사랑의 정신은 갈라진

혈육들의 쓰린 고통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정의로운 량심에 타는 사랑의 불이며 의분의 눈물이었다고 통일의 그날을 생시로 맞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원이다.

남녀의 열혈학도들이 포도에 등을 밀고 배를 가르고 몸에 불을 지를 때 그 《사랑》들을 아끼어 몸부림치는 시인의 심정은 오늘에 고통스럽고 후손들에게 죄되고 욕되는 분렬을 끝장내고 흘린 눈물의 값과 뿌린 피값으로 하나된 통일조국을 찾자는 민족의 의지이고 인민의 신념이고 투지인 것이다.

진정 이 통일열원, 통일숙원은 조국이라는 그 《사랑》에 끝없이 열렬하고 충실한 시인의 정과 열의 분출이다. 시초 《통일열원》은 가슴에 늘 조국과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고 인민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인의 공민적사상감정, 애국애족애민의 사상감정의 폭발이며 사랑의 불을 안고사는 시인 동기춘의 심장의 웨침이며 그의 열렬한 시정신의 불길인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증오도 있다. 사랑할줄 아는 인간만이 증오할줄도 아는 법이다. 인간과 생활, 향토와 조국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한 인간이었기에 시인은 분노에 차서 증오의 노래도 격차게 불렀다.

초도화의 불비에 타버린 산천초목과 살륙의 총구앞에 흘린 피의 이름으로, 민족의 가슴에 분렬의 칼을 꽂고 동족을 살륙하는 원쑤, 너인을 릉육하고 산 사람의 장기를 뜯어내어 팔아먹는 식인종들의 치떨리는 만행에 대한 보복으로 흡혈귀들이 입맞추던 그 십자가에 피묻은 야수들의 몸뚱아리를 치달아매여 영원한 고통으로 마르게 하리라는 시인의 분노에 찬 선언은 원쑤미제의 등뼈와 정수리에 내리는 불의 철추인 것이다. 열렬히 타던 사랑의 불은 이처럼 맹렬하고 서슬푸른 증오를 낳았다.

개구리소리 여물던 고향의 아른 봄에 달뜨는 밤이 오면 그 달빛을 자금자금 밝으며 맑은 시내감도는 산골길을 조용히 기닐기도 했고, 향촌 처녀에게 정들어 주절대는 내물에 발을 잠그고 처녀의 곁을 떠나기 싫어 오래오래 발을 씻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던줄을 미처 모르던 천진하던 어제날의 시인, 가슴에 온통 고향의 어머니와 애인과 벗들과, 산천과 초목들… 내 나라, 내 조국 강산의 그 모든것에 대한 사랑으로만 꽉 차있던 가슴에 버려진 창날처럼 서슬푸른 증오의 시를 안고사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묻지를 말라 독자여, 《내 목숨》, 《내 청춘》, 《내 사랑》, 《삶의 정든 노래》인 사랑하는 어머니와 런던과 벗들을 살륙코저, 고향의 산천초목을 불태우고저 피를 물고 칼을 물고 달려든 원쑤를 앞에 두고서야 시인의 가슴에 증오가 어찌 없을것인가! 시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애인과 벗들, 고향과 조국은

생명이었고 사랑이었으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기에 오직 그 《사랑》을 수호하려는데로부터 증오를 안은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생활, 향토와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무한대한 사랑을 간직할 때만이 불의에는 정의의 칼을, 탄압에는 항거의 불을 추켜들게 된다는 사랑과 증오의 의미, 사랑과 증오에 대한 진리와 철학을 깨우쳐준것이다. 이런 의미, 이런 진리, 이런 철학은 시인이라는 직업적인 의무감만으로는 의식하지도 자각하지도 못한다.

시인은 그가 시인이기전에 인간, 인간도 정의인간, 열의 인간으로 되여야 하고 시인이기전에 공민, 공민도 애국애민의 공민으로 되여야 만 그것을 의식하고 자각할수 있는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시인 동기춘의 사랑의 불-사랑의 시정신은 자기 수령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사상에 그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 사랑의 사상을 닮은것이다. 또한 그의 사랑의 시정신은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는 룰리의식, 도덕의식의 발현이며, 정의적인 인간량심과 공민적인 사상감정으로 형성된 시정신으로서 그의 향토주제작품의 생명요소로, 그의 모든 시가작품의 특징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시인 동기춘의 서정시작품들이 가지는 형상적 특징은 조선민족적인 독특한 정서, 조선화적인 회화미, 향토적서정미이다.

그의 시가작품에서 조선민족적인 정서, 조선화적인 회화미, 향토적서정미는 인민들이 흔히 쓰는 일상적인 입말을 다듬어 글말로 기쁨지게 표현한 명시구들에서 표현되고있다.

시초 《고향땅의 새 노래》에서 몇구절 실례들어 보자.

《흥트러지게 누워 아지랑이 피우는 사래사래 저일만사래》, 《일곱살 가드라불은 잠뱅이로 소고 빼 끌고》, 《봉당재 뒤쓰고 조마구발 찍으며 아침 저녁 물길러 늘으로 오가던… 그 길은 어디 바루?》라든가 《피발을 항웅큼 빌어다 놓고 가슴치며 목놓아울던 이자리》, 《하얀피발 지어놓고 지난날이 분해서 눈물도는 이자리》, 《죽지 못해 살던 날은 혼자만 갔다고 울었더니 늙지 말고 살고 싶은 오늘은 일찍갔다 나무리는 이 마음》, 《해마다 자식들 앞세우고 내 이렇게 찾아옴은 당신을 굶겨보낸 저 벌판에서 나혼자 행복함이 눈물겨워 서라오, 당신을 못잊어서라오》와 같은 시구들은 우리 인민들이 생활에서 흔히 쓰는 입말을 다듬어 쓴 시문장들로서 조선민족적정서가 진하게 풍겨오는 시적표현들이다. 그의 서정시들에서 조선화적인 회화미는 향촌의 풍경을 하나의 그림과 같이 그려내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는바 이것은 그의 향토시가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시 《어머니모습》, 《길》, 《산촌회상》, 《소녀》

등에서 표현된 시문장들은 인물, 자연, 행동과 같은 대상, 현상에 대한 특징은 미술가적인 눈으로 포착하고 방불하게 그려내고있다.

《대동강이 피운 물안개 겨우내 언땅을 입김처럼 녹여라 어느새 꽃치마, 언뜩이는 흰종아리, 가로수에선 떨어지네, 물먹은 눈덩어리》이 시구들에는 소문없이 찾아온 대동강의 이른 봄풍경과 봄날의 눈썹이를 보는듯 듣는듯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화대천 물건너 큰길로 군용렬차 행렬이 줄지어 달릴 때 해방구경에 덤비며 돌담장 울타리에 기여오르던 나를 뒤에서 부촉해주시던 그 시절...》과 같은 시문장들에서는 고향사람들의 환희의 감정과 천진하던 시절의 시인의 모습을 돌담장 울타리마을의 풍경에 잘 어울려 보여주고있다.

시문장으로 한쪽의 그림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서정시의 이러한 회화미는 역시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의 사상감정이 아니고서는 얻어내지 못한다.

그의 향토주의의 서정시들에서 조선민족적정서, 조선화적풍경, 향토적서정이 하나의 유기성을 가지고 결합된것은 향토애의 사상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노래할수 있게 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향토적서정은 향토에 대한 풍부한 생활체험과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사상감정을 체득하여야 하는것은 물론, 향토적언어재산이 많은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져야만 표현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인은 알찬 향토적언어를 수확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기름지게 가꾸어왔었고 자기의 피와 땀과 열이 스민 향토적언어로 고향의 물맛, 고향의 흙내 풍기는 시문장으로 향토애,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시인 동기춘의 서정시들에서 나타나고있는 시형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구적시문장으로 시의 품위를 돋구며 교훈적가치를 살려 낸다는데 있다.

시 《인생과 조국》, 《인간의 가치》, 《사랑의 가치》, 《나의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쇠물과 슬라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시문들에서 교훈적가치가 있는 경구적시문장들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다.

그 경구적시문장들은 그 진리성과 규정적성격으로 하여 형상적가치가 매우 크다.

《웃이 넓은건 빨기 쉬워도
마음이 넓은건 씻기 힘들다》

《사랑의 가치는
그 사랑을 가꾸는 보람에 있구나》

《인간의 가치는
조국에 바친 자기 심장의 값이더라》

《영웅은 죽어도 돌아오는곳
역적은 살아도 못오는곳
고향이며 그래서 너는
깨끗한 마음
찾기 쉬운곳인가
얼룩진 마음
밟기 힘든곳인가
누구든 살아가는 한생애
조국에 대한 랑심의 거울이던가》

실례든 이러한 경구적시문장들은 《인간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인생과 조국》,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시들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형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생활의 진리, 생활의 교훈을 안겨주는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원래 경구라는 사전적의미는 하나의 사상이나 생활의 진리를 짚막한 형식속에 담아 날카롭게 나타내는 표현적문구를 말하는것이다. 이 시인은 자기의 향토주의의 시편들에 이러한 경구적시문장을 쓰면서도 인간과 생활, 고향과 조국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데 형상과제를 두었던만큼 그것을 해결하고 살리는 데 초점을 박고있다.

이것은 이 시인이 지기의 모든 서정시들에서 인간과 생활, 고향과 조국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시정신을 표현하려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있으며 시의 정서적색갈도 바로 그 사랑의 정서적색갈로 전반적시문장을 채색하려는데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서도 고향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불-사랑의 시정신을 안고 몸부림하는 향토애, 조국애의 시인으로서의 그의 시인적면모를 뚜렷이 엿보게 된다.

시집 《인생과 조국》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시인이면 그가 누구든 진정한 인간사랑의 불-사랑이 시정신을 가져야 하는바 그것은 시의 생명의 요소이고 없이기때문이라는 깨우침을 준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불-사랑의 시정신을 가지자면 자기수령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정치신앙을 신념과 랑심으로, 도덕과 생활로써 받아들이고 숭배하여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사상과 뜻으로 사색하고 그 사상과 뜻을 그대로 닮아야만 한다.

그것이 수령의 시인으로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유일한 길이며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재가치를 나타내는 길이다.

또한 시인은 정의로운 인간량심과 순결한 공민적감정으로 자기를 사상정신도덕적으로 수양하고 독특한 예술형상적능력으로 자기를 완성시켜야 한다.

시인은 응당 타는 피와 불붙는 뱃으로, 성실한 땀과 부지런한 손으로 《시의 토양》은 기름지게 하고, 《시의 세계》를 펼치고, 《시의 꽃》을 떨기떨기 가꾸어갈 때만이 주체시가문학의 화원

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려갈수 있을것이며 시인다운 자기의 뚜렷한 초상을 드러내게 될것이다. 이것이 시집 《인생과 조국》이 우리 시인들과 독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깨우쳐준 진리이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정과 열, 뱃으로 타는 시인의 사랑의 불, 사랑의 그 시정신이 꺼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2. 눈물많은 시인

(홍현양시집 《나의 추억》을 읽고)

...

나에게 첫 속삭임인양
생활의 시를 준것도
나에게 눈물을 모르는
가없는 하늘을 펼쳐준것도
그 해빛

아 못살아
그 해빛 떨어져
순간도 못살아
어린 날
내 운명의 망울을 터쳐준
해빛은 인생의 어머니

그 은정 못잊어
내 붓을 들고
목이 메여 적으니
해빛속에
눈에 삼삼히 어려오는
아버이수령님 모습이어

...

머리시 《해빛》에서부터 목이 메여하고 붓을 적신 이 시인의 눈물은 네편으로 구성되어있는 이시집의 갈피갈피를 진하게 적시고있다.

눈물의 정서는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시인은 것처럼 눈물많은것이며 또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까닭이 있을것ियो, 그 눈물의 의미도 여러가지고 색채 또한 각양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당의 현명한 령도와 고마운 은덕을 받아안고 살지만 그것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간이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깊이와 수양정도에 따른다.

인간의 료리도덕의식의 견지에서 보면 사랑과 은덕을 감수함에 있어서 그것은 량심으로, 계급의식의 견지에서 보면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새로이 깨닫는 자각으로 발현되는것이라 할수 있

다.

사랑과 은덕을 감수하면서 발현되는 그 량심이나 그것을 새로이 깨닫게 되는 지각은 인간 일반에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사상정신, 감정심리의 표현이다.

그러나 작가는 력사와 시대앞에 지닌 작가적사명감으로부터 수령과 당의 사랑이나 은덕, 당의 로선과 정책, 그 의도를 간파하고 느끼는데서는 보다 민감한것이다.

그런 까닭에 시인들의 남다른 격정과 눈물, 기쁨과 웃음, 사랑과 증오의 사상감정은 천성적인것이 아니며 작가적민감성인것이다.

때문에 수령과 당의 사랑과 은덕을 고맙게 느끼고 우리러 칭송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적극 옹호관철하려는 사상감정도 격조가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시집 《나의 추억》의 시인의 마음속에 고인 눈물의 그 진함과 뜨거움도 바로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고마움을 남달리 민감하게 깊이 느끼는 진정의 눈물이며 충정의 눈물이다. 진정으로 느끼는 인간에게만 눈물이 있다.

따라서 그 눈물의 색채와 농도에는 눈물의 진가가 비껴있는것이다.

시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어》, 《2월의 흰눈송이》, 《흐르는 세월속에 그리운 영상》편에는 시인에게 사랑과 열성을 깡그리 쏟아부어 운명의 망울을 한껏 터쳐준 인생의 어머니, 당의 품을 못잊어, 당의 사랑을 못잊어 흘리는 그의 뜨거운 눈물이 어려있다.

가렬치절한 전화의 그 나날 최고사령부의 가장 가까운곳이었던 금산골에 원아들의 요람과 배움터를 꾸려주시고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앞에서 온 전선을 움직이시며 한시도 떠날수 없는 그 시각에도 달구지바퀴자국이 난 길로 원아들을 찾아오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눈물젖은 얼굴을 묻으며 안기였던 시인이다.

그래서 오늘도 금산골의 푸른 숲 설레이는 언덕에 서면 그날의 추억이 되살아나 뜨거운 눈물이 두눈에 맺힌다고 하였으며 《들길을 걸어도 산천을 보아도 언제나 목메이는 이 마음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 가슴에 사무치고 《눈물로 안긴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 《잊지 못할 그 위대한 사랑》, 《하늘같은 그 은정에 안겨》 눈부신 락원의 세상을 눈물겨워 바라본다고 하였다.

맨발로 자란 자기를 안아키운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시인이 한생을 안고사는것은 어머니당의 다함없는 사랑이다. 《한번 잃은 어머니 다시 뵈울길 없는 오늘에도 사랑은 언제나 해빛처럼》 곁에 따사롭고, 《어린 시절 시내가에서 물장구치면 빨래하며 지켜주던》 어머니의 눈빛처럼 《오늘에도 따스한 온기를 주는 살뜰한 그 손길》이 따사로와 《내곁에 어머니는 영원한 모습》으로 안겨움을 느끼는 시인이다. 하기에 시인은 《꿈결에도 어머니 옷자락소리》를 듣고, 《꿈결에도 그 손길》을 잡고 잠드는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평범한 나날에도 행복에 겨워 때없이 눈시울을 적시며 《눈물에 젖었던 두눈동자에 예지를 안겨주는 그 사랑, 그 해빛을 받아안으며 성장의 나날 내 눈동자에》 당은 언제나 《어머니 모습으로》 간직되어있노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어쩐지 우리는 시인의 이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오늘에 사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정서를 그대로 느끼는것만 같다.

어버이수령님을 애석하게도 잃은 오늘에 와서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가신 내 조국강산을 바라보노라면 수령님의 사랑이 더욱 그리울고 그 사랑이 그리워 사무쳐 눈굽을 적시는 인민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그대로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한다.

오늘에 와서 시집 《나의 추억》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사상미학적영향력은 바로 이런 사상감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는데서 더욱 큰것이다.

이 시집을 다시금 펼쳐보며 더욱더 새로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다함없는 경모의 사상감정은 시집 《나의 추억》이 가지고있는 시형상의 깊은 감화력이며 이서정시집의 항구적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이 부르는 노래의 구절구절들에는 시림의 그늘 한점 없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것은 당의 품속에 삶의 젖줄기 두고 살기때문이다. 폭격에 무너진 담벽아래 숨쳐가던 작은 숨결을 안아 일으켜준것도, 상처입은 가슴속에 어머니사랑의 젖줄기를 준것도, 포성에 창문이 우는 그런 밤에도 가장 밝은 자리를 준것도 어머니당이였으며 불속에서도 행복하던 나날 어머니당이 불러준 노래를 들으며 땅과 하늘, 전선과 후방, 불굴의 조국을 알게 한것도 어머니당이였기에 시인은 오로지 향도의 그 손길만을 따르며 《불의 언덕에 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자기

생의 그 언약을 지켜가겠노라 맹세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시인이 한편한편의 시를 쓰면서 남달리 눈물짓는 까닭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당이 무엇때문에 자기를 전화의 그 나날 초연에 그슬린 군복외투지락에 품어 키워주었던가를 남달리 깊이 깨달은 시인의 민감성에 전적으로 기인되는것이다. 하기에 시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날아준 어머니는 없어도》 자기를 《집없는 나그네》로 되지 않게 해준 자기의 수령과 당과 조국에 드리는 진정의 눈물이며 맹세의 눈물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언제나 이 진정과 맹세가 비친 눈물로 아픔과 울분,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의 노래를 지어불렀다.

시인의 눈물의 시편들에는 사랑에 고마와할줄 알고, 은덕에 보답할줄 알고, 불의에 못견디고, 정의에 가슴 태우고, 불행과 행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며 살줄 아는 공민, 시인으로서의 그의 리성과 감성의 깊이, 지성과 인격의 높이, 인간륜리의식과 도덕적면모가 뚜렷이 엿보인다.

여기에 눈물의 서정시가 가지고있는 예술형상적풍격과 가치와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의 시편들에는 련민, 그리움, 향수와 같은 정서도 자연성을 띠지 않았기때문에 감상적색깔이 아니라 시인에게 《눈물을 모르는 가없는 하늘》, 《희망의 푸른 하늘》을 안겨준 사랑의 색채, 광만적인 정서적색채가 진하게 나타나고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서정시들이 가지고있는 중요한 시형상적특징이다.

우리의 서정시들에서의 눈물은 사상적의미, 사상정서적색채를 띠어야 하며, 시인의 리성과 감정을 결합시킨 형상적사유과정울 거쳐서 려과되고 정화된 눈물로 되여야 한다.

시 《잘 있으라 나의 어린 시절아》, 《나의 집》, 《나의 추억》은 시인의 생애에서 못잊을 시절의 노래로써 거기에는 눈물은 추억한 생활도 있었을 것이며, 설움에 찼던 작은 몸애, 한많은 세상에 돌처럼 굴렀을 그의 몸애 세월의 락엽이 떨어지고 안아줄 품이 없어 진창길, 숫눈길을 헤매었을 길도 없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시인은《고향집 프락처럼 밝고 자란》, 《혁명학원 드넓은 운동장》을 먼저 생각하였고 《학원의 언덕길 불밝은 창문들...》, 《겨울이면 눈우에 찍혀지던 구두발자국들》을 그려보았고, 《봄날이면 들판에 메아리치던 노래소리,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해빛 따사로운 넓은 식당에서 식을제라 더운 국그릇을 권하여 주는 물젖은 어머님들의 손》과 《잠들줄 모르는 탐구의 밤 나를 이끌어주는 대학의 불빛》을 그려보았으며, 《가난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가슴에 깨우쳐주며 못견디게 파고드는 그 불덩어리》를 느끼며 못잊을 배움의 학창시절을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다.

그의 추억에는 늘 맑은 눈물이 비껴있다. 그 추억은 눈물에 젖어있으나 비애는 아니었다. 시인이 자기의 어린 시절과 어떻게 작별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
아, 집없는 고아의 눈물많은 시절은
진창길, 숫눈길...
남의 집 문턱에 있었다했건만
손저어 보내는 나의 어린 시절은 어디에 있었
던가, 어디에 있었던가

웃으며...
즐겁게...
내 작별하는 어린 시절아

이 세상 인류사를 돌이켜보라. 부모없는 고아에게 과연 설움이 없었던가? 눈물이 없었던가? 고아가 자기의 고아시절과 웃으며 즐겁게 작별한 그런 력사와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그러나 이 시인은 자기의 고아시절과 웃으며 즐겁게 작별하였다.

시인은 바로 이 행복한 작별을 노래하고자 붓을 들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품-나의 조국의 품에서만 볼수 있는 행복한 눈물의 작별이었다는것을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었던것이다. 이것이 이 시인의 주장이었다. 이것이 발견이었다.

진정 여기에는 자기의 한생애 남기고 가는 어린시절의 아픈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는 시인의 가슴에 끓는 정과 타는 피와 열이 비껴있고 자기는 고아였어도 고아가 아니었다는 강렬한 주장, 자기에게는 아버지이신 **김일성**,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인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가가득 넘쳐있음을 보게 된다.

울며 웃으며 자기의 어린 시절과 작별하는 이러한 섬세하고도 미묘한 감정심리를 이 시인의 서정시들에서 나타나는 또하나의 특징적인 감정 정서적색채이다.

시 《나의 추억》에서 시인은 《토스레웃 한벌 입고 먼길 떠나던 소년》, 《저 아득한곳에서》오늘의 자기를 보며 웃고있는 어제날의 자기. 《달아오른 먼지길에 맨발이 뜨거워... 그자리에 아직도》 서있는 어제날의 자기를 못견디게 부르며 목메이면서도 서글픈 그 시절은 추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시인의 서정시들이 단순한 감상적 추억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자각, 이러한 계급의식이 아버지수령님의 품에서 행운아로 된 자기를 언제나 새삼스러이 느끼며 그 사랑과 은정에 눈물겹도록 고마와하는 아름다운 인간의 사상감정과 료리도덕의식을 형성시켜 주었다.

추억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감상에서 감상이 아

니라 깨우침으로 자기의 행복을 새로이 의식하고 오늘에 살며 래일로 지향하려는 시인의 량만적인 시정신은 수령의 아들, 당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수령과 당에 대한 공민으로서의 효성과 충성의 사상감정도 시인의 그 사명감으로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하기에 시인은 그가 어떤 생활령역, 어떤 주체의 작품을 쓰던지 거기에서 나어린 자기의 잔뼈를 굳혀준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은정에 감사드리는것을 잊지 않으며 생명의 은인이고 운명의 보호자인 수령과 당에 자기의 심장도 아낌없이 바칠 불타는 맹세를 뜨거운 눈물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것이다. 시인의 눈물이 단순한 인간생리와 감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는 까닭도, 그의 시편들이 감각적이며 직관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량만적인 정서적색채로 채색되었다고 보는 근거도 바로 눈물의 서정시에 수령과 당과 조국의 은혜를 못잊어하고 그 은혜에 자기의 피와 넋과 심장까지를 바쳐 보답하리라는 진정의 맹세가 뜨겁게 어려있음을 보기때문인것이다.

시집 《나의 추억》을 통하여 시인의 서정시들에서 받아안게 되는것은 진실성이다. 앞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시집 《나의 추억》의 서정시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미학적영향력, 정서적감화력은 바로 진실성에서 생겨난것이다.

시집의 모든 시편들은 사랑과 은정을 진심으로 느끼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매우 예리하게,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식이 아닌이상 실제에 있어서 눈물처럼 솔직하고 진실한것은 없을것이다.

눈물은 진실의 고백이다. 눈물의 서정시는 진실의 서정시이다.

우리의 문학작품은 사람들에게 미쳐 모르고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제때에 깨우쳐주며 비록 알고 받아안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뜨거움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시집 《나의 추억》이 우리에게 수령과 당, 조국이 우리에게 안겨준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게 해준 그 정서적감화력은 서정의 진실성에 있다. 예술에서의 진실성이 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생활의 본질을 명백히 납득시키고 공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가작품에서 서정의 진실성문제는 시의 고유한 본성에 관한 문제이며 생활반영의 진가문제이다.

실제로 시가작품을 통하여 서정을 느끼게 되는것은 시인자신이 아니라 독자대중인것이다. 이것은 현실생활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느낌이 인민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인민적성격을 띠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실례를 들어보자-

고요히 흘러가는 보통강, 물결은 속살거리며 흘러가는데 어찌하여 시인은 생각이 깊어지며 화

강암의 석벽을 말없이 쓰다듬고 서있는것인가...

《실버들 아지에 움트는 파란 일세엔 5월의 봄빛이 한껏 웃고 어머니를 따르는 어린것들의 재롱이 꽃속에 어울려 아름다운 강변길》은 평범한 날의 생각도 뜨겁게 해준다.

《사람들이 꽃을 보며 즐거이 찾아들고...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락원거리 마음속에 따뜻한 정을 불러주며 행복한 창문들이 가까이에서》열리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유람선은 떠나고, 책을 들고 글줄을 읽어가는 청년들, 버드나무 늘어선 공원길을 걸으며 사색을 모으는 머리 희끗한 학자에겐 고요한 정적이 나래를 펼쳐》주는 강변... 진정한 은혜로운 해빛이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보통강의 풍경을 《젖어드는 눈을 들어》시인이 바라보는것은 무엇이며 느끼는것은 무엇인가?

노래와 웃음과 창조의 사색이 비껴있는 물결위에 고요히 흘러넘치는 시의 서정속에는 《넋마를 좇는 어머니를 기다려》눈물짓던 시인에게 《락원의 주인으로 해빛속을》걸어가게 해준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시인의 진정, 충정의 눈물, 어제날의 토성랑, 오늘의 락원의 보통강사람들의 한결같은 진정과 충정의 눈물이 어려있다.

락원의 보통강변에서 은혜의 봄빛, 사랑의 봄빛을 느끼는 시인의 사상감정이 보통강사람들이 다같이 느끼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됨으로써 이 시의 서정이 진실한것으로 되었으며 시가의 사상미학적감화력으로 인민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적극 이바지한 형상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서정의 진실성은 모든 시가작품의 공통적인 형상관계이며 요구이다.

이 시인의 생활의 서정시들이 가지고있는 서정의 진실성과 그 형상적기능에서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것은 시인의 특유한 생활체험과 현실을 민감하게 감수하는 예술형상적감각능력, 남다른 눈물의 독특한 감정정서로 생활의 음미를 감각하는 시인의 창작적개성이 가져다준것이다.

그러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서정의 진실성을 낳게 한 자기의 특유한 생활이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전쟁에서 받은 아픈 상처를 가져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속에서 눈물의 진의미를 알고 살아온 행운아의 생활일것이다. 인간이 자기를 낳아키운 부모없어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살줄 알고 그 사랑에 자기가 흘러는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며 자기를 의식한다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으로서의 리성과 지성이 없이는 그러한 사상감정, 료리도덕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자기를 키워준 자기의 수령과 당의 은덕에 자기를 서슴없이 바쳐 보답하려는 충정도 생겨나지 않는다.

불행과 슬픔, 행복과 기쁨을 알고 성장한 행운

아라고 하여 누구라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눈물로 느끼는것도 아니며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자의식과 충정의 사상감정을 간직하게 되는것도 아니다.

자기를 수양하려 애쓰고 자기를 의식하려 분발하고 자기를 바치려고 각오하는 인간만이 그가 진정으로 행운아의 긍지, 행운아의 값높은 생활을 알고 사는 진정한 행운아라고 할수 있다.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행운아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위대한 인간사랑의 하늘아래에는 고아가 없고 고아의 눈물이란 없음을 노래하고저!

인간사랑의 위대한 품, 어버이수령님의 품-눈물없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어머니사랑과 은덕을 노래하고자 그는 시인으로 되었던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원아시절이 흘러간 금산골에서 아버지 장군님을 뵈을 때 《젖어드는 눈에 웃고름을 가져가던 누나들의 잊지 못할 그 모습》을 오늘도 추억하고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도 혁명이 준엄하여 수령님께서 마음쓰신 일 그처럼 많으셨건만

장군님 보내주신 꽃신을 신고 밤나무숲에서 매미를 쫓으며 《가시의 아픔을 모르고》자라던 나날을 추억하고있으며 허리띠를 졸라맨 조국을 걸음걸음 안아일으키시며 수령님 눈바람을 헤쳐가실 때 《그 눈비의 차거움 모르며》자라던 배움의 시절과 《볼타는 거리를 지나 강을 거느고 국경을 넘어》수만리 떠나온 이국땅에서 그윽한 보리수향기를 느끼면서도 《벽돌 한장, 한그람의 세멘트가 귀한 조국을 두고 내 그 향기에 취하지 않으리라》하며 자기를 기다리는 《조국의 진달래》를 마음속에 안아보던 꿈많은 그 시절을 추억하는것이다. 아득히 흘러간 그 시절을 지나 시인으로 된 오늘에도 그는 잠시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 가있을 때면 타향의 다반우에 놓인 조국의 사파 한알을 보면서도 땀흘려 가꾼 조국인민들의 살뜰한 마음을 느끼는 그였기에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조국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낮설은곳에서도 쉬임없이 따라서는 그 사랑은 《나를 키워준 조국의 손길》이라고, 《그 손길 나를 놓지 않고》있다고, 그것은 꿈결에도 못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흐느끼며 노래하는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 평범한 공민의 진정이며 행복한 인간이 자기를 의식한 리성이며 이 벽차오르는 긍지와 자부를 만사람에게 웨치고싶어 몸부림치는 시인의 열렬한 사명감이다.

하기에 시인은 《모래바다 천리 락타의 방울소리를 들으며 간대도 물을 찾지》아니할것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시인의 가슴에 《어제날 내 입에 물려준 어머니의 젖줄기가 생명수로, 끓는 피로... 젖어들기》때문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서정시들이 진실하게 느껴질수 있게 한 《자

기의 생활》이며 사상감정의 생활적바탕인것이다.

그의 서정시가 가지고있는 진실성은 자기가 체험한 생활을 꾸미지 않고 본연의 느낌 그대로 고백한데 있다.

우리는 또한 시집 《나의 추억》을 다시 읽으면서 시인이 생활을 체험하면서 어떤 생활을 찾고 어떤 생활의 시를 얻으려고 모색하는가 하는 생활과 시에 대한 작가로서의 그의 일가견을 보게 된다.

사랑받는것을 송구스럽게 느끼고 사랑을 바치는것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여기에 생활과 시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의식과 리해가 있다고 본다.

하기에 그의 서정시들에는 전쟁이 가져다준 어린 시절의 상처입었던 생활의 흔적은 전혀 들추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에게 《눈물을 모르는 가없는 하늘을 펼쳐준》 그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랑만을 노래하였다. 그는 《들바람에 흩날리는 락엽과 같이 안아줄 품이 없던》, 《가버린 시절이 불러주는 추억》보다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을 우리르며 잠 못드는》 마음속에 《가난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며 못견디게 파고드는 사랑과 은덕의 나날들을 불덩어리처럼 느끼며 추억하고있다.

그의 시편들에는 과거의 생활을 취급한 경우에도 그 시절의 생활감정을 애절함이나 서글픈 정서적색채로서가 아니라 밝고 랑만적인 정서적색갈로 노래하고있다.

생활과 시에 대한 혁명적락관주의 관점과 태도는 그의 눈물의 서정시들의 성격적특징을 규정해주고있다.

이 시인이 자기의 서정시들을 통하여 해결코저한 형상과제는 바로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의 사랑과 은덕에 바치는 진정과 충정의 사상감정, 아름답고 고상한 료리도덕의식, 오늘에 살며 어제를 잊지 말며,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을 위해 너나없이 오늘을 사랑하면 값있게 살아야 할것이라고 절절하게 노래하려고 한것이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형상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자기의 특유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서정시들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시작품의 사상정서적 감화력을 획득하려는 창발적능력을 발휘한것이다.

시집 《나의 추억》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징은 또 밝은 양상의 생활정서가 다정다감한 운물적정서를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운물의 요소, 운물의 바탕, 운물적정서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편들에서는 우선 시행들의 길이를 매우 작게 분행하고있다.

75편의 시들가운데서 시 《해빛》을 비롯한 53편의 시들은 한결같이 시행들이 짧게 분행되었는바

한시행 한소리마디로부터 네소리마디로 분행한것이 많으며 두소리마디, 세소리마디등으로 분행한것은 53편 전부에 해당한다. 이것은 정갈하고 청아하고 단아한 밝은 양상의 정서를 약동적으로 나타내는 시들에 맞는 탄력적인 운률을 보장하고있다.

시행의 길이를 짧게 분행하여 시의 감정정서의 인도를 높이고 시의 정서적색채를 밝고 부드럽게 나타내는것은 이 시인의 운률조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운물의 바탕문제는 시운률을 조건짓는 내용적요인에 관한 문제이다. 시의 운률은 생활의 음률에 바탕을 두고있다. 시운률은 생활정서의 합법칙적산물이다. 이 시인의 서정시가 설음에 겨운 고아의 흐느낌이 아니고 눈물없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한없는 사랑에 의해 내리는 고마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기애 거기에는 환희와 행복의 사상감정이 어려있어 밝고 정갈한 정서적색갈의 운물적정서가 흐르기마련이다.

시 《조국을 떠날 때》를 보자

...
하늘 한끝
비행기의 시창으로 보이는
정든 산천이여
미역감던 시내물조차
따라서며 부르는듯
네가 있어
기쁜 마음 하늘에 올랐구나

푸른 산
푸른 들
흘린 땀 네 기슭에 없다면
떠나는 마음
이리도 행복에 젖지 않으리
...
멀어져도
정녕 아득히 구름속에
그 모습 사라져도
이몸을 치마폭에 안아키워준
어머니의 그 모습으로 따라서더러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이 서정시에 흐르는 시인의 뜨거운 눈물의 정서는 조국을 떠나는 순간에 어쩔지 서글퍼지면서도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 《아쉬워도 어제날의 그 슬픔》이 아니기에 《기다리는 불 밝은 창문을 안고》가면서 작별의 아쉬운 감정을 소리없이 목메여하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인것이다.

이 생활의 정서가 시인의 정서로 된것이고 생활의 그 음률이 시의 운률을 조건지어준것이다.

시인은 자기 서정시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운률적정서를 살리는데 시운률을 매우 예민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시행들을 짧게 분행함으로써 운률진폭을 짧게 만들어 시의 호흡률을 조절하였으며 그것으로써 생활의 발랄하고 약동적인 감정정서를 생활의 음률에 가깝게 하였다. 시인은 혹 시행의 길이를 한호흡에 담을수 있게 비교적 길게 분행한 경우에도 운률진폭을 길게 만들어 호흡의 틀조를 조성하여 사랑과 은덕을 깊이 느끼는 감정정서의 강한 열도와 사색있고 여운있는 감정정서라든가 울분과 증오의 사상감정을 나타내는데 효과성을 부여하고있다. 시의 운률이 가지는 이러한 미학적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여 《자기의 생활》, 《자기의 시세계》를 진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시형상적탐구와 진지한 노력은 자기의 시를 보다 뚜렷이 하려는 작가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창작자세이다.

이 시인은 자기 수령과 자기 조국의 그지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눈물의 감정정서로써 자기 식으로 노래하는 작가적 개성을 획득하였다.

자기의 특유의 생활체험에 바탕을 두고 자기의 생활의 시를 찾고 자기 생활의 본색에 어울리는 시형상형식을 탐구하는 창작적수련과정은 이처럼

자기의 독특한 창작적개성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다.

이처럼 시집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수령과 당, 조국의 사랑과 은덕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그진가는 어디에 있으며 불행과 행복, 슬픔과 기쁨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여기에 또한 시집 《나의 추억》의 예술형상적가치와 의의가 있는것이다.

아직 시원의 창작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며 새롭게 해결해야 할 형상과제도 적지 않다.

시는 흘러간 시절의 추억에도 있지만 오늘에도 있다. 오늘에 꽃피는 위대한 인간사랑의 노래, 그사랑에 보답하는 창조와 투쟁의 노래는 미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것이다.

독자들은 믿을것이다. 시인의 언약을...

《무궁한 세월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충성의 힌길을 걸어갈 우리의 한마음》, 《내 심장 둘로 필수 없듯이 받들어오 오직 수령님 한분, 따라오 오직 향도의 그 빛발, 내 생의 첫언약은 이것뿐》이라던- 시인이여, 그대의 노래 오늘에 있고 래일에 있다.

완성에서 보다 높은 완성으로 도약하리라는 시인의 전망을 략관하게 된다.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

리금녀

말 못하는 흙이건만
볼에 비비고싶구나
가없이 펼쳐진 별이건만
청년분조원 내 작은 가슴에
다 안아보고싶구나

별이여!
어버이수령님 유훈을 지켜
이른봄 찬서리속에
한여름 무더위속에
우리 함께 알알이 이삭을 키워온
내 사랑 별이여

잠을 잊은
탈곡장의 그 나날을 이어
너와 나 또 한살
90년대의 보람찬 나이를 먹으며
평양을 우리러
새 결의를 다지는 이 아침

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마음 다 헤아리시고
불리한 날씨를 이겨내는 지략을 주시고
풍년벌을 마중할 큰 길
흔히 열어주셨거니

다는 몰랐어라
나라의 큰 회의를 하시면서도
송이송이 내리는 함박눈을 보시며
농사에 좋은 복눈이 내린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깊으신 그 심중을

현지지도 먼길에
비를 맞으시면서도
이 비는 곡식에 좋은 약비라고
뜨거이 말씀하시던
높으신 그 뜻을

인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친어버이 마음이사기에
쌀로 먼저 공산주의를 하자고
우리를 믿어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

하기에
그이의 참된 아들딸의 본분을 지켜
처창즈근거지 인민들의 일본새로
비료도 듬뿍이 마련하고
풍년벌 가꾸는 전투를 벌려온
새 세대 우리가 아니냐

별이여
지금 열정의 노래, 희망의 노래속에
머리수건 기폭처럼 날리며
알뜰한 솜씨로 촘촘히 엮는 울바자는
너를 포근히 감싸는 우리의 정성

런이여 거름실고 달려오는
프락토르의 저 발동소리
봄! 봄이라고
어서 서두르자고
너에게 보내는
우리의 당부

아 칼바람 아직은 맵짜고
불줄기 얼음에 덮였어도
별이여 너와 나
분조원들의 가슴가슴엔
푸른 싹이 움터나거니

벌써 보이누나
불같은 우리 소원이 씨앗이 되고
청춘의 티없는 충효심 열매로 무르익어
하늘가에 일렁이는 황금파도가

별이여, 내 마음이어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 풍년고장을 찾아주실 때
만풍년벌인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우리 분조 수고로움도 헤아리시리

실력전의 준비를!

4년전 저는 이 지면을 통하여 독자들앞에 중편 실화소설 《네송이의 꽃》과 장편소설 《류랑아들》을 쓰겠노라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약속 당시에는 1~2년안에 완성할 결심이었건만 어언간 네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장편소설 《류랑아들》까지 완성은 하였습니다만 독자들앞에 오히려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약속했던 기일도 기일이지만 보다 더 불안스러움은 이제 독자들속에 들어가게 될 작품의 형상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1996년 4월 26일 말씀을 받들고 명작창작이 그 어느때보다 전면에서 나설고있는 오늘날것만큼 더우기 불안도 크고 후회도 많은가 봅니다.

뒤를 보며 울지 말고 앞을 보며 웃으라는 말이 새해를 맞는 지금의 저의 경우에 꼭 맞는가싶습니다. 지금껏의 창작태도와 자세, 립장에서 대담하게 솟구쳐올라 다시한번 도약을 하자는것이 새해의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저의 결심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실력전입니다. 아니, 실력전을 벌릴수 있는 비약된 능력과 기량 해결이 초미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실력전에 용약 뛰어들 준비는 결코 이

전처럼 책상머리에서만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가슴에 불을 안고 몸부림치는 원형들의 충만한 사상과 감정, 정서와 호흡, 맥박이 바로 오늘 저의 실력배양의 원천이며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독자의 가슴을 조일 흥미진진한 문학적엷음새와 구성, 참신하고 풍부한 언어 형상까지도 다 그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제 어릴적 지식의 세계에 대한 황홀한 꿈을 안고 배움의 문턱을 감히 넘어서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배우고 배우고 성실히 또 배우겠습니다. 그 배움의 넓과 지식을 작가본연의 천하지대본으로 삼고 우리 민족사에 가장 융성했던 198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로동당시대를 전례없는 영광의 시대로 빛내이는데 력사적공헌을 한 우리 나라 과학자충신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불을 안고 살라》(가제)창작을 위한 준비를 명실공히 새로운 기점에서 끝낼 것이며 당면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형상을 모신 단편소설 환편을 완성하겠습니다.

소설가 현승남

여성생활주제분야에서 주목되는 시를

지난해에 작품도 못내놓았는데 새해결의라니, 그것도 《조선문학》지면에...

새해결의라면 창작성과도 크고 이름이 쟁쟁한 분들이 이 지면을 차지해야 하는줄로 알고있던 저로서는 붓을 들기가 참 먼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마저 놓치면 자신에게 박차를 가해나갈 큰 채찍 하나를 놓칠듯싶기에 새해엔 독자들과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 글로 맵짠 회초리를 삼을가 합니다.

1997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생각많은 이해가 시작됩니다.

환히 밝아오는 21세기... 그 로정에 또 한페지의 빛나는 년륜을 아로새길 새해 1997년!

이해에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85돛,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5돛,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80돛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의의깊은 날과 달로 가득찬 새해입니다.

허리띠를 풀어놓고 보낼 새해가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두광야의 엄동설한속에서 불굴의 힘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의 때식을 보장한 항일의 너투사들처럼 우리 녀성들로서는 각별히 각오를 든든히 하고 맞지 않으면 안될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새해의 조선문학문단에는 유명무명의 녀성시인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얼굴을 나타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활에 녀성들의 시점에서 노래되어야 할 생활들은 얼마나 무진장한것입니까.

저는 이런 면에 각별히 힘 기울여 새해엔 너성
생활주제분야에서 주목되는 시들을 내놓도록 하

겠다는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시인 최진이

한줌의 밀거름이 되고저...

나는 평론가이다.

새해에 우리가 걷고있는 《고난의 행군》대오에서 내가 서야 할 위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름지기 하나의 평범한 《화선선동원》이 되고자 한다. 머리를 달구는 총탄소리를 들으며 《전투소보》도 쓰고, 돌격선에서 전호앞벽에 발음을 파고있는 전사들을 둘러보며 걱정념친 《선동원설》도 하는...

선동원의 목소리는 대오앞에서가 아니라 대오속에서 울릴 때 더 진실한것이며 총화마당에서가 아니라 바로 돌격선에서, 산병선에서 울릴 때 더 힘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선동원의 말은 꾸밈없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간결해야 한다.

지난해 자신의 평론활동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명작창작전투에 떨쳐나선 작가들의 대오속에서 자신은 주체념은 《훈시》나 하고 때로 등에 닿지 않는 《시비》나 하면서 우리 당의 문예정책관철에 일떠선 작가들에게 진실한 조언, 따뜻한 충고,

힘있는 고무를 주지 못했다. 공연히 멋부리는 건 《웅변》도 없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었던가. 작가들의 심장과 하나의 지향, 하나의 숨결로 높뛰는 평론가의 량심이 부족했던것이다. 그리고 내자신이 명작의 화원을 꽃피워 어머니당에 기쁨을 드리고저 순결하고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는 작가들의 노력을 귀중히 아껴주고 사심없이 도와주려는 동지적의리가 모자랐던것이다.

《고난의 행군》대오에서 사회주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고있는 하나의 전사로서 작가들로부터 참된 동지로, 우리 사람으로 불려우고싶다.

진실성, 친절성, 간결성이 보장된 소박하나 특색있는 《전투소보》를 써서 작가들과 회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전우가 되는것-이것이 나의 새해결의이다. 그리하여 당에 기쁨을 드린 어느 명작의 밑뿌리에서 자취없이 생명의 즙과 향기를 보태고 스러진 한줌의 밀거름이 되고저 한다.

평론가 김성우

뜻깊은 해에 빛나는 창작의 자국을 남기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국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참으로 의의깊은 해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85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55돐,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 탄생 80돐, 조선인민군창건 65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고 설레입니다.

만약 이 뜻깊은 해의 날과 초를 값있게, 보람있게 보내지 못한다면 어찌 량심있는 작가라하며 시대앞에 지닌 작가적본분을 다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혁명적근인정신으로 지난해 착수한 중편소설 《황금시절》(가제)을 다그쳐 끝내고 장편소

설 《민음》의 속편을 꼭 써달라는 많은 독자들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장편소설 《의리》창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은 형식의 작품집필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를 명실공히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창작의 해로 보내며 먼 후날 돌이켜보아도 부끄럼없게 주체문단에 빛나는 창작의 자국을 뚜렷이 남기렵니다.

소설가 김정길

나의 몫을!

새해를 맞으며 제일 기뻐하는것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동문학작가인 나도 새해가 기쁩니다.

더구나 보내는 이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해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1996년은 《고난의 행군》정신, 붉은기정신으로

온 나라가 강행군을 한 해였습니다.

나도 《고난의 행군》을 뚝뚝하게 승리자의 대오에서 총화하기 위하여 작가로서 자기의 몫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편동화 《<이상한 나라>에 온 세사람》을 창작하였습니다.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돈벌이를 업으로 하던 세사람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신도덕적우월성에 크게 감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로서는 웃음과 야유, 풍자의 수법으로 특색 있게 써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장편동화를 새해 1997년에는 출판에 회부하여 독자들과 기쁜 상봉을 하도록 하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도덕교양에 이바지하는 동화 《귀남이》도 곧 잡지 《아동문학》에 등장시키렵니다.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나- 아동문학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문학작가 황령아

기관사, 나의 목소리

서진명

새해의 진군
보람찬 위훈으로 부르는 목소리인가
두줄기 은빛궤도우에 울려
거리와 마을로 메아리쳐가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정해진 승무구간을 달릴 때마다
늘쌍 울리는 기적소리건만
오늘따라 왜 이리도 이 마음 흔들어주고
이 심장 불태워주는것인가
들끓는 공장과 농장별로
내 몸도 내 마음도 떠실고
달리는 기관차이기에
울리는 기적소리에도
후더운 나의 숨결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도 어린듯

말해다오 기적소리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일해나가자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받들어
끓어오른 이 마음
네 기적소리에 뜨겁게 어려있는것 아니냐!

렬차몰아 그 어디를 달려가도
기적소리여
언제나 불타는 이 마음 안고
온 나라 들끓는 일터와 건설장에
전하여다오

별에 가거든

뜻깊은 이해를 빚내려
더운 땀 흘리는 그 농장원들에게
탄전에 가거든
석탄증산을 위해
뛰며 내달는 그 탄부들에게

기다리기에 앞서
비료를, 동발목을
차판이 넘치게 떠실고
기관사 내가 간다고

달리는 뿔수 없는 한 심장
달리는 달릴수 없는 한 궤도우로
충성의 한길을 달려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만족과 기쁨을 드리자고...

울리며 새겨들고
들으며 생각한다
혈맥처럼 잇닿아있는
그 모든 일터
그 모든 사람들을 찾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너는 기관사 나의 목소리
선행관의 궤도를 앞서 달리며
함께 가자고
따라서라고
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위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을
위훈으로 부르는 소리여라

라철

리원희

대종교의 창시자이며 1대교주인 라철은 19세기 말~20세기초에 활동한 민족주의자이며 반일애국지사였다. 처음 이름은 라인영이었으며 호는 홍암 또는 일지당이라고 하였다.

라철은 1863년 전라남도 보성군의 봉건유생집안에서 출생하였다.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던 집안에서 태어나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난 라철은 어릴때부터 글공부에서 비상한 재능을 보여주어 두각을 나타냈으며 나이들면서는 구례에 가서 당시 학식과 기풍을 겸비한 학자로 알려진 왕덕보라는 스승에게서 배웠다.

29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라철은 처음 승정원에서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라철이 자라나고 벼슬길에 진출하던 시기는 근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리조봉건왕조가 점차 쇠퇴의 길로 치닫고 나라의 앞길에 비운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던 시기였다. 아세아의 자그마한 기름진 땅덩어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리는 구미열강과 일본사무라이들의 쟁탈전속에 이 땅은 점차 승냥이무리에게 내던져진 양고기신세가 되어갔다. 특히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침략의 문을 연 일제는 민비일당의 사대매국행위를 리용하여 침략의 마수를 더욱 깊이 뻗치였다. 청일전쟁의 발발과 갑오농민전쟁의 여파로 인한 일본군의 조선출병, 《을미사변》 등 일제의 발광적인 침략행위로 하여 봉건정부는 허울만 남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갔다.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있을수 없었던 라철은 1905년 5월 관직을 사퇴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0대의 혈기방장한 그로서는 더 이상 일제의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수수방관할수 없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암운이 드리운 내 나라, 내 땅, 단군민족의 찬란한 문화전통이 쪽발이 섬오랑캐의 게다짜밑에서 어지럽혀지고있는 내 나라를 밝게 할 결심을 품고 인영이었던 이름을 밝을 철자를 써서 라철로 고치였다.

라철은 1905년 5월 뜻을 같이하는 리기, 오기호 등 수십명의 동료들과 함께 《유신회》를 조직하고 반일구국투쟁에 나섰다.

일제가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요하면서 조선강점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

던 그해 6월 라철은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우리나라와 선린관계를 맺고 우리 나라를 독립국가로서 우호적으로 대할데 대한 의견서를 일본정부 대신들에게 제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할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11월에는 이등박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다는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었던 라철은 즉시로 이등박문에게 무모한 흥계를 버리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할것을 요구한 서한을 보냈다. 이등박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자 그는 다시 일본 《천황》에게 같은 내용의 항의서신을 보냈으며 일본궁성앞에서 3일동안 단식하면서 항의투쟁을 벌렸다. 한편 라철은 외무대신 박제순에게 《목이 베여질지라도 조약에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내어 친일매국역적들의 매국행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요와 《을사오적》들의 매국행위로 하여 《을사5조약》은 날조되었다.

라철은 1906년 5월 다시 일본에 건너가 일본 《천황》에게 조선의 독립을 인정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정부각료들과 만나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놈을 폭로규탄하고 날조된 조약을 철회할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라철은 리기 등 애국지사들과 함께 권총 50정을 구입하고 결사대원들을 모집하여 《을사오적》들을 처단하려는 등의 맹렬한 활동을 벌리던중 1906년 7월 체포되어 10년간의 류배형을 받고 외진 섬으로 류배살이를 갔다.

1908년 11월 류배지에서 돌아온 라철은 또다시 일본에 건너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담판할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허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모두 허사로 되었다. 라철은 나라의 형세가 이미 기울어져 몇몇 사람들의 정치활동이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는 것을 통절히 절감하였다. 그는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속에서 애국애족의 정신과 민족의식을 불려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라철은 국과민멸의 근본원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외국된 교육을 받아온 까닭에 응당 있어야 할 민족의식이 가리워진데 있다고 개탄하면서 《이미 나라는 망하였으나 민족에게만은 진실한 의식을 배양시켜 민족부흥과 국가재건의 원동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라철은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이 망한 원인이 사람들이 사대주의에 사로 잡혀 자기 나라의 조상도 모르고 력사도 모르며 똑똑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일어나 투쟁하지 못한다 있다고 인정하고 조선 민족의 민족정신과 애국애족의 전통은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시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것을 강조하였다.

라철은 사람들속에서 민족의 넋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숭배하고 단군의 《홍익인간》, 《리화세계》사상을 리념으로 하는 교단을 조직하는 길로 나아갔다.

조선을 완전히 삼켜버리려는 일제의 《합방》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던 1909년 1월 15일(음력) 서울의 어느 자그마한 집에서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여 엄숙한 의식을 기행하였다.

이름난 화가 손기가 그렸다는 위엄있는 풍채의 단군화상을 단우에 정중히 모시고 단군을 숭배하는 의식차림을 하고 단군교포명서를 읽고 개국시조 단군의 넋을 이어 단군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고 일제의 강도적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것을 맹세하는 이들이 바로 라철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라철은 교단을 조직하면서 교의 명칭을 《단군교》라고 하였으며 전체 교단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교주로 되었다. 라철은 《단군교》를 내오면서 단군을 숭배대상으로 하고 단군의 《교훈》을 근본리념으로, 교리로 삼았으며 단군을 받들어온 조상전래의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단군교》를 자기가 처음 내놓은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래 단군이 만들어낸것을 자기가 오늘에 와서 그대로 계승하고 부흥시키려고 할뿐이라고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단군교》를 포명한 1월 15일을 《중광절》로 하였다.

《단군교》는 그 어떤 신이나 하늘을 숭배하는것이 아니라 이름그대로 실재했던 우리 민족의 원시조단군을 숭배하고 단군의 《홍익인간》, 《리화세계》사상을 근본리념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속에서 민족정신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단합시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것을 목적인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종교였다. 《단군교》조직은 교단인 동시에 반일구국단체이기도 하였다.

라철은 《단군교》를 내온후 발표한 《단군가》에서 단군숭배의식과 실제의식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 천조 단군이
태백산에 장립하사
나리집을 창립하여
우리 자손에게 주었네
거룩하고 거룩하다
대황조의 높은 은덕 거룩하다

...

라철은 교단을 조직한후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속에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지사들과 대중을 규합하였다.

이들의 애국적인 활동이 활발해지자 《단군교》가 사람들속에 널리 퍼지게 되자 일제는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갖은 탄압을 다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 의식을 말살하고 저들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그로부터 시작된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놈은 헌병들을 내몰아 우리 나라 전국각지의 책방들과 향교, 시원, 개인집들을 살살이 뒤져서 저들의 식민지 지배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보이는 단군관계력사책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 문화, 지리책들을 수십만권이나 압수하여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력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자기 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하여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할것이니 그때에 가서 일본의 사적과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배할것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조선력사말살행위에 미쳐날뛰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철은 교의 명칭에서 단군의 이름을 직접 로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1910년 9월 교명을 《대종교》로 고치였다. 여기에서 《대》자는 크다는 뜻이며 《종》자는 신적인 사람 혹은 원시조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으로서 《단군교》가 담은 본래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일제의 탄압밑에서 교단을 계속 유지하고 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과정에 라철은 같이 《단군교》를 내온 정훈모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과 교명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교단이 분열되는 상설의 아픔도 겪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의기를 잃지 않고 《대종교》의 경전을 집필하고 교단건설과 교세확장에 힘을 쓰는 한편 반일구국운동에 헌신분투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강요로 《한일합방조약》이 날조되어 우리 나라는 세제지도에서 그 이름마저 잃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당국노의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대종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1916년 구월산삼성사에서 《대종교》신도들이 진행하던 제사의식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단군과 관련한 일체 행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하였

으며 국내에서 《대종교》의 교문을 폐쇄시키는 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라철은 자기가 바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교단이 흩어지게 되자 사람들속에서 단군에 대한 숭배의식을 심어주고 단군의 교리를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자기가 바라던 국권회복과 민족적독립의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1916년 8월 15일 라철은 구월산 삼성사에서 다 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나는 원조 단군의 녀과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힘을 발동시켜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애써왔건만 정성이 모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간다. 그러나 가도라도 단군의 그 녀은 가슴에 품고 가련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마음까지 합쳐 꼭 단군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떨

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 거룩하고 거룩하신 천조 단군이시여!

조상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나를 용서 하시옵소서!

나의 동료들과 이 땅의 수억만 단군자손들이여!

그대들에게 단군의 거룩한 위업을 맡기고 먼저 가는 나를 질책하시라. 그리고 그 위업을 이룩하고자 모두가 단군을 높이 숭봉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싸워이기기를 절절하게 바라노라.》

길지 않은 한생을 국파민렬의 원한을 품고 단군민족의 녀을 지키기 위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단군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떨치기 위해 고스란히 다 바친 라철. 그는 비단 《대종교》의 교주로서만이 아니라 애국적인 종교인으로서, 견결한 반일애국지사로서 력사와 후대들의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것이다.

짧은시

과업에 대한 생각

김흥권

밤길도 진펄길도 걸어야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당이 준 과업은
벗어놓으면 오히려 무거워
어깨는 떨어지고 걸음은 떠지지 않던가
오, 나이는 많고 백발은 서려와도
힘겹도록 받아안고 살고싶은 과업이여

그것을 받아안은 이 가슴
멀리 흘러갔던 젊음이 다시 온듯
열정은 솟구치고
떨어졌던 어깨는 가벼이 올라가거니
내 오늘 희열에 넘쳐 말하노라
어머니당은 과업을 줄 때 바로
짐 아닌 생을 주고있다는것!